



2015년 한국중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중동: 새로운 동반자 관계 모색

Korea and the Middle East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Seeking a New Partnership between the Two Regions

일시 2015년 5월 23일(토), 09:30 ~ 17:00

장소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산학협력관(舊 행정동) 8층 대회의실/ 5층 소회의실

주최 한국중동학회

후원  외 교 부  한국델캠(주)

韓 國 中 東 學 會

THE KOREAN ASSOCIATION OF MIDDLE EAST STUDIES



프로그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중동: 새로운 동반자 관계 모색

- ▶ 일시: 2015년 5월 23일(토), 09:30 ~ 17:00
- ▶ 장소: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산학협력관(舊 행정동) 8층 대회의실/ 5층 소회의실
- ▶ 주최 : 한국중동학회
- ▶ 후원 :  외교부,  한국델캠(주)

09:40~10:10 등 록

10:10~10:40 개 회 식

사 회

김정명 (한국중동학회 총무이사)

개 회 사

박찬기 (한국중동학회 회장)

축 사

윤천호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학장)

10:40~12:00 제1분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중동의 새로운 관계 모색”

• 사 회: 최영철(장신대)

• 장 소: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산학협력관(舊 행정동) 8층 대회의실(10:30~12:00)

발 표: 정영규(협성대)

“국제 원유가격 변동에 따른 한국과 중동국가와의 경제협력”

토 론: 김동환(한국외대), 장건(한국외대), 김종관(동국대)

발 표: 권희석(외교부 아중동국)

“중전 70주년에 즈음한 우리의 대중동 정책”

토 론: 조상현(군사연구소), 성일광(건국대), 황의갑(단국대)

12:00~14:00 오 찬

14:00~16:00 제2분과: 정치·경제 분과

• 사 회: 금상문(배재대)

• 장 소: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산학협력관(舊 행정동) 8층 대회의실(14:00~16:00)

발 표: 이성수(부산외대)

“아랍민주화 이후의 아랍사회: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적용 방안”

토 론: 최영철(장신대), 정상률(명지대), 유달승(한국외대), 홍성민(한국외대)

발 표: 김수완(한국외대)

“IS와 미디어 전략”

토 론: 황병하(조선대), 박현도(명지대), 남옥정(단국대), 유왕종(인천대)

발 표: 김강석(한국외대)

“이스라엘 변수와 냉전 초기 중동 다자안보체제의 쇠퇴”

토 론: 인남식(국립외교원),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이효분(국방대), 이성욱(명지대)

발 표: 박찬기(명지대)

“사이크스 피코 협정과 레바논, 시리아의 건국 과정”

토 론: 서정민(한국외대), 홍미정(단국대), 하병주(부산외대), 오종진(한국외대)

14:00~16:00 제3분과: 사회·문화 분과

• **사 회:** 김종도(명지대)

• **장 소:**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산학협력관(舊 행정동) 5층 소회의실(14:00~16:00)

발 표: 이난아(계명대)

“문학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의
문학 공간 답사 콘텐츠를 중심으로”

토 론: 장세원(단국대), 임병필(명지대), 양민지(한국외대), 김대성(한국외대)

발 표: 김정명(명지대)

“이슬람 페미니즘과 여성 시각에서 새로운 종교 텍스트 읽기”

토 론: 안정국(명지대), 이원삼(선문대), 엄익란(단국대), 이복례(명지대)

발 표: 김정하(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지중해. 유라시아-아프리카의 바다”

토 론: 송경근(명지대), 윤용수(부산외대), 김정아(한국외대), 신양섭(한국외대)

16:00~16:40 제4분과: “종합토론 및 임시총회”

종합토론 사회 (김정명, 한국중동학회 총무이사)

임시총회 사회 (박찬기, 한국중동학회 회장)

종 합 토 론 (16:00~16:15)

• **사 회:** 김정명(한국중동학회 총무이사)

• **장 소:**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산학협력관(舊 행정동) 8층 대회의실

발 표: 각 분과 사회자

임 시 총 회 (16:16~16:40)

- 사 회: 박찬기(한국중동학회 회장)
- 장 소: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산학협력관(舊 행정동) 8층 대회의실

<임시총회 안건>

- ① 중동학회 활동사항 보고: 국제학술대회(10월) 개최 준비 상황 보고 및 추진 계획,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평가 경과 보고, 중동학회 논총 온라인 투고 시스템 및 심사기준 변경 등
- ② 편집위원장 임기 2년으로 연장: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평가 점수 기

16:40~ 17:00 폐 회 식

폐회사 (박찬기, 한국중동학회 회장)

목 차

제 1분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중동의 새로운 관계 모색

- 정 영 규 (협성대) 3
“국제 원유가격 변동에 따른 한국과 중동국가와의 경제협력”
- 권 회 석 (외교부 아중동국) 13
“중전 70주년에 즈음한 우리의 대중동 정책”

제2분과: 정치·경제 분과

- 이 성 수 (부산외대) 29
“아랍민주화 이후의 아랍사회: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적용 방안”
- 김 수 완 (한국외대) 43
“IS와 미디어 전략”
- 김 강 석 (한국외대) 51
“이스라엘 변수와 냉전 초기 중동 다자안보체제의 쇠퇴”
- 박 찬 기 (명지대) 63
“사이크스 피코 협정과 레바논, 시리아의 건국 과정”

제3분과: 사회·문화 분과

- 이 난 아 (계명대) 87
“문학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의 문학 공간 답사 콘텐츠를 중심으로-”
- 김 정 명 (명지대) 103
“이슬람 페미니즘과 여성 시각에서 새로운 종교 텍스트 읽기”
- 김 정 하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121
“지중해. 유라시아-아프리카의 바다”

제4분과: “종합토론 및 임시총회”

- 종 합 토 론
- 임 시 총 회

제 1분과

- 발 표 “국제 원유가격 변동에 따른 한국과 중동국가와의 경제협력”

정영규(협성대)

토 론: 김동환(한국외대), 장건(한국외대), 김종관(동국대)

- 발 표 “종전 70주년에 즈음한 우리의 대중동 정책”

권희석(외교부 아중동국)

토 론: 조상현(군사연구소), 성일광(건국대), 황의갑(단국대)

국제 원유가격 변동에 따른 한국과 중동국가와의 경제협력

정영규
협성대학교 교수

- 1 -

1. 서론

- ▶ 2014년 6월 이후 국제원유시장에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원유치킨게임 진행됨
- ▶ 국제원유가격이 2014.6월 1배럴에 110\$에서 2014년 5월 11일 현재 1배럴에 59\$에 가격을 형성

- 2 -

II. 국제유가 하락과 영향 및 전망

▶ 1. 유가하락의 원인

- ▶ 첫째, **세계 석유공급 증가**,
- ▶ 둘째, **석유수요 증가세 둔화**,
- ▶ 셋째, **달러화 강세**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3-

<표 1> 2012년~2014년 북미 및 비 OPEC 석유생산 증가규모

(단위: 만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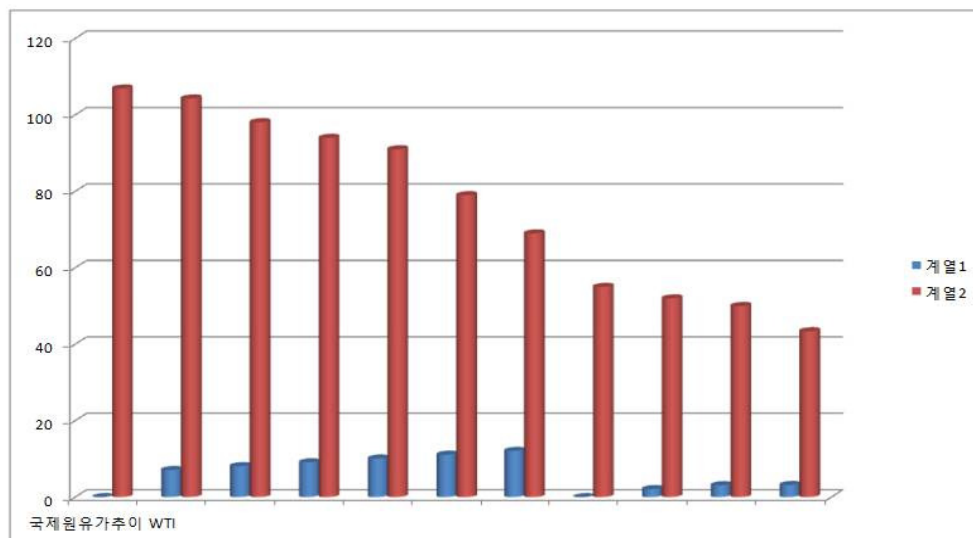
	'12년	'13년	'14년(추정)	'12~'14년
미국	103	113	147	363
캐나다	21	23	21	65
비OPEC	47	137	189	373

-4-

- ▶ 2012년부터 북미지역 석유생산이 100만b/d 이상 증가하면서 여타 지역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OPEC 공급 확대를 주도**
- ▶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세계 석유수요 증가세도 둔화**

-5-

<표 2> 국제원유가추이
WTI(2014.6-2015.4)



-6-

2.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등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산유국 경제는 성장세가 대체로 둔화**
- ▶ 선진국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세가 확대
- ▶ 신흥국도 생산비 절감, 구매력 상승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물가상승세도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

-7-

- ▶ 중국의 경우, 국제유가 10% 하락 시 중국 **GDP 0.15%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률 0.25% 하락 전망(BOA 등)
- ▶ 인도의 경우, 국제유가 **\$10/b 하락** 시 **마다 인도 성장률 0.1%p 상승**, CPI는 0.2%p, 도매물가는 0.5%p 하락 전망

-8-

- ▶ 한국의 경우: 원유수입국들은 중-단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 ▶ 국제유가 10% 하락 시 한국 GDP 0.2% 상승
- ▶ 우리나라의 대산유국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 산유국 경기부진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

-9-

- ▶ 반면, 산유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원유수출 비중이 높은 일부 산유국 경기는 크게 악화될 가능성
- ▶ - (중동) 중동 석유 수출국의 재정수지.경상수지.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성장에 부정적 영향

-10-

(2) 중동 산유국 및 기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 ● **경상수지가 적자이고 실질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된 일부 산유국과 신흥국에서 경제 및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는 금융위기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 **이란은 최근 미국과의 핵협상타결 후 긍정**

-11-

Ⅲ.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변화

- ▶ **OPEC 총회에서 국제유가 하락을 용인한 이후. 향후 국제유가는 불안정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국가 재정에 여유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견제
- ▶ OPEC 회원국이 감산할 경우 미국에게 고객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음

-12-

- ▶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92%로 유가하락이 정부 재정수입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로 직결
- ▶ 사우디가 국제 원유가를 80달러 선으로 인하시킨 현상이 지속되면, 미국의 많은 셰일 유전이 적자가 되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셰일 에너지 개발산업의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 진행중

-13-

IV.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변화

- ▶ 이란은 원유 수출이 재정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있다.
- ▶ 최근에 타결된 미국-이란 핵협상은 장기적으로 이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 ▶ 2015년 4월 2일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핵 협상과 관련해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소식
- ▶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리면 전세계 원유 시장에 이란산 원유 공급이 증가

-14-

V. 중동 기타 국가와의 경제협력

중동 비산유국 경제는 중-단기 호재

중동 산유국의 경제위기 제한적

비석유제조업, 건설, 플랜트 경제협력 호재

중동 국가와의 경제협력 증가 전망

-15-

VI. 결론

- ▶ 사우디 경제는 단-장기 호재, 단지 이란 핵협상타결 우려
- ▶ 이란 경제는 핵협상타결로 장기, 단기 호재
- ▶ 한국은 국제유가하락으로 중동 산유국(원유)외에 비산유국가와 비석유제조업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

-16-

▶ 감사합니다

-17-

종전 70주년에 즈음한 우리의 대중동정책

한국중동학회 춘계학술대회
2015.05.23.(토)

목 차

1 중동의 중요성

2 우리의 대중동정책

3 대중동정책의 발전

1. 중동의 중요성

중동 이슈는...

□ 글로벌 이슈

- 이란, 시리아, 이라크, 이-팔, 리비아 등 중동 안보이슈 → 글로벌 안보이슈
- 중동 에너지 문제 → 글로벌 에너지 이슈

□ 우리 경제에 직접적 영향 행사

- 전체 원유 수입의 약 84% (2014)
- 전체 해외 건설의 약 40% (2014)

□ 북한 문제 관련 함의

- 미국의 대중동정책 변화 → Asia rebalancing
- 북한-시리아/이란간 군사협력
- 이란 핵 → 북핵
- 시리아 CW → 북한 CW
- 중동지역내 북한 노동자 증가 (쿠웨이트 5,000, 카타르 3,000, UAE 2,000)

2. 우리의 대중동정책

박근혜 정부의 중동정책 방향(2013.10월)

「새로운 지평을 향한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3C’)」

(Building Comprehensive Partnership towards a New Horizon)

경제적 상호 보완(mutually complementing)

전통적 에너지 수입 및 건설수주(인프라 수주지원은 계속중)

⇒ post-oil 시대 새수요에 부응(보건, 교육, IT, 원전, 신재생, 방산, 치안, 금융 등)

정치적 상호 기여(mutually contributing)

중동 평화·안정에 기여

⇒ 고위급 교류 강화, 정책 대화 활성화, 평화·안정 노력에 적극 참여

문화적 상호 소통(mutually communicating)

문화교류와 people-to-people contact로 외교저변 강화

⇒ 문화적·인적 교류 활성화

정책실행내용(2014년)

경제적 상호 보완(mutually complementing)

[보건 의료]

- GCC 등 중동 환자 국내 유입 증가; 국산 의료장비 및 의약품 수출 지원

※ 2013.10월 외교부-보건부간 협력 MOU 체결

-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 지원: 카타르(11월), 쿠웨이트(진행중)

- 환자송출계약 체결 지원: 카타르(진행중)

※ 2013년 기준 환자유치실적

- 중동 전체(3,515명) 중 사우디 1,300명, UAE 1,150명, 리비아 230명

- 서울대병원, UAE Kalifa 병원 위탁운영 계약 체결(7월)

- 향후 5년간(2015-19) 한국 의료진 200여명 파견

- 연간 2,000억원 운영비 수령

- 건강보험 심사평가시스템 수출 지원

- 주한아중동 대사단 대상 심평원(서초동 소재) 브리핑 주선(6월)

- GCC 대사단-심평원장 만찬 주선(9월)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이란, 리비아 등 도입에 관심

정책실행내용(2014년)

경제적 상호 보완(mutually complementing)

[원전]

● UAE

- 5.20 바라카 1호기 원자로 설치식(2017.5.1 준공)
 - 2018년(2호기), 2019년(3호기), 2020년(4호기) 각각 준공예정
- 원전분야 인력양성 MOU 체결

● 이집트

- 지중해안 다바 지역에 4기 건설 계획; 내년 상반기 발주 예상
- 한전의 수주활동 적극 지원중(11월 총리 방문)

● 사우디

- 2032년까지 총 16기 건설계획; 내년중 첫 2기 발주 기대
(2017년 건설개시, 2022년 준공)
- 한전의 수주활동 적극 지원중
- 미-사우디 원자력 협력협정 미체결
 - 사우디는 미국의 농축·재처리 포기 요구 거부

정책실행내용(2014년)

경제적 상호 보완(mutually complementing)

[교육]

● UAE

- 2014.11월 현재 UAE 유학생 100명 미만 국내 수학중
- 양국간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시행중
- KSP 협력제공중

● 쿠웨이트

- KSP 사업 진행중

● 사우디

- 2014.11월 현재 사우디 유학생 600명이 국내 30여개 대학에서 수학중
- KSP 정책자문 제공중

정책실행내용(2014년)

정치적 상호 기여(mutually contributing)

● 고위급 교류

- 5월 우리 정상 UAE 방문
- 2월 UAE 왕세제 방한, 11월 카타르 국왕 방한
- 9월 유엔총회 계기 한-이집트 정상회담
- 11월 G20 계기 한-사우디 정상회담
- 1월 국회의장 이란 방문
- 11월 총리 이집트, 모로코 방문
- 9월 유엔총회 계기 한-이란/이라크 외교장관 회담, 한-GCC 트로이카 외교장관 회담(전략대화 MOU 체결), 한-아랍연맹 전략대화
- 5월 이란 외교부 차관보 방한, 11월 이스라엘 외교부 차관 방한
- (정책협의회·공동위 개최) 이란, 이집트, 바레인, 이스라엘, 카타르, 사우디, 오만, 쿠웨이트

정책실행내용(2014년)

정치적 상호 기여(mutually contributing)

● 위기 관리 : 위기상황 및 정세 불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관계부처회의·NSC 회의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긴급 대응
 - ※ 1월 리비아 KOTRA 관장 납치, 2월 이집트 타바 테러, 6월 ISIL 사태 확산, 7월 가자 사태, 7월 리비아 사태, 연중 이란 제재 문제

● 다층적·다면적 활동 지원

- 한-중동 협력 포럼(금년 제11차), 중동문제관련 국제 세미나(10.16, 서울), KAS 사업 지원
- 중동문제 관련 역외국과의 정책 협의회 : 미국, 영국, 프랑스, EU, 중국, 일본 등
- 전문가 초청 사업 확대 추진 : OIC 정무국장 등
- 부내 브라운백 세미나 : 학계 인사 및 주한 외교단 등
- Outreach 사업 : Iftar 만찬 확대(언론계·학계·스포츠계·요리 등 다양한 분야 인사 초청)
- MENA Club 발족(11월)

정책실행내용(2014년)

정치적 상호 기여(mutually contributing)

▷ 소지역 그룹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다층적 관계 수립

▶ Arab League :

2013.9월 우리 장관 – El Araby 사무총장간 회담(뉴욕)
* 협력 MOU 서명

2014.9월 우리 장관 – El Araby 사무총장간 제2차 회담(뉴욕)

▶ GCC :

2013.9월 제1차 한-GCC 트로이카 외교장관 회담(뉴욕)

2014.9월 제2차 한-GCC 트로이카 외교장관 회담(뉴욕)
* 전략대화 MOU 서명

▶ OIC :

2014.9월 아중동국장-주유엔OIC 대사 면담(뉴욕)

2014.12월 OIC 본부 정무국장 방한 초청

정책실행내용(2014년)

문화적 상호 소통(mutually communicating)

● 수교 기념 문화 행사 개최

- 이란 대장금 행사(42주년), 오만(40주년), 카타르(40주년)

● 중동 최초 문화원 개관

- 11월 이집트 카이로

● 한-아랍 소사이어티 행사 지원

- 6월 아랍문화제 행사

· Fayyad 전 팔 총리 초청, 주한아랍대사단 및 국내학자들
특강 주선, 사진전, 미술전, 영화제, 의상전 등 개최

- 11월 카라반 공연단 및 무역사절단, 사우디 및 쿠웨이트 방문

● 총리, 이집트 아인삼스 대학 한국어과 학생 대상 특강

3. 대중동정책의 발전

외교장관 중동순방 결과(2014.12.18-24)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대중동외교정책 제시

제11차 한-중동 협력포럼 기조연설

- 일방적 경제이익 중심 → 쌍방향 상생 파트너십 구축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3개국, 외교장관의 7년만의 방문

- 향후 경제협력, 난민문제, 지역정세 협력에 있어 우리의 역할

사우디, 요르단, 이스라엘과 협력 분야 확대

- 3개국과 협력범위를 전통분야에서 보건, 의료, 교육, 정무, 대테러로 확대

대중동정책의 5대 핵심요소 제시

(2014.12월 외교장관 천명)

1. 에너지·건설 중심에서 전면적 쌍방향 경제 동반자 관계

2. 중동의 평화에 기여하는 외교

3. 교육, 인적교류 등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외교 추진

4. 양자외교를 GCC 외교로 보완

5. 고위급 전략적 소통 강화 외교

중동4개국 순방 의의

1. '제2차' 중동 붐 조성'을 위한 실질적 기반 구축

- 정상외교를 통해 기존/신규 협력분야에서 실질 협력사업 다수 발굴,
⇒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기대
 -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 수행(총 116명)을 통한 적극적 비즈니스 외교로 다양한 분야에서 계약 성사(구체 성과 후술)
- 순방국 정상 모두 한국을 최적의 협력/투자 파트너로 인식
 - 한국을 '동반자'(라피크), '형제'(아크)로 평가
-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의 국가 발전전략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우리의 창조경제 전략간 호혜적 협력 기반 구축

※ 쿠웨이트 국가비전2035 ; 사우디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5-19) ;
UAE 비전 2020 및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 카타르 국가비전 2030

중동4개국 순방 의의

2. 전통적 협력분야(에너지·인프라 건설)에서 가시적 성과 거양

- **안정적 에너지 수급 확보 및 쌍방향 협력 기반 구축**
 - 우리의 최대 에너지 공급원('14년 원유 71%, 가스 66% 도입)인 중동지역과의 에너지 협력 공고화
 - 에너지 분야에서 쌍방향 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
 - ※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건립(쿠웨이트)
- **쿠웨이트 신정유공장 건설 관련 55억불까지 최종 수주 유력**
- **금년 상반기중 추가 12억불 규모 인프라 건설 수주 전망**
 - UAE 에티하드 철도 2단계(5억불), 카타르 통합 담수시설(5억불), 사우디 변전소(1.5억불) 등

중동4개국 순방 의의

3. 고부가가치·신성장동력 분야로 협력 확대 및 다변화

- **【원전】 사우디와중소형원전SMART의세계최초상용화(총20억불)공동 추진**
 - 원전수출의 광역화/다종화 및 우리 최첨단 과학 기술의 해외 영토 확장 의미
 - ※ 2009년 UAE 상용원전 4기 최초 수출 → 2010년 요르단 연구용원자로(JNRC) 최초 수출 → 2014년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개선사업(Oyster)
- **【보건·의료】 의료 관광에 이어 의료서비스의 본격 현지진출**
 - '웰빙외교'의 세계화(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 **【문화】 걸프지역 최초 문화원 연내 개원(UAE)**
 - 이미 운영중인 이집트 문화원과 함께 전 중동지역으로 문화영토 확장

중동4개국 순방 의의

4. 우리의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중동지역의 지지 입장 공고화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순방국 전폭적 지지
-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GCC 차원의 이해와 지지 확보
-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 강화 합의
 - 세계물포럼(4.12-17 대구), 세계교육포럼(5.19-22 인천) 등 한국 개최 국제행사 및 우리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지지 확보
- 중동국가들과 양자 외교 심화 → GCC와의 지역협력 외교도 강화

중동4개국 순방 의의

5. 우리 국민 안전/편익 증진을 위한 협조 확보 및 재외국민 격려

- 입국 사증 수수료 면제 및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추진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파병부대 격려(청해부대/아크부대), 동포 간담회(쿠웨이트, 사우디, UAE), 카타르 진출 경제인 간담회(카타르), 의료인 간담회(UAE) 개최
-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조 확보
 - 쿠웨이트, 사우디

중동4개국 순방 구체성과

1. 에너지, 건설·플랜트 등 전통적 협력분야 실질성과 거양

- **[건설·플랜트] 쿠웨이트 정유공장 사업 55억불까지 최종 수주 유력 ; 금년 상반기 추가 12억불 건설 수주 전망**
 - 이외, △사우디 220억불 규모 프로젝트(가스플랜트, 젯다 메트로 등) ; △UAE 철도, 메트로, 2020 두바이 엑스포 인프라 ; △카타르 2022 월드컵 인프라(철도, 도로, 하수처리, 교량, 경기장) 및 담수시설 건설 등 중장기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지원
- **[비즈니스포럼] 1:1상담을 통해 총 44건, 9억 6백만불 계약 체결**
 - ※ 쿠웨이트 1억 3천만불, 사우디 4억불, UAE 2억 7천만불, 카타르 1억 2십만불
- **[손님맞이제거] 우리 기업 애로에 대한 순방국의 협조 확보**
 - ※ 사우디, “사우디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길수 있도록 모든 편의 제공”
 - ※ 쿠웨이트, “한국 기업들의 고충은 작은 것이라도 신경써서 해결”

중동4개국 순방 구체성과

2. 고부가가치·신성장동력 분야로 협력 확대 및 다변화

- **[원전] 우리의 원전수출 및 인력진출 기반 확보 및 확대**
 - 사우디 : 우리 독자개발 중소형원전 SMART의 세계 최초 상용화 (2기, 총 20억불) 사우디와 공동 추진 합의
 - 카타르 : 원자력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협력 MOU 체결
 - UAE: 원전 운영지원 계약(2017-2030년간 총 5000명 규모) 조만간 체결 예정
- **[보건·의료] 중동 진출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대표적 브랜드화**
 -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의 걸프지역 본격 진출 발판 마련
 - 사우디 : 특화 제약단지 조성계약 체결(2억불) 및 여성암센터 운영지원 합의
 - UAE : 아부다비 및 두바이 검진센터 개원 또는 예정
 - 쿠웨이트·카타르: 정부환자송출및의료진연수확대,건강심사평가시스템수출지원

- **[창조경제]** 우리 창조경제 모델의 첫 해외수출
 - 사우디와 “창조경제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 “SK-사우디텔레콤 창조경제 혁신센터 협력 MOU” 체결
- **[투자]** 한-중동간 새로운 차원의 투자 협력(제3국 공동투자 포함) 기반 구축
 - 사우디 : 한국투자공사와 킹덤홀딩회사간 “공동투자협력 MOU” 체결
 - UAE : “제3국 공동진출 MOU” 및 “제3국 원전사업 공동진출 MOU” 체결
-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분야에서의 쌍방향 협력의 의미
 - 스마트그리드 기술 활용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의 수출토대 마련(쿠웨이트)
- **[사이버 정보보안]** 한-사우디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추진 ;
쿠웨이트 등 순방 4개국 대상 정보보안 장비 수출 지원
- **[식품]** “할랄식품 MOU”체결을 통한 최초 할랄식품 협력사례(UAE)
- **[문화]** UAE에 문화원 연내 설립(걸프지역 최초)
 - 문화적 측면에서의 ‘바라카(축복) 원전’으로 평가
- **[청년]** 우리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해외일자리정보one-stop시스템수립추진
△해외진출인력교육훈련체계수립추진△청년교류활성화및확대지원

중동4개국 순방 구체성과

3. 지역 및 글로벌 차원 협력 강화

- 우리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순방 4개국의 지지 재확인
- 세계물포럼 (카타르 환경장관 등) 및 세계교육포럼에 고위급인사 참석
- 우리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2016-18) 입후보 지지 확보
- 기후변화, 난민 등 글로벌 아젠다 관련 협력 증진
 - 우리의 인도주의 외교에 대한 기대 확인 : 3월말 쿠웨이트 개최 제3차 시리아 공여국회의에 고위 대표단 파견

중동4개국 순방 구체성과

4. 국민 편익 증진 및 재외국민 보호

- 쿠웨이트 : 입국사증 수수료(11불) 면제
 - 환전 및 입국수속 불편 제거(연간 우리 국민 7천여명 입국)
 - ※ 카타르: '14.11월 한-카타르 정상회담시 우리 국민의 카타르 입국시 무사증 입국 요청, 카측 '14.11.25 허용
- 쿠웨이트 및 UAE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체결 본격 추진
- 파병부대(청해부대/아크부대) 장병 격려(UAE)

향후 과제

- 방문국별 후속조치 이행
- 중동문제 연구소간 네트워킹 추진 또는 종합 연구기관 설립검토
 - 2006년 정상 중동순방 후 “한-아랍 소사이어티(KAS)”설치

Thank you

제 2분과

- 발 표 “아랍민주화 이후의 아랍사회: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적용 방안”

이성수(부산외대)

토 론: 최영철(장신대), 정상률(명지대), 유달승(한국외대), 홍성민(한국외대)

- 발 표 “IS와 미디어 전략”

김수완(한국외대)

토 론: 황병하(조선대), 박현도(명지대), 남옥정(단국대), 유왕종(인천대)

- 발 표 “이스라엘 변수와 냉전 초기 중동 다자안보체제의 쇠퇴”

김강석(한국외대)

토 론: 인남식(국립외교원),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이효분(국방대), 이성욱(명지대)

- 발 표 “사이크스 피코 협정과 레바논, 시리아의 건국 과정”

박찬기(명지대)

토 론: 서정민(한국외대), 홍미정(단국대), 하병주(부산외대), 오종진(한국외대)

아랍민주화 이후의 아랍사회

-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적용 방안

이 성 수*

- I. 서론
- II. 아랍 민주화시위 이후의 아랍사회
- III. 민주주의와 이슬람
 - 1. 이슬람과 민주주의 양립가능성 고찰
 - 2. 이슬람식 민주주의 체계
- IV. 결론-이슬람식 민주주의의 적용방안

I. 서론

오늘날 아랍사회는 아랍민주화 이후 지속된 혼란과 사회 갈등으로 장기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 아랍세계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2003년이라크 침공, 2010년 시작된 아랍민주화 이후의 혼란 등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ISIS는 전세계에 테러의 공포를 조장하면서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이라크에서 완전 철군했던 미군은 다시 ISIS공습을 위해 이라크 내전에 참가하게 되면서, 아랍사회는 영원한 세계의 화약고이자 세계의 갈등지역으로 확고한 자리를 굳혀 가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시작된 아랍민주화시위는 결국 아랍의 혼란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사회 발달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그 지역의 특수성과 함께 발달해 온 것도 사실이다. 아랍 민주화과정 이후에 튀니지와 이집트, 이라크 등 일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시행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아랍사회의 민주화는 좌절되었고, 아랍사회는 지역별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점진적 발전과 시민의식의 점진적인 변화는 장기적으로 아랍사회를 변화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형태는 다를지라도 민주주의의 결과로 진척될 수 밖에 벗을 것이다.

현재 ISIS를 비롯한 아랍 무장세력의 영원한 목적은 이슬람 공동체사회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슬람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이슬람의 이상에 맞춘 민주주의를 적용한다면 아랍사회도 안정적이고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아랍사회 특유의 민주주의는 이슬람식 민주주의¹⁾를 적용함으로써 달성 가능성이

* 부산외국어대학교

1) '이슬람식 민주주의'는 '꾸란과 하디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슬람 성법(Sharia)과 이슬람의 정치관과 정치사상에 기반을 둔

높아질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슬람식 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아랍사회에 이슬람식 민주주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II. 아랍 민주화시위 이후의 아랍사회

2010년 말에 시작된 아랍에서의 민주화 바람은 튀니지 청년 ‘부아지지’의 분신으로 촉발되어 2011년 초에는 튀니지의 제스민 혁명을 성공시켜 자인 빈 알리의 퇴진을 가져왔다.

또한 튀니지의 민주화 시위는 이집트로 확산되어, 자유장교단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던 나세르와 사다트의 뒤를 이어 30년 넘게 철권통치를 해왔던 무바라크를 퇴진하게 만들었다. 리비아는 군부혁명 이후 42년 동안 정권을 잡아왔던 무아마르 알 카다피 정권에 대항하여 대규모 민중시위로 이어져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렸다.

리비아 시위는 장기 내전과 외국의 내정간섭이라는 상황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리비아의 카다피는 마침내 반군에 의해 사살되었다. 북아프리카 아랍국가들의 반정부 시위는 국별로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다. 특히 리비아에서 발생한 사태는 튀니지, 이집트와는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었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경우 민주화 시위는 장기간의 독재와 이로 인한 경제적 상황악화가 민중봉기(Intifada, 인티파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리비아는 부족갈등, 정권쟁취 및 사회갈등이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튀니지의 시위는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한 사회문제가, 그리고 이집트는 경제문제로 인한 식량난이 그 중심에 있다. 이집트의 경우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밀 가격 폭등으로 인한 극심한 식량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튀니지 시민혁명의 영향을 받아 인티파다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반면 리비아는 장기간의 카다피의 독재와 이로 인한 친카다피계 부족과 반 카다피계 부족의 갈등 즉 부족간의 사회갈등이 직접적인 영향이 되었던 것이다.

아랍지역의 민주화 시위는 2011년 초 아랍 전지역의 민중시위로 확산되어 예멘에서는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에 대한 반정부 운동이 발생하여 아라비아 반도의 하나뿐인 군부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여 살레를 퇴진시켰다.

또한 시리아에서는 33년간 부자 세습 통치를 해온 바시르 알 아사드의 퇴임을 위한 시민 시위가 발생하여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였고,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치열한 살육전에 뒤이어 ‘칼리파 중심의 이슬람국가를 지향’하는 ISIS가 시리아를 분열시켰으며, ISIS의 확대와 테러, 주민학살 등으로 인하여 미국의 공습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당시 시작되었던 아랍국가들의 민중봉기는 안정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아라비아 반도의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반정부 시위로까지 번져가기도 했다. 현재 걸프 왕정국가들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언제든 민중봉기와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아랍지역의 시민혁명은 아랍세계 전체의 정치변동과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역사적 흐름속에서 보면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세계의 민중봉기와 혼란한 상황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며 ISIS, 알카에다, 무자헤딘, 히즈볼라 등 각 무장단체의 활동 등으로 아랍국가들은 아직도 불안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아랍세계의 현실이다.

현재 그나마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국가는 튀니지이다. 그러나 이슬람주의와

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이슬람식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은 본인의 줄고 “이슬람의 정치관이 아랍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2권 제3호와 이 “이슬람식 민주주의 모델과 아랍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33권 3호 참고 바람

세속주의 세력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권 퇴진 시위가 반복됐다. 2013년 9월 연립정부가 물러나고 과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바뀌었으며, 2014년 1월에는 정치권의 타협으로 새로운 헌법이 통과됨으로써 민주주의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튀니지는 새 헌법에서 국교를 이슬람으로 명시했지만 종교 선택의 자유, 남녀평등권을 보장, 고문금지와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하고 있어 개방적 사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발전과는 달리 경제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제활성화로 인한 시민사회의 성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튀니지의 민주주의 정착의 전망은 밝지 않다. 채스민혁명 이후 경제난 속에 한때 20%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2014년 현재 16%로 조금 낮아졌지만, 청년 실업률은 아직도 30%를 기록하고 있어 튀니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집트는 '아랍의 봄' 이후 이슬람주의를 앞세운 무슬림형제단과 세속주의 세력간의 충돌이 지속되면서 2013년에는 자유민주 선거로 선출된 이슬람주의자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이 군부에 축출당하고, 2014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군부출신의 압델 파타 앗시시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집트에서는 새로운 군부 통치시대가 도래했다. 무슬림 형제단이 중심이 된 이슬람 세력은 "군사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군부 반대 시위를 벌였다.

더불어 이슬람주의 세력과 세속주의자들의 갈등과 치안 불안, 경기 침체, 고실업률,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의 불만도 크다. 군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슬람의 영향력을 축소한 새 헌법 초안에 대한 국민 투표가 실시되었는데, 국민투표에서 98%의 찬성률로 새 헌법이 통과되어 향후 이집트에서 군부와 무슬림형제단 간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2014년 3월 이집트 법원이 무르시 지지자 529명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린 이후 4월에 다시 무슬림형제단 의장을 포함하여 무르시 지지자 683명에 사형을 선고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집트 정국은 혼란과 이에 따른 앗시시의 탄압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리비아는 민병대가 정부를 무시하고 활동하고 있어 동서 지역 갈등이 더 깊어졌다. 리비아는 종파·부족 갈등과 고실업률과 나날이 치솟는 물가가 개선되지 않은 점도 국민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부족·지역 간 갈등이 심한 리비아에서는 ISIS를 비롯해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세력을 다져나가고 있다.

까다피가 40년 넘게 리비아를 철권통치하는 동안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각 지역의 일부 민병대는 아직도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부족간, 동부와 서부 사이 언제든 심각한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부의 수도 트리폴리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세력과 동부 뱅가지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세력 간 갈등은 리비아의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2013년 10월 알리 자이단 리비아 총리가 트리폴리의 한 호텔에서 무장단체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소동은 리비아의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됐다. 2년 전에는 뱅가지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 습격을 받아 미국 대사가 사망하는 등 리비아는 말 그대로 1700여개의 무장단체가 난립하여 무장단체의 천국이 되었다.²⁾

이러한 리비아의 상황은 이미 리비아사태에 서방이 개입하고 난후 후속적 정치상황에 대하여 미국과 유럽 등이 방치함으로써 리비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초에는 친 카다피계 무장단체가 남부 정부 공군 기지를 점거함으로써 리비아 의회가 결국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또한 2014년 1월에는 트리폴리 주재 코트라 무역관장이 납치됐다가 석방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는데, 리비아 전국의 이슬람계 무장단체들이 정부군에 가담하면서 의회를 공격한 비(非)이슬람계 '국민군'과 내전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리비아는 2014년 6월에 새 의회를 선출했다. 2014년 리비아 하원 선거 과정에서 이슬람주의 세력이 패배하자 이슬람주의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 새 의회의 정부를 투브루크로 피난가게 만들었다. 이슬람주의 계통의 민병대가 새 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총국민회의 의회 의원들을 바탕으로 의회를 구성하면서 서로 합법 정부를 자

2) <http://www.aljazeera.com/news/middleeast/2014/03/libya-asks-world-help-it-fight-terrorism-201432004226999702.html>

처하는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었다. 트리폴리를 이슬람주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트리폴리에 소재한 리비아 대법원은 2014년 11월 2014년 6월에 치러진 총선을 무효로 선고했다.³⁾

반정부 정치 세력과 반군은 트리폴리를 거점으로 과도정부를 수립했지만 각 지역 무장단체 사이의 권력 다툼과 유혈 충돌이 지속하면서 민병대 간 세력 싸움의 무대로 변했다. 트리폴리에서는 이슬람계(미스라타 민병대)와 세속주의 민병대(진탄민병대)가 충돌하여 미스라타 민병대가 트리폴리를 장악하였다.

카다피 정권 붕괴 후 트리폴리와 벵가지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이슬람계와 비이슬람계 민병대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력싸움계속하고 있는데, 2014년 6월 비이슬람계가 주축을 이룬 압둘라 알타니 총리 과도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슬람 민병대가 트리폴리를 장악하면서 새 의회는 토브루크시로 피신해 있는 상태다. 현재는 퇴역 육군 장성인 칼리파 하프타르를 따르는 반군들이 트리폴리를 장악한 채 정부군과 충돌하고 있어 리비아의 혼란은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 이후 이슬람계 민병대는 독자적으로 의회를 설치해 리비아에는 사실상 2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

리비아에서는 카다피 사망후 전국적으로 최대 1천700개의 무장단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카다피 추종 세력도 다수 있다. 또한 22만5천명 이상이 명목상 국가 통제를 받는 수십개의 민병대 소속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체는 지역 민병대 지휘관이나 그 조직과 연계된 정치 지도자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고 있다. 2015년 초에는 리비아에서 활동하는 ISIS가 트리폴리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등 리비아 또한 ISIS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2011년 3월 시작한 시리아 유혈 사태는 5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화학무기금지기구는 화학무기 폐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엔은 현장조사 보고서에서 사린가스가 사용됐다고 확인했으나 공격 주체는 밝히지 못했다. 이러한 와중에서 외부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내란이 지속됨에 따라 아사드는 반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하였고, 이는 시리아 내부분열을 가속화 시켰다.

시리아에서는 2011년부터 이어져 온 내전으로 16만여 명이 사망했고 약 900만명이 국내외 난민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알아사드가 사실상 단독 출마한 대선은 시리아의 민주화와는 관계가 없다는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다.

레바논 무장정파 히즈볼라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알카에다 연계했던 세력이 IS(이슬람국가)를 창설한 후 시리아는 완전히 분열 상태에 있다. 이러한 내분 와중에도 시리아 정부는 2014년 6월 3일에 대선을 치렀는데 이를 통해 바샤르 알아사드는 88.7% 득표율로 3선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선거는 사실상 아사드를 위한 아사드의 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투표소는 정부군이 장악한 지역에만 설치되었고, 언론 역시 통제되었고 외국 감시단도 없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알아사드와 함께 나왔던 대선 후보 두 사람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들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대선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시리아에서 서방의 지원을 받는 반정부단체 연합체인 시리아국민연합(SNC)은 “대선은 시리아인들의 피로 쓰여진 연극”이라며 투표 반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예멘에서는 2011년 1월 반정부 시위가 발발한 이래 10개월 만에 살레 대통령이 면책을 조건으로 퇴진하는 내용의 권력이양 안에 서명했다. 예멘 역시 새로 구성된 과도정부 주도로 국가 정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안정 회복과 국가 재건의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알리 압둘라 살레 정권이 붕괴한 예멘에서도 알카에다가 예멘 남부를 장악하고 있어 테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예멘에서는 이슬람 무장 세력과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는 정부 요인 암살을 비롯해 군인과 경찰을 겨냥한 테러를 지속하고 있다. 북부에서도 후티 쉬아파 반군과 순니파 살라피스트의 충돌을 비롯한 혼란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233267>

이 이어져 파탄 난 민생경제 회복은 손 쓸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이 독재체제와 저항해온 아랍 민주화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볼 수 있다.

아랍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부에 의한 쿠데타로 권위주의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권위주의체제로 인하여 아랍의 독재정권들은 짧게는 20여년 길게는 40여년을 이어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위주의 정치체제속에서 살아온 국민들 속에서 권위주의 군부체제가 쉽게 사라지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정치권력을 소지하고 있었던 군부가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아무런 압력이나 이유 없이 정치권력을 이양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는 언젠가는 그 권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군부와 민주화와의 상관관계를 볼 때 군부정권에서 민주화 이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요인들은 민간인 반대세력의 성장, 군부정권의 치명적 실패, 군내부의 갈등 등이 있다.

반면 민주화의 장애요인들로는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과 무질서, 군부통치하의 강력한 억압정책이 실시된 경험, 군부에 의한 비공식적 권력행사와 부패, 민군연합으로 인한 지배계층 유착, 그리고 권력 후계자의 부재 등이 존재한다.

민주화 시위 및 시민혁명 이후 아랍 국가들이 민주주의체제로 이행될 것인가 하는 점과 아랍세계가 어떠한 정치적 변화를 겪을지는 매우 미확정적이다.

일반적으로 서구 비교정치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던 민주주의와 관련된 정치문화에 대한 논의의 내용은 안정적인 민주주의체제는 민주적인 가치와 신념을 기반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민주주의를 향해가는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성공여부는 민주적 가치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식되고 성장하느냐에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에 따라서도 좌우되며, 한 국가의 정치문화가 민주적인 성향이 강한 경우 권위주의 체제가 그 지배를 제도화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민주적인 정치체제가 생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정치문화가 존재해야 하며, 전통적으로 비민주적인 정치문화가 존재해온 국가에 인위적으로 민주적 정치체제를 이식하려는 시도나 노력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어쨌든 제스민 혁명으로 시작된 ‘아랍 민주화’ 이후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아랍세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수많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Ⅲ. 민주주의와 이슬람

1. 이슬람과 민주주의 양립가능성 고찰

아랍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민주주의가 정착된다면 어떠한 형태가 될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아랍세계는 이슬람이라는 정체성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서구식 민주주의는 이념적 측면에서 매우 훌륭한 정치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식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절차적인 문제와 비서구 지역에서의 민주화에 대한 이론적 측면에서 완벽할 수 없는 이론이다.

따라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아랍세계에서 도입하더라도 이슬람의 정체성이 포함되어야만 아랍세계에서 진정

한 민주주의로 인식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이는 ‘이슬람식 민주주의’라는 이슬람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표방하여야 아랍세계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 다양한 이슬람 정치 사상가들에게서 제시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많은 학자들에서 회자되어 왔는데, 이슬람 세계에서 보수주의 사상가들은 ‘알라’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이슬람 개념 때문에 이슬람과 서구식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민주주의에서의 국민의 주권에 대한 이념이 이슬람 근본 원리에 모순되며, 이슬람법(Shari'a)은 국민이 선출한 의회에 의해 변경될 수 없고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개념은 불경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슬람과 민주주의의 양립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하산 알 반나, 알 마흐두디, 알 따흐따위 등의 견해에서 제시되고 있다.

하산 알 반나(H. al-Banna)의 경우 신정민주주의를 옹호하였는데, 이슬람정치체제의 기본원리들에서 입헌정부와 의회와 선거가 무슬림들의 지지를 받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정치와 정치제도에 광범위한 이슬람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슬람은 무정부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수립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즉, 알 반나에 따르면, 국민의 종복인 지배자는 알라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무슬림은 신앙으로 하나가 된 형제들이므로 통일되게 행동해야 하며, 무슬림들은 지배자의 행위를 감시할 수 있고 지배자에게 충고를 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Al-Banna, 1984, 269).

알 반나는 이슬람 국가의 정치구조가 세 가지 원리에 근거해야 된다고 보았는데, 첫째 꾸란이 기본적인 헌법이다. 둘째, 정부는 자문회의(al-Shura)의 개념으로 운영된다. 셋째, 정부수반은 이슬람의 교의와 국민의 의지로 제한받는다(Mitchell 1969, 217). 이와 더불어 이슬람과 민주주의 간 모순을 강조한 알 마우두디(Abu A. al Mawdudi)는 “민주주의는 여러분의 신앙과 반대되며 ... 여러분이 믿는 이슬람은 형편없는 체제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슬람과 민주주의는 양자 간 어떤 조화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였지만, 그의 저서 ‘이슬람의 정치이론’(Political Theory of Islam)에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민주주의 개념을 꾸란과 하디스 등 이슬람사상에 기반을 둔 신정 민주주의 또는 정의 민주주의(righteous-democracy)로 부르고 있다. 그는 슈라(Shur'a)의 개념을 강조하였는데, 슈라의 개념을 일종의 협의제로 보았으며, 정치지도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강조하였다(Guddard 2002, 5-6).

다른 한편으로 이슬람과 민주주의의 양립 가능성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슬람 개혁주의자들이었다. 개혁주의자 알 따흐따위(Rifa' R. al-Tahtawi)는 유럽의 발전과 그 위대성의 비밀이 이성적 학문의 수용 속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스만 터키의 통치하에서 이러한 학문들을 무시한 것이 이슬람 세계의 후진 원인으로 보았다. 그는 중세 이슬람 사상과 서구문명 간 모순규모에 대한 그의 견해와 이슬람과 서구 문명 간 화해의 가능성에 대한 두 문제를 가지고 이슬람 전통유산의 한계 내에서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제도, 생활양식과 이슬람 교리를 화해시키려 하였다(이종택 1995, 28).

그는 정치를 국민이 정부에 준 인력과 재물에 상응하는 훌륭한 경영과 정책과 보호를 통해 사회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공공이익의 비밀을 터득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국민의 법 앞의 평등원리를 주요원리로 삼고 평등은 자연권에 속하므로 정치권력조차도 인간에게서 이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슬람에서도 이러한 평등의 원리가 존재하나 국민들에게 거의 적용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그는 이슬람의 자유, 평등, 정의의 원리와 서구 근대국가에서 제기한 원리들 간에 상호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것이 없다고 보았다.⁴⁾

4) 이 장의 내용은 한국이슬람 학회 32권 3호(2012. 2월)에 실린 줄고 “이슬람의 정치관이 아랍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 중동학회논총> pp. 60-62. 참조

2. 이슬람식 민주주의 체계⁵⁾

아랍사회의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서구식의 절차적 민주주의와는 다른 이슬람식 민주주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슬람식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체계는 알반나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구축하였다.

알 반나는 이슬람 정치체제의 기능과 기본 원리들을 설명하였는데, 오늘날의 이슬람 국가는 입헌정부와 의회와 선거가 무슬림들의 지지를 받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정치와 정치제도에 광범위한 이슬람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슬람은 무정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수립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 알 반나는 이슬람 정부체제를 다음과 같은 꾸란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다(al-Banna 1984, 317-318).

“알라께서 구약을 내리시어 복음과 빛이 그 안에 있음이라. 그리하여 이슬람을 믿는 예언자들은 그것으로 하여 유대인들을 판결하였으며, 율법학자들과 유대학자들도 알라의 성서에 의존함이라 그들은 그에 대한 증언자들이었으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 할 것이며, 하찮은 대가로 나의 말씀을 매도하지 말라했거늘, 알라께서 계시한 것으로 판결치 못한 자 그들은 불신자들이라”(꾸란 5장, 47절)

“알라께서 그들에게 성서를 계시했나니 이로써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 알라께서는 그대를 주시하고 계시나니 믿음을 배반하는 자를 변호하지 말라”(꾸란 4장 105절)

알 반나에게 이러한 구절들은 정교일치는 물론 이슬람 통치의 적법성에 대한 성서적 권위를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근거에서 이슬람 국가건설을 주장한 알 반나는 후세의 다른 원리주의 지도자들처럼 특별한 정부형태를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에 따르면 국민의 종복인 지배자는 알라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무슬림들은 신앙으로 하나가 된 형제들이므로 통일되게 행동해야 하며, 무슬림은 지배자의 행위를 감시할 수 있고 지배자에게 충고할 권리를 가진다. 이슬람 정부는 안보, 법 강제, 교육보급, 복지향상, 윤리강화, 사유재산과 부의 보호, 이슬람 전파의 의무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다양한 원칙들 때문에 이슬람국가들은 입헌의회 민주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국가를 가질 수 있다(David Commins 1994, 135).

알 반나는 영국식 내각제보다는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에 의회에 해당하는 자문회의(al-Shura)를 가미한 정부 형태를 선호했다(Sami' Zubaida 1989, 43-54). 그러나 알반나는 이슬람 국가의 정치구조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꾸란이 기본적인 헌법이다. 둘째, 정부는 자문회의(al-Shura)의 개념으로 운영된다. 셋째, 정부수반은 이슬람의 교의와 국민의 의지로 제한 받는다(Richard P. Mitchell 1969, 246) 꾸란은 알라의 계시서 이므로 이슬람 국가의 헌법이자 최고의 법률로 간주되며, 샤리아는 직 간접적으로 꾸란과 순나에서 나온다. 알 반나는 사회와 국민에 대한 샤리아의 권위를 아래의 꾸란 구절에서 찾고 있다.

“그대에게 계시한 율법으로 그들을 재판하되, 그들을 알라께서 계시한 방에 따라 재판했다면,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말며, 알라께서 그대에게 계시한 것으로부터 그들의 이탈을 경계하라. 만일 그들이 배반한다면, 알라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이 내림을 그대는 알지어늘 실로 많은 무리가 벗어나더라.”(꾸란 5장 52절)

“그들이 그대로 하여금 분쟁을 조정케하고 그대가 조정한 결정에 대하여 만족하고 그에 순응하지 아니할 때, 그들은 결코 믿는 신앙인이라 할 수 없느니라(꾸란 4장 65절)

이러한 구절들은 알반나 이래, 원리주의자들이 신의 주권의 교의를 발전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알 반나에 의하면, 헌법의 통치적 기본은 의회제에 해당하는 슈라(Shura)이다. 그는 슈라의 근거를 다음과 같은 꾸란의 구절

5) 이 장의 내용은 한국이슬람 학회 33집 3호(2013년 2월)에 실린 본인의 줄고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모델과 아랍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리비아와 이라크를 중심으로-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힘.

에서 찾고 있다.

“그들을 인자함으로 대하고 관용을 베풀어주며 일을 다룰 때는 그들에게 의견을 물어 보아라. 만일 결정을 했을 때는 알라께 구원하라(꾸란 3장 159절)”

이 구절은 정부의 통치원리와 권위의 행사로 해석할 수 있다. 알 반나의 정부 성격에 관한 해석은 자연권 철학에 근거하지 않고 최종 입법권자인 알라의 허락위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통치자는 알라와 국민 앞에 책임이 있고 국민의 공복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 위에서 세워진 이슬람 국가만이 효율적인 정부를 가지고 사회의 전통과 일치되며, 전반적인 복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종택 2006, 18-20).

그러면 이러한 이슬람의 정치개념과 통치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추출할 수 있는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모델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이슬람식 민주주의는 첫째, 기본적으로 이슬람식 사고방식과 정치사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이는 꾸란과 하디스에 바탕을 둔 이슬람 정치체계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이슬람식 민주주의는 서구식 민주주의와는 출발점에서는 달라야 한다. 즉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식 민주주의의 개념위에 먼저 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 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절차적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제시된 이슬람의 통치체제에 따르면, 이슬람의 통치체제에서는 입헌군주제든, 협의제 민주제, 공화제 등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을 때 이슬람식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즉 독재체제나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이슬람식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없다.

셋째, 서구의 민주주의체제가 인간 중심이라면 이슬람식 민주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신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인간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점에서 이슬람식 민주주의는 서구의 민주주의와는 확연한 구분을 가진다.⁶⁾

넷째,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가 입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듯이 이슬람식 민주주의도 샤리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슬람성법 샤리아(Sharia)는 꾸란과 하디스에서 파생되어 오늘날 이슬람세계의 법체계를 형성하였다. 이 이슬람 성법은 서구의 법과는 달리 도덕적 종교적 규범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한 서구의 법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도덕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오늘날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대표 기관인 의회는 이슬람 사회의 협의제인 슈라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의회제 민주주의의 특성을 살린 슈라제가 의회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이슬람 국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기본으로서 예배와 자카트의 확립은 기본적인 사회구조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슬람 사회를 규정짓는 특징은 바로 예배와 자카트가 제대로 이행될 때 비로소 이슬람 국가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림-1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모델〉

6)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가 이슬람의 최대의 적이라는 개념을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의 이론가였던 사이드 꾸툼은(Sayyid Qutub)은 이슬람과 서구간 관계는 적대적이고 이러한 적대적 관계는 민주주의에 반대된다고 보았다. 그에게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개념과 인간에 의한 인간통치로 이루어지는 사회로 그는 이러한 현상을 무지시대(jahiliyyah)로 보았고 알라의 주권에 의한 이슬람법에 의해 지배된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보았다(이종택 2008, 17-18).



일곱째, 이슬람식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권력이 분리되어야 한다. 서구 민주주의에서 삼권분리는 독재를 막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듯이 이슬람 국가도 사법부의 독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즉 사법부의 독립은 이슬람 국가헌법의 필수 조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 까디(Qadi, 사법관)는 재판을 담당해야만 하며, 그 집행은 행정부가 맡으며, 까디(Qadi)는 어떤 정책입안에도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손주영 1993, 140)

여덟째, 샤리아에 의하면 국가원수가 국가에 반역하거나, 국법을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을 추궁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그 이유는 샤리아에서 탄핵소추권을 이슬람 정치원리의 하나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al-Mawardi 1966, 17, 58-61).

이슬람법에서는 국가원수나 국민 개개인 사이의 위법에 대한 책임한계에 어떤 차별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원수가 저지른 공무상의 과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당위적인 것이다. 이것은 이슬람국가에서는 슈라제가 시행되어야 하고 따라서 통치자를 위시한 Ummah의 구성원 전체가 ‘옳은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금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니고 있기에 이런 탄핵의 원리가 세워지는 것이다(손주영 1993, 132).

이와 더불어 이슬람식 민주주의에 있어 과연 모든 권력이 칼리파에게 집중되고 국민은 민주적 원칙에 따를 수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권력이 칼리파에게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다면 이는 이슬람식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여한 점은 국가의 권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에 대한 점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이슬람식 민주주의에서는 국가의 권력은 알라와 알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존재가 되는데 이는 곧 ‘국민’으로 볼 수 있다. 통치자는 알라와 국민을 대신하여 통치를 행하는 것이지 모든 권력이 통치자에게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까디였던(qādi) 였던 셰이크 압둘 라지끄 (Ali Abd al-Rāziq)는 그가 출판한 이슬람과 통치원리(al-Islām wa Usūl al-ḥukum)에서 무함마드는 순수히 종교전파를 위해 파견된 신의 사자였다고 주장하였다. 무함마드는 제왕과 같은 언행과 모습은 결코 보인바 없으며, 종교적인 것 이외에 국가수립을 위한 어떤 소명과도 무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슬람은 종교적 통일(Wahida Diniyya)를 위해 계시 되었고 예언자는그 통일을 위해 그의 검과 혀를 썼으며 그가 죽기전 무함마드는 실제로 이를 성취, 완성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셰이크 압둘 라지끄는 “누구도 al-Risālah(이슬람의 메시지, 즉 꾸란)의 지도권과 왕의 지도권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무함마드는 알라의 계시인 이 ‘알 리살라(al-Risālah)’를 위해 권력과 지도권을 한 형태를 필요로 하였지만 그것은 그의 신도들 위례 행사할 권세나 왕의 지도권 같은 유형의 것은 아니었다. 믿는자들에게 대한 예언자의 통치(Wilāyah)는 속세의 통치(Hukm)의 어떤 형태와도 무관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7) 그는 칼리파제는 샤리아 내에 규정된 무슬림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셰이크 압둘 라지끄는 꾸란과 하디스를 통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꾸란의 내용을 보자

“내가 너를 그들 일의 대리자로 보낸 것이 아니다.(꾸란 42:48)”, “너의 임무는 단지 (게시를) 전달하는 것 뿐 이니라”(꾸란 17:54) “ 내가 너를 파견한 것은 복음 선교와 경고자로서이다.”(꾸란 25:56) “그러니 말하라, 내가 말씀의 전달자(Madhkūrun)라는 것을(꾸란 88:21)

위의 문구를 통하여 무함마드는 세속의 일을 관장하는 움마의 대리인으로 보내어진 것이 아니고, 그의 임무도 단지 계시를 전달하기 위한 것임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무함마드의 위치는 그의 위치는 선교자(Mubashir), 경고자(nadhir) 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하디스를 통하여 제시된 내용이다.

“진정하시오 나는 왕이아니요, Jabbāra(압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메카의 Al-qadid(포륙) 를 먹는 꾸라이쉬 부족의 한 여인의 아들일 뿐입니다.“⁸⁾

이를 통하여 무함마드는 세속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압둘 라지끄는 그 스스로의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전 세계가 하나의 종교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전세계가 하나의 정부의 통치하에 놓인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류의 종교적 통일은 가능하나 정치적 통일은 불가능하며, 그것은 인간본성의 범주 밖의 일이고 알라의 뜻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현재 ISIS 등 무장단체들이 추구하는 칼리파 국가가 반드시 이슬람의 이상적인 정체체제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슬람에서 제시한 형태가 완벽한 ‘이슬람식 민주주의 모델’이 되기는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이슬람 사회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기본 성향을 제시하는데는 유용할 도구가 될 것으로 본다.

IV. 결론-이슬람식 민주주의의 적용방안

결국 혼란이 가중되는 아랍사회의 탈출구는 장기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서구식 민주주의의 정착을 아랍 세계 및 이슬람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슬람의 사고에 맞는, 즉 꾸란과 하디스를 기반으로 하여 정치체제를 완성하는 ‘이슬람식 민주주의’가 아랍사회에 더 적합할 수 있을 것이며, 이슬람의 사상체제를 통한 민주국가가 되는 것이 무슬림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아랍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무장투쟁과 세력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세계는 이슬람이라는 정체성을 절대 벗어버리지 않고 있다. 이는 아랍사회는 결국 이슬람의 틀 속에서 사회발전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랍사회가 이슬람식 민주주의를 채택하기에는 수많은 현실적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이슬람식 민주주의를 적용할 보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며, 연구자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의 선제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7) Ali Abd al-Rāziq, Al-Islām wa Usūl al-ḥukum, Beirut, 1966, pp. 82-83

8) Hazim Abd al-Mit'al As-sa'idiy, al-Islam wa al-khilafah fil al-'asr al-Hadith, al-Qahira, 1984, p.60

첫째, 샤리아에 따른 정치법을 만들어야 한다. 즉 이슬람식 민주주의라는 틀을 위하여 기존의 독재적 요소 및 권력 독점에 의한 꾸란 및 샤리아의 해석을 규제해야만 한다.

둘째, 정당법에서도 기본적으로 샤리아와 꾸란의 정치이념에 따른 정당법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슬람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가 성립되어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정권욕에 대한 규제가 꾸란에 의해서 정립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슬람식 민주주의가 성립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슬람식 민주주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주권을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기존의 독재 정권들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부가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샤리아에 바탕을 둔 경제관을 중심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충분히 부를 공유할 수 있는 경제법을 제정하여 이를 실제로 적용해서 국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아랍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샤리아에 따른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표방해야만 하며, 이는 서구에서 시작된 근대민주주의의 기초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형식적인 요소로서의 서구 민주주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절차적 민주주의, 즉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⁹⁾

다섯째, 아랍 각국가들은 무력사용을 배제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이슬람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무력으로 억압하는 정책은 결국 그 정부를 무너뜨리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슬람 무장단체를 해체하고 이들을 포용하기 정책을 발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ISIS, 알카에다, 무자헤딘 등 무장단체들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정치적인 배경 ‘서구 제국주의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 사회를 비롯한 비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권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9) 이성수, 한국중동학회논총 33-3 이슬람식 민주주의 모델과 아랍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리비아와 이라크를 중심으로- pp. 126-127

참고문헌

- 손주영, 1993, 「이슬람국가의 정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3권.
- 손주영, 1994, 「무카디마에 나타난 이븐 칼둔의 정치사상」,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4권.
- 손주영, 2003 「중세 이슬람 정치사상과 칼리파제 중세 이슬람 정치사상과 칼리파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3권 1호
- 이성수, 이슬람의 정치관이 아랍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2권 제3호.
- 이성수.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모델과 아랍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33권 3호
- 이종택(2006). “하산 알 반나(Hasan al-Banna)의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26-2호
- 이종택(2008). “근 현대 아랍 이슬람 정치사상에 비친 이슬람과 민주주의”, 『중동문제연구』, 제 7권,
- 이희수, 1995, 「마우두디의 사상과 20세기 파키스탄의 이슬람화 운동」,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5권.
- 이희수, 1998, 「이슬람 교리와 종파」, 《중동연구》 제17권.
- 정상률, 2007, 「이라크 종교엘리트와 부족주의 관계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7-1호.
- 최영철, 아랍의 봄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개혁, 2013년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자료집 “세계와 한국정치 : 영향과 공헌”
- 최장집(201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홍순남, 1995,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과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5권.
- Abd, Kariim. 2002, *al-Dawlat al-Majuuna wa al-Unf al-Thaqaafii*, Beirut: al-Furaat li Nashr wa al-Tawjii.
- Ahmed, Ishtiaq The concept of an Islamic State: an analysis of the ideological controversy in Pakistan, Stockholm, 1985,
- al-'Abdin, A. Z., 1989, “The Political Thought of Hasan al-Banna,” *Islamic Studies*, Vol.29:3.
- Al-Banna(1984)., *Majmuu'ah Rasaa'il al shahiid Hasan al-Banna*, Beiirut, al Mu'assasah al-Islamiyyah, 4th ed.
- al-Banna, 1984, *Majmuu'ah Rasaa'il al shahiid Hasan al-Banna*, Beiirut, al Mu'assasah al-Islamiyyah, 4th ed.
- Dawisha, Adeel., *The Second Arab Awakening.*, W.W.Norton & Company(New York&London)2013.
- Freedman, Robett O(ed.). 1991, *The Intifada: Its Impact on Israel, the Arab World and the Superpower*, Miami: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Gonzalez, Nathan., 2009. *The Sunni-Shia Conflict and the Iraq War: Understanding Sectarian Violence in the Middle East*.
- Guddard, Hugh. 2002, *Islam and Democracy*, The Political Quarterly Publishing Co. Ltd.
- Larry Diamond, Mac F. Plattner, and Daniel Brumberg., 2002, *Islam and Democracy in the Middle East*.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 Hopkins University.
- Muḥammad Maḥfūz. 1999, *al-Fikr al-Islāmiyy al-Mu'āṣr wa Rihānāt al- Mustaqbal*, Bayrūt, al-Markaj al-Thaqāfi.
- Nada, Youssef., *Muslim Brotherhood.*, Published by Metro Publisng(London)., 2012
- Nasr, Vali., 2006. *The Shia Revival: How Conflicts within Islam Will Shape the Future*: W. W. Norton.
- Prashad, Vijay., *Arab Spring, Libyan Winter.*, 2012. AK Press(Edinburgh, Oakland, Baltimore).
- Wittes, Tamara Cofman. 2008, “Islamist Parties and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Vol. 19, No. 3.

IS와 미디어 전략

김 수 완*

I. 들어가는 말

칼리프 체제의 부활을 내건 수니파 무슬림 무장 세력은 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ISIS), 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ISIL)에서 스스로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이하 IS)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들은 영토 점령을 통해 세력을 급속히 확장하며 중동지역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급성장의 배경에는 잘 정비된 조직과 무기를 바탕으로 하는 파괴적 군사력, 원유밀매와 유물 밀거래 등을 통한 풍부한 자금력 이외에 치밀하게 계획, 연출된 미디어를 통한 홍보력을 들 수 있다. 중동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로 급부상한 IS는 칼리파제 정치경제체제 국가 수립을 선언하고, 국가이념으로 ‘반세속 이슬람주의’, ‘반서구와 반기독교’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포감’, ‘풍부한 자금’,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급속도로 세력을 확대시키고 있다(정상률 2014).

국가체제와 유사한 조직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이외에 IS가 단순한 무장단체나 여타 테러집단과 차별화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미디어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이다.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뉴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자원병들을 모집하는 등 효과적인 프로파간다를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다. 트위터를 통해 조직의 새로운 캠페인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IS의 프로파간다가 전달 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지지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며(윤민우 2014) 자신들의 군사적 활동은 물론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홍보물도 뉴미디어를 통해 전파하고 있다.

최근 미 중앙정보국장(CIA) 존 브레넌이 강조한 대로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미디어기술의 발달은 최신 미디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극단주의자들과의 전쟁을 점점 더 어렵게 하며 테러위협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극단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 확산저지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을 어렵게 하는 것은 단지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전술이며 현대커뮤니케이션의 힘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예가 바로 IS이다. 실질적으로 최근 수개월 동안 약 2천8백여 회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IS의 건재를 가능케 한 배경에 바로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의 역할이 있었음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IS의 프로파간다 배포, 지원자 모집뿐 아니라 테러행위에 전세계의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 동조하게 만드는 데 뉴미디어테크놀로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IS의 차별화된 미디어 전략과 그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미디어와 홍보마케팅

* 한국외국어대학교

현대인은 다양한 미디어에 포위되어 살아간다. 미디어의 접촉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항시적이며 미디어관련활동이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현대인과 미디어의 상호 의존성은 높다. 사람과 미디어 간의 상호 의존성은 더욱 깊어지고 글로벌 사회개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체감되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어느 곳, 어느 누구와도 무엇에서든 동시 공존감(Co-presence)을 느끼는 시대이다(김미경외 2012).

IS출현이전의 금세기의 최악의 테러집단으로 여겨지는 9·11 테러 주범인 알카에다는 자신들의 당위성과 세력규합 그리고 조직원간 소통을 위해 이미 인터넷상의 폐쇄 이용자 그룹과 이메일 등을 주로 활용한 것도 드러났고 매 범행마다 그 사건의 당위성을 연설 및 영상제작을 통해 홍보해왔다.

IS는 미디어를 활용한 노이즈 마케팅기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호전적이고 투쟁적이며 극히 잔혹한 새로운 테러집단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일반대중들의 혹독한 비난을 받지만 역설적으로

일반대중과 잠재적 지지자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현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젊은 층 등 잠재적 아군에게 접근하여 IS를 서방세계에 투쟁하는 의로운 전사집단으로 세뇌시키고 나아가 IS에 가입하게 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의도적인 미디어노출을 통한 고도의 심리마케팅전략을 통해 새로운 지지세력을 꾸준히 규합하고 있는 IS는 인터넷상에서 crowdfunding 전략을 통해 지지자들로부터 지원금을 모금 하고 있다.

III. 전방위적 미디어활용

IS는 기존의 대표적 극단테러조직인 알카에다와도 극히 차별화되는 미디어 홍보전략을 펼치고 있다. 알카에다가 주로 미국을 겨냥하여 아랍어로 메시지를 낭독, 녹화한 것을 배포하는 기초적인 수준의 미디어활용에 그친 반면 IS는 미디어자체의 성격과 과급효과를 잘 이해하여 목표에 맞는 상당히 세련된 미디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테러조직과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IS의 미디어전략은 ‘전세계’,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로 소통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했던 구시대적인 알카에다와 차별화 된 IS의 세련되고 수준 높은 미디어전략은 ‘지하드 3.0’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정도다(인남식 2015). 그들은 미디어를 통해 IS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변화의 대리인, 진정한 믿음의 사도, 외세로부터 고통받고 억압받은 자들을 위한 보복자들로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IS의 미디어활용수단은 다양하다. 자체 온라인 홈페이지는 물론, 온라인 잡지인 다비크(DABIQ),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텀블러(tumblr),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등의 미디어를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클린트 와트 소장에 따르면 IS가 유포한 미디어자료는 대외적으로는 그들의 활약상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직원들 스스로 역사적인 과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과 국가에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외국인 전사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자와의 접촉방법을 알려주고 IS 조직원이 되었을 때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지 사전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의 수단으로 이용한다(Erik Qualman 2013).

IS의 미디어전략이 주목 받는 것은 참수동영상 공개 같은 범행의 잔혹함보다 그러한 홍보전략을 위한 치밀하게 계획되고 수립된 미디어전략을 새로운 레벨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세련되고 전문적인 미디어 세력인 알이티삼 미디어 프로덕션(Al-Itisam Establishment for Media Production)을 갖추고 이 부서에서 집중화된

선전, 선동 전용미디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동을 넘어 세계각국의 일반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7개 언어로 홍보선동활동센터인 알하야트 미디어센터(Al-Hayat Media Center)까지 운영하고 있다. 알아즈나드 미디어(Al-Ajnad Media)는 꾸란 암송과 지하드 군가 등을 제공하는 등 주로 현지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전용미디어팀의 전략은 자신들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잔혹함의 홍보에 그치지 않는다. 메시지 수용자층을 구분하여 메시지 내용의 종류와 강약 등을 다양하게 유출하는데 적과 지지자의 흑백관계설정, 현지 주민과 외부세계의 잠재적 지지자로 구분된 표적대상별 메시지 차별화 등 고도의 언론심리전술까지 사용한다.

IS의 미디어 전략에서 더 흥미로운 점은 SNS 같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끊임없이 적들을 위협하는 메시지와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여타 소셜미디어를 비슷한 접근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전용 앱까지 개발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달된 메시지는 앱 가입자의 소셜 계정을 통해 재확산하게 된다. 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의 일상에 대한 사진과 소식을 영웅적으로 미화하며 의로운 전사로 이미지메이킹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각국의 잠재관심자 및 지지자들에게 친근한 동질감을 유발시켜 자연스럽게 소통한다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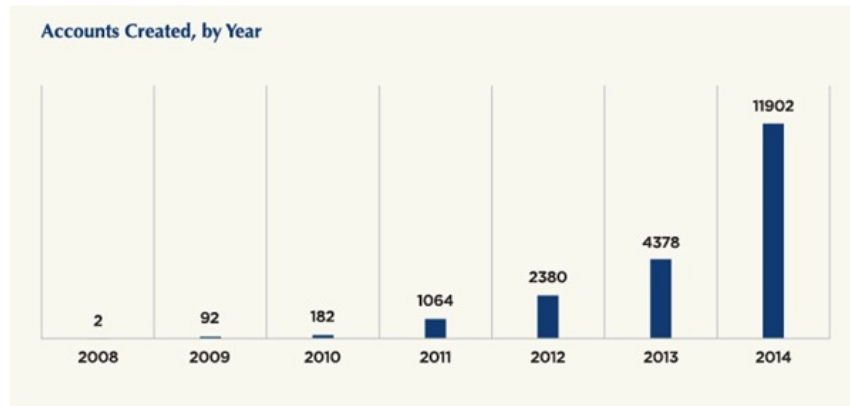
소셜미디어는 그 본질상 글로벌하다. 소셜미디어의 가장 큰 장점인 글로벌 연결성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만든다. 또한 메시지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될 가능성도 적다(김미경 2012).

IS는 전세계 지하디스트의 충원 경로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IS의 이슬람 교리, 투쟁전술 및 지하드 그룹 가입 등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접속자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IS에 관해 우호적인 이미지를 처음으로 접하고 문답이 오고 가면서 점차 IS 이념에 경도되고 궁극적으로는 지하디스트로 가입하는 경로에 들어서게 된다. 이후 질의 응답 오픈 서비스인 Ask.fm 사이트에서 IS나 이슬람, 또는 이라크 등의 문항검색을 통해 질문을 올리면, IS 방계 미디어 조직원들이 각지에서 접속하여 친절하게 문답을 주고 받고, 접속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즉각 슈어스팟(Surespot), 키크(Kik) 및 스카이프(Skype) 등 모바일 메신저 앱을 통해 일대일 접촉에 들어간다(인남식 2014).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계정을 수시로 바꿔가며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IS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메시지의 경우 소셜미디어의 ‘서비스 약관’을 교묘하게 이용해 스팸으로 신고하여 삭제하거나 비난하는 댓글을 게재한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는 포로 처형 같은 잔혹한 동영상상을 공개해 상대방을 위협하고 서구 출신 지하드 자원자를 모집하는 통로로 활용한다. 음악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사운드클라우드에는 지하드 음악 공유를, 문자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저스트 페이스트는 주요 전투 성과와 이슬람 원리주의 설교문 게재를 목적으로 활용된다.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만6천여 트위터계정이 IS지지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J.M. Berger & Jonathon Mrogan 2015). 그 중 총 2만 명의 IS지지자들의 트위터 사용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S지지자들의 단일계정당 팔로워수는 평균 1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 소셜미디어 계정의 스

팸 혹은 보트(bot: 특정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총 메시지의 20%가 자동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시지가 한꺼번에 일괄 확산되기 때문에 IS 홍보 및 영향력 확산에 매우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다.



<출처: Brookings 연구소 2015>

또한 약 5천에서 2백개의 트위터계정이 하루 평균 약50회의 트윗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소수 트위터들의 활동이 IS의 미디어전략 성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S는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필연적인 승리의 메시지와 함께 IS 조직원들을 절대 패배하지 않는 전사로 각인시킨다. 이렇게 가공된 이미지는 새로운 조직원을 끌어들이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며 특히 유혈이 난자한 참수 장면이나 산채로 화형시키는 장면 등은 적들에게 상당한 위협의 메시지로 전달된다. 그러나 스니커즈 초코바를 먹으며 고양이를 특히 좋아했던 사도 무함마드의 친구 아부 후라이라를 이야기하며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IS 조직원들의 이미지를 통해 적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위협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따듯하고 친근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 의도하기도 한다.

IS 미디어 전략이 급성장한 데에는 외국에서 자원해서 몰려든 외국인전사들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모국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IS의 프로파간다를 확산, 유포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6월 IS가 유포한 ‘There is No Life Without Jihad’라는 제목의 13분짜리 영어 홍보용 동영상에는 스스로를 영국인과 호주인이라고 밝힌 조직원들이 등장해 현재 중동의 국경은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서구열강에 의해 인위적으로 책정한것이므로 받아들이 수 없으며 세계 각지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IS에 가담하고 있으니 승리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무자트위트(Mujatweets)’는 IS가 제작한 에피소드별 동영상시리즈물이다. 한 에피소드에 등장한 독일 출신 IS 대원은 칼리파국가에서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지에 대해 말하며, 다양한 전세계 사람들이 IS에 합류하여 형제애를 나누고 있다고 강조한다. 아이들에게 사탕과 아이스크림을 나누어주고 ‘IS!’를 선창하면 아이들이 신나서 함께 따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상당한 동료를 병원으로 찾아가 따듯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친근한 이미지 이면에는 IS의 프로파간다를 시청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심어주고 그들의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IS는 2015년 3월 10일 이스라엘 출신의 19세 조직원을 ‘스파이’라며 소년 조직원이 총살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레바논 카네기중동센터의 달리아 게념야즈벡은 AFP에서 “IS는 전투에서 질 때마다 잔인한 동영상을 공개한다. 프로파간다로 패배를 보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라크 님루드와 하트라의 고대 유적을 파괴한 것

역시 우상 파괴로 ‘칼리프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최근 이라크군과 시아파 민병대의 티그리트 탈환시도에 IS는 티그리트 근처 하위자에서 시아민병대원들을 집단살해 해 거꾸로 매단 동영상은 유포했다. 이러한 동영상은 수니파의 감정을 자극하여 전쟁양상을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파간 종교분쟁으로 유도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술로 파악된다.

IS의 홍보심리전술은 온라인 게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Gran Theft Auto V 와 같은 유명한 온라인 게임을 통해 IS조직원들이 IS깃발을 들고 등장하는 모습을 담아 무의식적 노출에 의한 세뇌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IV. 칼리프시대의 복원 DABIQ

IS의 또 다른 미디어도구로 ‘다비크(DABIQ)’라는 온라인 잡지를 들 수 있다. 2014년 7월5일 1권 ‘The Return of Khilafah’ 발간 후 영어와 일부 유럽어로 발간되고 있는 이 인터넷 저널은 칼리파 국가 설립의 목적과 정당성, 정치적 권위를 설명하고 지하디스트들의 활동상과 전세계 잠재 지하디스트들을 선동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IS의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다비크(아랍명: دابق)는 시리아의 알레포 북동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하디스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콘스탄티노플(현재 이스탄불)을 점령하려는 이슬람 군대가 로마 군대와 마지막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두는 장소로 지목된 곳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하디스에 등장하는 이 예언을 보고 IS가 다비크를 외국의 적과 싸우기 위한 상징적 장소로 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실제로 IS는 DABIQ 1호와 3호에서 이러한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김수완 2015).

2012년 11월 시리아에서 IS에 납치된 영국인 사진기자 존 캔틀리(44)는 2015년 2월에 발간된 최신호 다비크 7호에 포로협상을 거부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영국정부와 미디어를 강하게 비난하는 글을 실었다.

이미 참수된 미국 기자 제임스 폴리와 함께 억류되었던 존 캔틀리는 아들의 석방을 위해 애쓰다 최근 사망한 81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영국정부에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억류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에게서 받지 못한 존중과 친절함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인질석방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영국정부와 자극적인 사건보도에 열을 올리는 미디어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다비크는 IS의 잠재적 전사들과 미래 칼리파 국가 주민들에게 보내는 포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단순한 프로파간다를 넘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칼리파 국가 비전에 대한 표면적 발화인 것이다. 다비크가 제시하고 있는 정치, 군사, 종교적 논의를 넘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비크를 통해 IS의 향후 글로벌 전략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V. 나가는 말

IS는 여러 다른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끊임없이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한다. 그들은 세부 목표에 맞게 동영상이나 메시지를 제작하는데 외국인들에게는 세련되고 논리정연한, 현지 무슬림들에게는 잔인하고 위협적인 콘텐츠를 유포한다. 전세계 온라인 매체는 검열을 통해 IS의 온라인 계정을 차단하고 동영상을 금지시키지만 IS의

온라인 잡지 DABIQ와 관련기사, 메시지, 동영상 등은 보란 듯이 자유롭게 온라인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IS는 목표대상을 파악하고 유인, 포섭하는데 상당히 수준 높은 미디어전략을 이용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텀블러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포된 ‘공식적’이고 ‘대중적’인 메시지를 전세계 지지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IS는 즉각성, 무제한성, 개인성에 기반한 웹 콘텐츠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며, 이 콘텐츠는 누구나 호감을 가질만한 그래픽과 음성으로 구성되어 현재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누구든 어디서나 테러리즘의 프로파간다에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극단주의 테러단체는 그들의 목표달성을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 중 미디어를 포함한 테크놀로지를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단체가 IS 이다. 현재까지 전문가 수준의 미디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IS의 미디어 활용전략은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S의 테러리즘은 더 강력한 이념과 정밀한 논리를 갖춘 운동으로 변화하고 있다. 때론 폭력적인 이데올로기를 통해 때론 감성적인 심리전을 이용하여 때론 종교적 기제를 사용하여 ‘미디어’라는 가장 효과적이고 파괴력이 큰 도구를 그 어느 테러단체보다 잘 활용하고 있다. 잔혹한 테러집단인 IS는 지금까지의 다른 테러무장세력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고도로 발전된 미디어세력운영과 미디어전략을 통해 잔학한 폭력의 과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잔학한 폭력에 동참하도록 하는 세련된 고도의 심리전술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된 미디어홍보전략과 기술이 온라인을 통해 테러집단에 의해 활용되므로 국경을 무방비로 침공당하며 이를 방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미 국무부장관 마틴 텀프시는 국회연설에서 IS의 격퇴는 군사적으로뿐 아니라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IS의 전략을 무산시킬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극단주의자들의 전략적 미디어활용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소셜미디어를 모니터링하는 소극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주요국가정부와 미디어 업체, 보안기관과의 소통강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역 프로파간다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홍보수단과 소셜네트워킹을 위한 온라인 매체로써의 개념적 인식을 뛰어넘어 제2의 전쟁터로서의 미디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IS의 미디어공격전략에 대처하는 침착하고 냉정한 수준 높은 언론의 보도와 개인미디어 사용자들의 분별력을 돕는 정부차원의 적극적 홍보도 절실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김미경, 김유정, 김정기, 김해원, 민병현. 소셜 미디어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 김수완. “IS(이슬람국가) 보도 프레임 연구”, 『중동연구』, 제33권 3호, 2015.
- 박현도. “IS에 대한 무슬림들의 반응: 126명 지식인의 공개 반박 서한”,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2014.
- 인남식. ‘공공의 적 IS 이슬람이 서구를 압도했던 중세로의 회귀 꿈꾼다’, 조선일보, 2015년 2월 28일.
- 인남식. ‘이라크 ‘이슬람 국가(IS, Islamic State)’ 등장의 함의와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4
- 윤민우. “이슬람 국가에 대한 이해와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동향”, 한반도와 국제정치, 한국국제정치학회, 2014.
- 정상률. “DABIQ에 나타난 IS의 칼리파제 정치사상연구”, 한반도와 국제정치, 한국국제정치학회, 2014.
- Christoph Reuter, Raniah Salloum and Samiha Shafy. ‘Digital Jihad: Inside Islamic State’s Savvy PR War’, SPIEGEL ONLINE INTERNATIONAL, October 8, 2014.
- Erik Qualman. Socialnomics, New Jersey, Joh Wiley & Sons, Inc., 2013.
- Christoph Reuter, Raniah Salloum and Samiha Shafy. ‘Digital Jihad: Inside Islamic State’s Savvy PR War’, SPIEGEL ONLINE INTERNATIONAL, October 8, 2014.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world/the-professional-pr-strategies-of-isis-in-syria-and-iraq-a-995611.html>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7/2015022702397.html?news_Head1_01
- Clint Watt. ‘ISIS Runs a Dark Media Campaign on Social Media’, NPR, September 6, 2014. <http://www.npr.org/2014/09/06/346299142/isis-runs-a-dark-media-campaign-on-social-media>
- <http://rt.com/usa/240597-cia-director-brennan-isis/>
- J.M. Berger and Jonathon Mrogan. ‘The ISIS Twitter census: Defining and describing the population of ISIS supporters on Twitter, March, 2015. <http://www.brookings.edu/research/papers/2015/03/isis-twitter-census-berger-morgan>
- Olivia Becker. ‘ISIS Has a Really Slick and Sophisticated Media Department’, VICE NEWS, July 13, 2014. <https://news.vice.com/article/isis-has-a-really-slick-and-sophisticated-media-department>.
- Cahal Milmo. ‘ISIS Jihadists Using World Cup and Premier League Hashtags to Promote Extremist Propaganda on Twitter’, Independent, June 23, 2014,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middle-east/irq-crisis-exclusive-isis-jihadists-using-wrold-cup-and-premier-league-hashtags-to-promote-extremist-propaganda-on-twitter-9555167.html>
- <http://edition.cnn.com/videos/business/2014/06/24/wbt-burke-isis-merchandise-for-sale-online.cnn> ISIS merchandise
- https://www.youtube.com/watch?v=6k_ecaCfC1c

이스라엘 변수와 냉전 초기 중동 다자안보체제의 쇠퇴

김 강 석*

I. 서론

본 논문의 주요 목표는 냉전 초기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추진한 다자안보체제로서 중동 집단방위체제 구상의 실패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왜 이스라엘은 동맹국인 미국이 대소봉쇄를 위해 구축하려고 했던 다자주의적 안보체제에 반발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주목하면서 역사적 사실 규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변수가 중동 집단방위체제를 쇠퇴시키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국의 냉전 정책을 반대했다는 사실은 중동 냉전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의 제고의 측면에서 함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아랍 국가인 나세르 정권 하의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다자안보체제에 반발했다는 측면에서 중동 지역의 행위자들이 냉전의 진영론에 크게 좌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미국의 냉전 정책을 와해시키는 변수로 작용했는가에 관한 역사적 규명을 일차적 연구 목표로 수행하면서도 이를 통해 중동 냉전의 영향력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특히 이스라엘의 다자안보체제에 대한 반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이스라엘 의회 등에서 나타났던 미국의 정책 변화를 위한 노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로비라는 분석적 개념을 도입하고, 냉전 초기 체계적인 이스라엘 로비 단체가 미국 내에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친이스라엘 상원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¹⁾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이스라엘의 다자안보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하면서 벤구리온 수상이 비밀리에 추진하려고 한 독자적 형태의 안보기구가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수의 적대적 아랍 국가들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고립감은 소위 주변부 독트린(Periphery Doctrine)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비아랍 국가를 중심으로 한 방위체제의 모색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독자적 행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중동 다자안보체제 구상을 이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방법론의 관점에서는 역사학과 정치학의 학제적 관점에서 역사적 사례 연구를 이행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영향력과 중동 다자안보체제의 쇠퇴라는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집중하였다.²⁾

* 한국외국어대학교

1) See, John Mearsheimer and Stephen Walt, *Israel Lobby and U.S. Foreign Polic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7).

2) 인과관계 도출을 위한 역사 연구 방법으로서 과정추적(process-tracing)에 관해서는 다음을 볼 것. Derek Beach and Rasmus Brun Pedersen, *Process-Tracing Methods: Foundations and Guidelin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3).

II. 대소봉쇄를 위한 ‘공평한 우위’ 전략의 한계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아랍 국가를 냉전 대결 구도하에서 자유 진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트루만 행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편향적 태도에서 벗어나 소위 공평한 우위(evenhandedness)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³⁾ 여기에서 미국의 아랍-이스라엘 정책에 있어서 공평한 우위(evenhandedness, impartiality)라는 정책기조는 시온주의에 적대적인 아랍 국가들을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해 트루먼 행정부가 추진해 온 소위 선호정책(favouritism)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트루만은 시온주의를 지지한 대통령으로서 미국 행정부 내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승인을 적극 지지한 인물로 볼 수 있다.⁴⁾ 이러한 변화된 아이젠하워의 대 이스라엘 정책은 NSC 155/1에 반영되어 나타났다.⁵⁾

이스라엘은 잠재적 희생자와 잠재적 공격자를 차별화하지 않는 미국의 공평한 우위 전략에 불만을 표출하였다.⁶⁾ 특히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 사이에 미국의 우호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를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양산함으로써 아랍의 대 이스라엘 강경 정책이 양산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였다.⁷⁾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워싱턴의 공평한 우위 전략 채택은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국 간의 필연적인 갈등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아랍 세계에서의 입지 약화를 구실로 이스라엘의 안보 보장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⁸⁾ 결국 글로벌 냉전적 시각에서 추진된 아이젠하워 행정부 1기의 공평한 우위 전략은 미국-이스라엘 동맹국 관계의 갈등을 초래하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 하에서 추진된 공평한 우위 전략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웠다. 미국 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해 공평한 우위 정책의 기조가 점진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구체적인 사례로서 공평한 우위 전략의 쇠퇴 과정은 이스라엘의 대 아랍 강경 보복정책 억지 실패 및 이스라엘에 대한 간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1. 이스라엘의 대 아랍 강경 보복정책 억지 실패

이스라엘의 안보 불안 증가는 ‘보복정책(retaliation policy)’이라는 대 아랍 강경 정책의 채택을 가능하게 하였다. 보복정책은 아랍 무장단체들의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침투(infiltration)에 대한 대응 논리로부터 구체화되었다. 즉 아랍 국가가 침투에 연루되었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행위를 휴전 협정의 위반으로 해석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보복할 수 있는 도덕적·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⁹⁾

이러한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아랍 정부가 전적으로 침투를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제어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일례로서 요르단 국경 지대의 침투의 경우 요르단 정부와 군이 저

3)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공평한 우위 전략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Issac Alteras, 1993, *Eisenhower and Israel: U.S.-Israeli relations, 1953-1960*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3), pp. 82-125.

4) Fawaz Gerges,

5) NSC 155/1, United States Objectives and Policies with Respect to the Near East, 14 July 1953, *FRUS 1952-54, Vol. 9. Part 1*, p. 400. on July 11, 1953,

6) Nadav Safran, *Israel: The Embattled Ally*, pp. 348-49.

7) Isaac Alteras, *Eisenhower and Israel: U.S.-Israeli relations, 1953-1960*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3). p. 40.

8) Ibid., p. 115.

9) Zaki Shalom, *David Ben-Gurion, the State of Israel and the Arab World, 1949-1957* (Brighton, Portland: Sussex Academic Press, 2002), p. 119.

지하려는 의도만 있었다면 충분히 억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은 무장 단체들의 침투를 제한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고 본 근거는 첫째, 문제의 진원지인 망명지에 집중할 수 있는 지리적 근접성 둘째, 무장 단체들의 정보에 관하여 축적할 수 있는 아랍 국가들의 정보력 셋째, 아랍 사회에 만연한 침투에 대한 동정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억제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¹⁰⁾

보복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1955년 2월 28일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이었다.¹¹⁾ 벤 구리온은 가자 지구 공습의 이유를 라본 사건(Lavon affair)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 이틀 전에 체결된 바그다드 조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만이 작용한 탓이었다. 1948년 이후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최초의 직접적인 충돌이었던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군인 36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29명의 군인과 2명의 민간인이 부상당함과 더불어 이집트 내 군사 기반 시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¹²⁾ 가자 지구 공습 이후 나세르는 안보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미국은 소련 봉쇄라는 글로벌 수준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 아랍 강경 정책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아랍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반 이스라엘 정서를 격화시킴으로써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조시킬 우려가 있었다. 미국에 대한 반감 증가는 중동 지역에서 소련의 침투 강화로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강경 정책을 미리 제어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보복과 예방전쟁의 논리를 앞세운 이스라엘의 강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1953년 10월 14-15일 발생한 이스라엘의 키브야(Kibya) 공습에 대하여 미국은 경제 제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행동을 억제하려 했다. 그러나 이브스(Ives), 자비트(Javits)와 같은 친 이스라엘 정치인들, 그리고 프로스카우어(Proskauer)¹³⁾와 같은 인사들의 반대로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수에즈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행동을 제어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미국 의회 내 친이스라엘 인사들을 필두로 한 각계 인사들의 반발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이집트에 대한 공세적 자세를 차단하기 어려웠고, 이스라엘 군대를 강제로 퇴각시킬 수도 없었다. 탈레스는 1957년 2월 21일 미국 내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회동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찬성해 줄 것을 설득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의 전략 변화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였다.¹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에즈 전쟁 발발 시점이 미국 대선 직전이었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미국의 압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결국 미국은 이스라엘의 국가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이스라엘의 아랍에 대한 강경 정책을 변화시키기 어려웠다. 이러한 비대칭 동맹 관계에서 미국이 피후견국인 이스라엘의 국가자율성을 제약하지 못한 것은 중동 냉전사에서 수 차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존 루이스 개디스(John Lewis Gaddis)가 지적한 것처럼 중동의 동맹 관계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드는 현상(tail wagging the dog)”을 목도하게 된다.¹⁵⁾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국가 자율성을 제약할 수 없었고, 이해관계의 차

10) Zaki Shalom, 2002, p. 123.

11) 나세르와 가자 지구와는 인연이 있다. 1952년 이집트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도 바로 가자 지구였던 것이다. 팔레스타인 전쟁 당시 나세르 대령이 인솔하는 부대가 포위당했던 팔루자는 가자 지구와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나세르는 팔루자 전투에서 이집트 왕정에 대한 혁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세르는 혁명의 철학에서 팔루자 전투를 회상하면서 전장에 있을 때 갑자기 생각은 상상의 나라를 펴고 제2의 팔루자(a second Faluja)인 이집트에 가 있었다면서 “팔루자에서 우리에게 닥친 것이 거기(이집트)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회상하였다. Gamal Abdul Nasser, *The Philosophy of the Revolution*. Cairo:U.A.R.,n.d., Dorothy Thompson(tr.). P. 14.

12) Muhammad Abd el-Wahab Sayed-Ahmed, *Nasser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52-1956* (LAAM: London, 1989), pp. 107-108.

13) 조셉 프로스카우어(Joseph Proskauer)는 미국 유대인 로비단체를 이끄는 인물이었다.

14) Issac Alteras., Ibid., p. 271.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미국의 냉전 정책에 반발하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2. 이스라엘에 대한 간접적 군사 지원

공평한 우위 전략의 변화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영향은 미국의 이집트-이스라엘 갈등에 대한 개입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출범 이후 공평한 우위에 기초하여 아랍과 이스라엘 어느 일방에 군사적 지원을 자제함으로써 세력균형을 깨지 않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성을 담보로 한 접근은 점차 이스라엘 편향적인 정책으로 변모되어 갔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는 로비스트들의 정치적 압박에 직면하였다. 로비스트들의 정치적 요구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강화되었는데, 특히 미국 의회 내에서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의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미국 내 시온주의 지도자인 압바 힐렐 실버(Abba Hillel Silver) 간의 회동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유력 인사들이 미국의 대 이스라엘 정책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추진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¹⁶⁾ 한편, 미국은 소련과의 군사 경쟁을 염려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이스라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맹국인 프랑스와 캐나다를 통한 간접적인 무기 지원에 동의하였다. 특히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프랑스를 통한 이스라엘에 대한 전투기 지원을 사실상 승인하였다.¹⁷⁾

이스라엘의 정치적 압력은 미국의 이집트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집트의 공산권과의 무기 거래는 미국의 이집트에 대한 무기 지원 거부로 실망한 나세르의 자구적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이집트가 체코슬로바키아를 비롯한 공산 국가로부터 군사 무기를 구입하자 미국 내 유대인들은 미국이 이러한 이집트의 행보에 관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비난하였다. 미국 의회에서 격화된 이러한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은 나세르의 중국에 대한 승인, 소련으로부터의 차관 도입 등과 맞물려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점차 왜곡되어 간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공평한 우위 정책은 이스라엘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대체되어 갔다. 이러한 맥락에서 1958년 7월 29일 NSC의 보고서는 아랍 국가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유일한 지역 동맹인 이스라엘과 강력한 동맹을 결성해야 한다는 논리 하에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재고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¹⁸⁾ 무엇보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은 1기와 2기를 거치면서 공평한 우위에서 보다 강력한 동맹 관계로 변화되어 갔으며 동맹국 간의 결속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¹⁹⁾

Ⅲ. 중동 다자안보체제와 이스라엘의 안보 불안

이스라엘은 왜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추진한 중동 다자안보체제에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했는가? 이와 같은 이

15) Gaddis 2010, 12-14.

16) Issac Alteras. op. cit., p. 177.

17) Dwight Eisenhower, *The White House Years, Vol. 2, Waging Peace, 1956-1961* (N.Y.:Double day, 1965), p. 29.

18) Paper Prepared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Planning Board. July 29, 1958. "Issues arising out of the situation in the Near East" *FRUS 1958-60, Vol. 12*, p. 118.

19) Abraham Ben-Zvi, *Decade of Transition: Eisenhower, Kennedy, and the Origins of the American-Israeli Allia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p. 95.

이스라엘의 반발 이유는 1955년 1월 19일 덜레스와 에반(Eban) 대사간의 회담 내역을 기록한 문서에서 나타난다.

이스라엘 정부는 아랍과 터키의 연합이 이스라엘에 유익할 것이라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반대로 아랍이 터키와 이스라엘 관계를 멀어지게 할 것을 우려하였다. 파키스탄은 터키와 서구와 연계(link)되어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었던 아프리카-아시아 회의(Afro-Asian Conference)에 이스라엘이 참석하는 것을 반대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터키는 최근에 아랍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긴장을 두려워하여 바트 갈림(Bat Galim) 사건에 대하여 안보리에서 연설하는 것을 거절했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스라엘은 집단방위에 의한 아랍 연맹의 균열이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의 적대적 전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²⁰⁾

이렇게 이스라엘은 동맹국 터키가 아랍 국가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대항전선을 결성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은 시리아·레바논·요르단과 같은 국경 인접 국가들의 바그다드 조약기구 가입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한다. 특히 이집트가 가입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완전 고립될 것이며 바그다드 조약기구는 장차 이스라엘에 대항한 안보 협력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불안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의 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군사력 강화를 모색하였다.²¹⁾ 그러나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방위조약 체결은 공평한 우위 정책의 포기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다만 1950년 5월 25일 공포한 3개국 선언(tripartite declaration)을 이행하는 것으로도 이스라엘이 우려하는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²²⁾ 결국 중동 집단방위체제 구상이라는 냉전적 요구에 의한 미국의 대 아랍-이스라엘 정책 변화는 동맹국 관계의 갈등을 수반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은 안보 불안을 미국과의 군사 동맹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미국은 이러한 동맹국의 요구에 대하여 거절하였다. 결과적으로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이스라엘은 특히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과 같은 인접 국가들이 바그다드 조약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완전 고립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바그다드 조약기구는 대소봉쇄 기구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항한 방위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발하게 되었던 것이다.²³⁾

<표 1> 다자안보 체제에 대한 인식과 입장 비교>

20) Telegram #406, Dulles to Embassy in Israel, 19 January 1955, FRUS 1955-57, Vol. 12, p. 9. 한편 바트 갈림(Bat Galim)은 이스라엘 정부가 수에즈 운하의 통행 자유를 시험하기 위해 과격한 선박이며 1954년 9월 이집트는 이 선박을 나포하면서 선원들을 3개월 동안 감금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갈등을 강화시키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Simon Shamir, "The Collapse of Project Alpha," *Suez 1956: The Crisis and its Consequenc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 76.

21)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Israel to the Department of State, FRUS 1955-57, Vol. 14, p. 150. 동 문서는 1955년 4월 12일 샤렛 수상(Moshe Sharett)이 덜레스에게 보낸 것이다. 이 문서에서 샤렛은 바그다드 조약 체결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려를 표명한 후 아랍 국가에게 제공되는 무기 공급 증가에 상응하는 이스라엘과 미국간의 안보 조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22) Alteras, 1993, p. 114. 3개국 선언(Tripartite Declaration)이란 1950년 5월 25일 무기 판매를 금지하고, 국경선의 변동을 막기 위한 UN의 내외적 활동에 동의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영국·프랑스·미국 3개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선언을 통해 서방 국가들은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아랍 국가들 혹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저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23) Issac Alteras, op. cit., p. 111.

	미국	아랍 국가(이집트)	이스라엘
주적	소련	이스라엘	아랍 국가(이집트)
다자안보체제 정책	적극 지지	반대	반대
다자안보체제대인식	대소봉쇄에 효과적 안보망	이스라엘 봉쇄에 무력한 안보망	이스라엘 봉쇄에 활용될 수 있는 위험한 안보망
선호 안보체제	아랍과 비아랍 국가를 포함하는 중동 체제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있는 아랍 체제	다수 아랍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주변부 체제

Ⅳ. 이스라엘과 중동 다자안보체제의 쇠퇴

1. 이스라엘 로비와 양자주의 접근의 선회

1956년 수에즈 전쟁 이후 미국은 팽창한 나세리즘의 영향력이 중동 지역에서 공산주의 확대의 기폭제가 될 것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바그다드 조약기구의 회원국들은 미국의 가입이야말로 레바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의 연쇄적인 가입을 초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입을 요구하였다.²⁴⁾ 특히 국방부 일각과 래드포드 합참의장은 미국의 가입만이 중동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가입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중동 주재 미국 대사들도 미국의 가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국방부의 찬성과 국무부의 반대라는 찬반 양론으로 분리되었다. 국방부는 미국이 가입을 통해 주변 국가들을 바그다드 조약기구에 포섭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NATO, 바그다드 조약기구, SEATO간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면서 회원국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미국의 가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국무부는 전후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위해 UN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가입은 UN의 활동에 타격을 준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가입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국무부는 이스라엘의 안보 보장 요구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해결책 없이는 상원의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무부는 미국이 바그다드 조약기구에 직접 가입할 것이 아니라 경제·군사 위원회를 통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²⁵⁾

이렇게 미국의 바그다드 조약기구에 대한 가입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봉쇄의 대상이 되어 버린 나세리즘을 약화시키고 바그다드 조약기구를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마련해야만 했다. 이러한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미국은 ① 바그다드 조약기구 가입 ② 새로운 집단방위기구의 창설 ③ 양자주의에 기반한 지원이라는 3가지 대안을 구상하였다. 특히 아이젠하워와 덜레스는 제1안과 제3안을 비교하면서 최종안의 선정에 고심하였다. 최종안의 선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다음의 문서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은 두 가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 제1안과 제3안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레바논을 바그다드 조약기구로 가입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국가들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최적일 것이다. 국무장관은 유대인들과 관련된 문제 및 무관한 문제들에 대해 언급했다. 대통령은 바그다드 조약기구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해가 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국무장관은 지난 주에 바그다드 조약기구를 도와줄 것이라고 결의한 선언 때문에 자비트(Javits)에 의해 주도되는 일군

24) Yesilbursa, 2005, pp 172-175.

25) Letter From the Secretary of Defense(Wilson) to the President. *FRUS*, 1955-57, Vol. 12, pp. 372-376.

의 상원 의원들로부터 이스라엘 안보를 보장해 주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²⁶⁾

덜레스는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소련이 중동지역을 지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련은 유럽이 의존하고 있는 석유를 통해서 유럽은 물론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지배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바그다드 조약기구의 가입을 고려했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아랍 정치를 매우 혼동스럽게 하기에 이러한 제안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 더욱이 바그다드 조약기구의 가입은 상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상원의 승인을 마찬가지로 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장과 연결되어 있어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²⁷⁾

이와 같은 문서를 통해서 1957년 1월 5일 의회에서의 제안을 거쳐 동년 3월 9일 의회의 승인을 통해 실행되게 된 이후 아이젠하워 독트린으로 알려진 제3안은 동맹국 이스라엘을 고려해 바그다드 조약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가입을 피하려는 미국의 의도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아이젠하워 독트린의 양자주의로의 선호 과정에서 이스라엘 로비가 중요한 변수로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동 집단방위체제에 대해 안보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의회 등을 통한 로비를 통해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다자체제 강화를 유도한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미국은 기존의 다자주의적 방위기구 강화가 가져 올 동맹국 이스라엘의 반발과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지원의 부담 때문에 미국의 양자주의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수에즈 전쟁 이후 양자주의 채택 과정에서 이스라엘 로비를 통한 이스라엘의 영향력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2. 벤구리온의 주변부 독트린(Periphery Doctrine)과 독자적 안보망 구축

한편 양자주의를 지향한 1957년 아이젠하워독트린 발표 이후 미국-이스라엘 동맹 관계가 강화되고 공평한 우위 정책이 변화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터어키, 이란, 에티오피아와 같은 비아랍 국가들 간의 안보동맹 결속을 모색하는 “주변부 조약기구(Periphery Pact)”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서 주변부 조약기구는 이란, 터어키, 에티오피아와 같은 비아랍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벤구리온의 주장이 반영된 결고로 볼 수 있다.²⁸⁾ 특히 벤구리온과 그의 지지자들이 주창하면서 1957-1958년 입안된 ‘주변부 독트린(periphery doctrine, torat

26) Memorandum of a Telephone Conversa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of State, December 8, 1956. *FRUS*, 1955-57, Vol. 12, pp. 395-396. 동 문건은 1956년 12월 8일 오전 아이젠하워와 덜레스가 최종안에 대하여 전화통화로 조율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27) 동 문건은 1956년 12월 20일 아이젠하워와 덜레스, 윌슨(Wilson), 후버(Hoover), 래드포드(Radford), 굿패스터(Goodpaster)가 참가한 회의에서 덜레스가 최종안의 선정 과정을 토로한 내역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Memorandum of a Conference With the President, December 20, 1956. *FRUS*, 1955-57, Vol. 12, p. 415. 한편 이러한 점은 다음의 문건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Memorandum of a Conversation, Ambassador Dillon's Residence, Paris, December 10, 1956, 9:45a.m. *FRUS*, 1955-57, Vol. 12, pp. 399-400 동 문건은 1956년 12월 10일 덜레스와 로이드가 파리에서 바그다드 조약기구를 주제로 회담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덜레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가입안의 한계를 지적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바그다드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미국의 가입을 촉구했을 때, 가입과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도 유사한 보장을 해 줘도 되냐고 반문했었다고 토로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라크는 반대, 터어키는 찬성, 나머지는 뚜렷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28) Michael Bar-Zohar, “David Ben-Gurion and the Policy of the Periphery” in Itmar Rabinovich & Jehuda Reinharz, (eds) *Israel in the Middle East: Documents and Readings on Society,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pre-1948 to the Present*. 2nd ed (Brandeis, 2007), p. 193.

haperiphria)’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반영한 장기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중동의 나세르를 비롯한 주변 다수의 아랍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는 의도의 산물이었다.²⁹⁾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주적인 다수 아랍 국가를 상정하고 주변의 소외된 국가들과 안보 동맹 결속을 모색하려 하였다. 이러한 주변부 독트린은 이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아랍의 적의에 맞서는 지역의 행위자 간의 결합을 모색한 것으로,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Mosad)에 의해 은밀하게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³⁰⁾ 이와 관련하여 전 모사드의 수장이었던 에프라임 할레비(Ephraim Halevy)은 사실상 이란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새로운 주변부 안보 동맹이 결성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토로한 바 있다.³¹⁾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정책 결정자들은 중동이 아랍 민족주의의 카우미야 정체성이나 이슬람이라는 움마 정체성으로 결코 온전하게 규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의 본질은 터어키, 페르시아, 유대인들이 중동 지역에서 아랍인들에게 못지않게 수적으로 많은 차지를 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었다.³²⁾ 따라서 특히 터어키와 이란은 이스라엘과 비밀 회동을 열고 동맹 결속 강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미국은 주변부 조약기구를 지역 정치 발전의 바람직한 결과로 고려하였다. 1958년 이라크 혁명 발발로 인한 누리 사이드(Nuri Said) 정권에서 친소 까심(Qasim) 정권으로의 교체와 요르단 위기를 목도하면서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 터어키는 1958년 미국의 레바논 개입 당시 미군의 터어키 내 군사 기지 사용에 대하여 동의해 주었다.³³⁾ 따라서 미국의 우방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주변부 조약기구의 축을 담당할 중요한 국가로 볼 수 있었다. 이스라엘은 주변부 조약기구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부합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인지시키려 노력하였다. 특히 벤 구리온은 주변부 조약기구의 잠재적 협력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안보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미국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하였다.³⁴⁾ 결과적으로 미국은 주변부 조약기구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 하에 이러한 주변부 조약기구 결성을 독려하는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⁵⁾ 특히 이와 같은 1950년대 후반의 미국의 전략적인 위치 하에서는 점차 중동지역에서 다자안보 기구의 추진 동력이 상실되어 갈 수 밖에 없었다.

IV. 결론

뉴룩전략 하에서 소련 봉쇄를 위해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추진하였던 중동 다자안보기구는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양자주의의 선호로 전환되게 되면서 쇠퇴하게 되었다. 이러한 냉전 초기 중동 집단방위체제 해체 과정의 역사를 고찰하면서 본 연구는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대소봉쇄를 위해 미국 정부가 추진한 다자주의적 안보기구를 어떻게 와해시켰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스라엘이 중동 집단방위체제를 반대했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장차 소련 봉쇄의 기구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국에 대항한 안보기구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특히 이스라엘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중동

29) Yossi Alpher, *Periphery: Israel's Search for Middle East Allies*,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15), p. xvii.

30) Ibid., xviii.

31) Ibid., 119. 한편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주변부 독트린의 시각에서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와 이란, 터어키, 그리스, 아제르바이잔 등 비아랍 국가들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다고 평가된다.

32) Abba Eban, "Reality and Vision in the Middle East," *Foreign Affairs*, 43, on. 4(July 1965), pp. 634-35.

33) Jacob Abadi.

34) Michael Bar-Zohar, op. cit., p. 196.

35) Ibid., p. 197.

집단방위체제 구상을 추진하면서 아랍 국가들의 반이스라엘 정서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였던 공평한 우의 전략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공평한 우위 전략의 왜곡 과정은 미국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강경한 대 아랍 보복정책을 억지할 수 없었다는 것과 이스라엘에 대한 간접적 군사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수에즈 전쟁 이후 나세리즘 붕괴를 위해 추진된 아이젠하워독트린의 양자주의적 형태로의 귀결 과정에서 미국 의회 내 상원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로비 활동은 다자주의 포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의 바그다드 조약기구에 대한 각계의 가입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로비의 영향 하에서 미국은 양자주의를 선호하게 됨으로써 다자주의적 중동 집단방위체제 추진의 동력은 소멸되어 갔다고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벤 구리온이 추진하고자 했던 주변부 조약기구(The Periphery Pact)는 중동 지역 내 중첩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고려한 전략이었다. 이란, 터키, 에티오피아와 같은 비아랍 국가를 포섭함으로써 이스라엘 스스로의 안보를 담보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중동 지역 내에서의 이스라엘의 고립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 모색되었다. 이러한 이스라엘 정부의 주변부 조약기구 추진은 미국이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바그다드 조약기구와 같은 아랍과 비아랍을 아우르는 중동 집단방위체제 구상과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동 집단방위체제는 이스라엘의 독자적 방위기구 추진으로 인해 더욱 입지가 약화되었다.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의 주변부 조약기구 추진에 대하여 동맹국의 입장을 고려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암묵적인 지지를 표명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중동 집단방위체제 해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스라엘에 의한 중동 다자안보체제의 훼손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냉전의 영향력에 대한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냉전 정책에 대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집트와 이스라엘 모두 반대했다는 사실은 중동 지역에서 냉전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음을 반증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중동 지역에서 소련의 영향력 붕괴라는 글로벌 국가이익을 추구한 미국과는 달리 지역의 행위자들은 냉전적 목적보다는 지역의 문제에 우선순위를 둔 채 독자적인 방위체제를 모색했다는 사실은 냉전 초기 지역 행위자들의 냉전과 무관한 국가이익의 추구를 보여주는 단면이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I. Primary Sources

1. FRUS

- U.S. Department of State. 198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Vol. 9. The Near and Middle Eas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9-91.
- U.S. Department of State. 199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5-1957. Vol. 12. Near East: Multilateral Relations; Iran; Iraq*.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9-91.
- U.S. Department of State. 198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5-1957. Vol. 13. Near East: Jordan-Yeme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9-91.
-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8-1960. Vol. 12*.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9-91.

II. Secondary Sources

1. Books

- Alpher, Yossi. 2015. *Periphery: Israel's Search for Middle East Allies*.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Alteras, Isaac. 1993. *Eisenhower and Israel: U.S.-Israeli relations, 1953-1960*.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 Ambrose, Stephen E. 1991. *Eisenhower: Soldier and President*. Simon & Schuster.
- Ben-Zvi, Abraham. 1998. *Decade of Transition: Eisenhower, Kennedy, and the Origins of the American-Israeli Allia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Eisenhower, Dwight. 1965. *The White House Years, Vol. 2, Waging Peace, 1956-1961*. N.Y.:Double day.
- Gerges, Fawaz A. 1994. *The Superpowers and the Middle East: Regional and International Politics, 1955-1967*. Westview Press.
- Halliday, Fred. 2005. *The Middle East in International Relations. Power, Politics and Id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arsheimer, John and Walt, Stephen. 2007. *Israel Lobby and U.S. Foreign Polic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Muhammad Abd el-Wahab Sayed-Ahmed. 1989. *Nasser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52-195*. LAAM: London.
- Safran, Nadav., *Israel: The Embattled Ally*.
- Shalom, Zaki. 2002. *David Ben-Gurion, the State of Israel and the Arab World, 1949-1957* (Brighton, Portland: Sussex Academic Press.
- Takeyh, Ray. 2000. *The Origins of Eisenhower Doctrine: The US, Britain, and Nasser;s Egypt, 1953-57*. New York: St. Martin's Press.
- Touval, Saadia. 1982. *The Peace Brokers: Mediators in the Arab-Israeli Conflict, 1948-1979*.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Yaqub, Salim. 1991. *Containing Arab Nationalism: The Eisenhower Doctrine and the Middle East*.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Yesilbursa, Behcet Kemal. 2005. *The Baghdad Pact: Anglo-American defence policies in the Middle East, 1950-1959*. New York: Frank Cass.

2. Articles

(1) English

Bar-Zohar, Michael. "David Ben-Gurion and the Policy of the Periphery" in Rabinovich, Itamar & Reinharz, Jehuda, (eds) *Israel in the Middle East: Documents and Readings on Society,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pre-1948 to the Present*. 2nd ed (Brandeis, 2007).

Eban, Abba. 1965. "Reality and Vision in the Middle East." *Foreign Affairs*, 43. on. 4(July).

Shamir, Simon. 1989. "The Collapse of Project Alpha," *Suez 1956: The Crisis and its Consequ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luglett, Peter. 2009. "The Cold War in the Middle East" , Louise Fawcett, (eds)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Middle East*. 2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사이크스-피코 협정과 레바논, 시리아의 건국 과정*

박 찬 기**

- I. 서론
- II. 분석의 틀
- III. 사이크스와 프랑스와 피코
 - 1. 마크 사이크스(Mark Sykes: 1879-1919)
 - 2. 프랑스와 피코(François Georges-Picot (1870-1951))
- IV. 후세인-맥마흔 서한, 사이크스-피코비밀협정 및 발포어선언
 - 1. 후세인-맥마흔 서한(Hussein-McMahon Correspondence)
 - 2. 사이크스-피코비밀협정(Sykes-Picot Secret Agreement)
 - 3. 발포어선언(Balfour Declaration)
- V. 각 협정의 전개과정
 - 1. 후세인-맥마흔 서한의 전개과정
 - 2. 사이크스-피코비밀협정의 전개과정
- VI. 전쟁말기와 종전 후 전개과정
- VII. 결론

I. 서론

제1차 세계대전 기간(1914-1918)에 현재의 중동지역 문제를 태동시킨 3가지의 협약이 있었다. 이 3가지는 1915년의 후세인 맥마흔 서한, 1916년의 사이크스-피코 비밀협정 그리고 1917년의 발포어선언이다. 물론 이 당시의 인류역사상 최악의 전쟁 상황이었기에 승전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이들 3가지 협약은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모순된 내용이었다. 이러한 모순된, 또는 상호 배타적인 협약이 전쟁종결 후에 근본적인 교정이 없이 국제정치에 적용되면서 오늘날 중동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정치지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3가지의 협약은 전승을 위한 한 방편이었지만 또한 면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쟁구도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산업혁명(1750-1850)전에는 프랑스가 패권국이었으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되면

* 본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3065893)

**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서 영국이 세계적인 패권국가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1805년 10월 21일 프랑스-스페인 연합함대는 넬슨이 이끄는 영국함대에 괴멸 당했으며, 1815년 6월 18일의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 군이 완패하면서 프랑스의 패권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의 오래된 경쟁구도는 계속 진행되었으며, 특히 아프리카에서 양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은 1898년 수단의 파쇼다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쟁구도에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마지못하여 한편이 되었지만 전쟁기간 동안 계속해서 서로를 견제하고 신뢰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쟁구도에서 영국은 히자즈의 세리프 후세인에게 반 오스만제국 반란을 요구하였고 그 대가로 범 아랍 국가 건설을 약속했다. 그 다음해에는 전쟁도 끝나기 전에 오스만제국의 영토를 각각의 영향권으로 분할하는 비밀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1917년에는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원한다는 발포어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속임수가 전후 토착민들의 생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가 등의 인위적 국가들인 건설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의 씨앗을 심게 되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 건설도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시작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근대 중동 분쟁의 시작이 된 이러한 3가지 조약 중에서 특히 레바논과 시리아 건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이크스-피코비밀협정에 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즉, 사이크스와 피코는 어떤 인물이며, 무슨 연유에서 비밀리에 협상을 하였으며, 이러한 비밀협정이 두 국가 건설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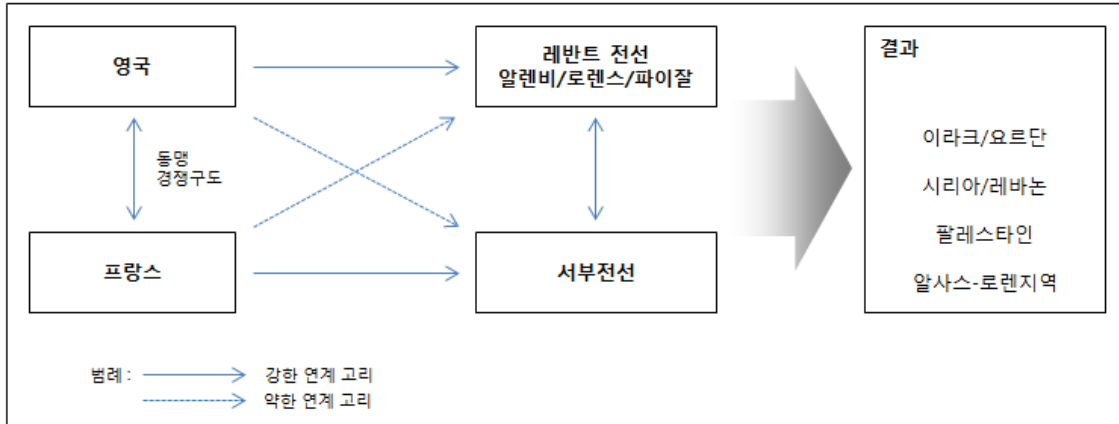
II. 분석의 틀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맥락의 대조로서의 비교사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¹⁾ 그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뚜렷한 맥락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기울어 가는 패권국과 떠오르는 패권국, 서부전선과 레반트전선의 차이, 중동지역에 대한 이해관계의 차이 그리고 전쟁 후에 국익을 생각하는 차원 등에서 매우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에 관하여 영국과는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은 후세인-맥마흔선언과 시온주의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더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프랑스는 시리아지역에 대하여 십자군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통치권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사이크스-피코협정은 두 국가의 서로 다른 의도가 사이크스와 피코라는 아마추어적인 중동 전문가들에 의하여 임시방편으로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맥락의 대조로서 우리는 더욱 세밀한 인과론적 추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맥락의 차이가 전쟁기간 계속되는 경쟁구도를 만들었으며, 전후에 파이잘이 시리아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대신 프랑스는 알사스-로렌지방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기에 영국에 메소포타미아를 양보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 활용하는 맥락의 대조로서의 비교연구 모델은 아래 도표와 같다.

1) 김진웅, 박찬욱, 신윤환 편역, 『비교정치론 강의 1』,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2, pp. 121-125.

맥락의 대조로서의 비교연구 모형



III. 사이크스와 프랑스와 피코

1. 마크 사이크스(Mark Sykes: 1879-1919)

1915년 12월 16일 오전 당시 36세의 사이크스는 영국 수상관저에서 거행된 전쟁내각 각료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의 목적은 오스만제국의 붕괴 시 중동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영국은 중동문제를 잘못 처리할 경우 프랑스와의 연합이 붕괴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었다. 그 결과 중동 전문가(?)인 사이크스를 초청하여 그의 의견을 청문해보는 과정이었다.

사이크스는 1879년 3월 16일 영국 요크셔어(Yorkshire)의 퇴락되어 가는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은 타톤 사이크스(Sir Tatton Sykes) 경이며 모친은 크리스티나 제시카(Christina Anne Jessica)로서 이들 부부는 30년의 나이 차이가 있었으며 마크 사이크스는 이들의 유일한 자식이었다. 부부간의 지나친 나이 차이와 모친 집안의 많은 부채, 모친의 알콜의존증 등으로 마크 사이크스의 부모는 결혼생활이 조기에 파경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마크 사이크스는 유년기에 런던에 거주하는 모친 집과 요크셔어에 있는 부친의 농장을 오가면서 성장하였다. 11세에 부모와 함께 이집트, 예루살렘, 레바논 등지를 첫 여행하면서 사이크스는 영국과 상이한 이들 지역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으며, 특히 과거로의 여행과 같은 중동 현지 상황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캠브리지대학교에 수학 중이던 1897년 부모의 이혼문제가 법정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가정이 혼란해지자 현실 도피성으로 마크 사이크스는 혼자 이스탄불, 다마스쿠스, 모슬 등지를 여행하게 되었다.

같은 해 마크 사이크스는 군에 입대하여 보어(Boer)전쟁에 참전하여 2년간 근무하였으며 1902년 2월 대위(captain)로 진급되었으며 그해 5월에 영국으로 귀국하였다. 1904-1905년 사이에는 아일랜드 행정관(George Wyndham)의 보조관을 지냈고 이스탄불 영국대사관에 명예공사(honorary attache)로 근무하기도 했다. 마크 사이크스는 본인과 같이 천주교 신자인 고르스트(Edith Violet Gorst)와 결혼하였으며 슬하에 6명의 자녀를 두었다.

1911년에는 요크셔어주의 지역구(Hull Central)에서 보수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영국 의회의 의원(MP)이 되었다. 그는 등원 첫 연설에서는 강력하고 통일된 오스만제국이 영국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²⁾

2) James Barr, *A Line in the Sand: The Anglo-French Struggle for the Middle East, 1914-1948*,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12, p. 5-6.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사이크스 중령(Lieutenant-Colonel)은 그린 하워드스(Green Howards) 예비역 제5연대의 연대장이 되었으나 실전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의 전문가적 배경을 고려하여 전쟁담당 부서(War Office)에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 전쟁장관(Secretary of State for War)인 키체너(Lord Kichener)는 사이크스의 전공을 고려하여 중동문제에 관하여 내각에 자문하는 드 번센 위원회(de Bunsen Committee)에 소속시켰다. 그 후 외교부 안에 아랍국(Arab Bureau)이 설립되자 사이크스는 아랍국 내의 그의 동료들과 함께 중동지역의 고대 그리스와 로마제국에서 사용하던 명칭들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명칭으로 개명작업을 하였다.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등의 명칭이 이들이 개명한 것이다. 또한 사이크스는 오스만제국에 대항한 아랍반란(Arab Revolt)때 사용할 기(flag)를 초록색, 빨간색, 검정색, 흰색 등으로 고안하였으며, 이러한 깃발이 차후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수단, 예멘, UAE, PLO 등의 국기 또는 깃발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있다.³⁾

이러한 그의 능력과 직책으로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사이크스는 영국의 대 중동정책 구상에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1916년의 사이크스-피코 비밀협정, 1917년의 발포어선언(Balfour Declaration) 등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전후 1919년에는 파리평화회담에 참석하여 영국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1919년 2월 16일 사이크스는 그가 머무르던 파리의 호텔(Hotel Lotti) 방에서 사망하였다. 사망 원인은 스페인 독감이었으며 그의 나이 40세 때였다.

2008년 9월 Yorkshire에 있는 사이크스의 무덤은 후손들의 동의하에 그의 사망원인인 스페인 독감(Spanish flu)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 해체졌다.⁴⁾ 그의 관은 전염성을 염려하여 납으로 봉인되었지만 관 위의 흑의 무게로 인하여 관이 양분된 상태이었다. 그러나 관 안에 있는 그의 허파와 뇌에서 다행히 연구샘플을 채취 할 수 있었다고 한다.

2. 프랑스와 피코(François Georges-Picot (1870-1951))

피코의 부친(Georges Picot: 1838-1909)은 당대 프랑스의 저명한 변호사로서, 아프리카 식민지 확장을 지지하는 Comite de l'Afrique Francaise의 설립자이며, Institute Francaise의 회원이고, 영국의 이집트 점령을 인정한 프랑스 전 수상 글레드스톤(William Ewart Gladstone)의 전기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피코는 이러한 그의 부친의 지명도를 활용하고자 그의 성을 부친의 전체이름으로 사용하였다.

피코는 대학생 시절 부친의 직업을 따르고자 법학을 공부하였으나, 28세인 1898년 법학 공부를 그만두고 외교관 준비를 하였다. 이러한 그의 전공 변경은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 식민지를 두고 각축하던 시기였으며, 특히 수단의 나일 강 상류 지역에 대한 분쟁인 파쇼다(Fashoda)사건이 영향을 비쳤을 것으로 추측된다.⁵⁾

3) http://en.wikipedia.org/wiki/Mark_Sykes(검색일: 2015. 5.12).

4) 스페인독감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학자들은 1918년 여름 악성 독감이 동시 다발적으로 유행하고,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독감 이름을 스페인독감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독감이 처음 보고된 것은 1918년 초여름이다. 당시 프랑스에 주둔하던 미군 병영에서 독감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특별한 증상이 없어 별로 주목을 끌지는 못하였다. 같은 해 8월 첫 사망자가 나오고, 이 때부터 급속하게 번지면서 치명적인 독감으로 발전하였다. 곧이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귀환하면서 9월에는 미국에까지 확산되었다. 9월 12일 미국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2만 4000명의 미군이 독감으로 죽고, 총 50만 명의 미국인이 죽었다. 1919년 봄에는 영국에서만 15만 명이 죽고,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2500만~5000만 명이 죽었다. 14세기 중기 페스트가 유럽 전역을 휩쓸었을 때보다도 훨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 지금까지도 인류 최대의 재앙으로 불린다. 한국에서도 740만 명이 감염되었으며 감염된 이들 중 14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바이러스를 분리·보존하는 기술이 없어 그동안 스페인독감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2005년 미국의 한 연구팀이 알래스카에 묻혀 있던 한 여성의 폐 조직에서 스페인독감 바이러스를 분리해 재생하는 데 성공하였다. 재생 결과 이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형 중 H1N1형으로 확인되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35661&cid=40942&categoryId=32799>(검색일: 2015. 5.10).

5) 수단 동부의 백나일 강가에 있는 작은 도시 파쇼다는 아프리카 정복의 야망을 품은 프랑스와 영국의 분쟁을 상징하는 두

피코는 레바논 지역에서 반 오스만제국 반란이 곧 시작될 것이고, 그럴 경우 프랑스가 즉각적으로 개입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결과 피코는 잠시 본국으로 피신한다는 판단하에 그간 아랍 장교들 및 기타 지지자들과 교신한 편지와 문서가 들어 있는 문서고 열쇠와 영사관 열쇠를 주 베이루트 미국영사에게 위탁하였다. 그러나 예상했던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프랑스의 레바논 침공도 없었다, 오스만제국 병사들이 주 베이루트 프랑스 영사관을 점령하면서 그간 피코와 교류한 수많은 아랍 군인과 이에 연계된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편 피코는 파리에서 동료들과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과 무역하는, 특히 실크산업에 관여하는 기업인들을 규합하여 프랑스 의회에 이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로비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당시 수상인 델카세(Delcasse)는 레바논과 시리아 문제에 관하여 영국과 논의해보겠다는 의사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피코는 곧 주 영국 프랑스 대사관에 파견되었으며 영국과 프랑스 간의 오스만제국 영토분할 협상에 주인공이 되었다.

IV. 후세인-맥마혼 서한, 사이크스-피코비밀협정 및 발포어선언

1. 후세인-맥마혼 서한(Hussein-McMahon Correspondence)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28일 시작되었지만 오스만제국은 같은 해 11월에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 편으로 참전하였다. 영국은 1915년 4월 25일 오스만제국을 조기에 붕괴시키고자 이스탄불에 가까운 갈리폴리(Gallipoli: Çanakkale) 상륙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오스만제국의 강력한 저항으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갈리폴리에서 철수할 경우 오스만제국의 반격이 염려되었으며 이들의 목표물은 수에즈운하와 이집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집트는 그 당시 영국의 식민통치와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가 파탄나면서 반영감정이 고조되어 있었고, 오스만제국의 술탄이 주장하는 지하드 선동에 동조하는 세력이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오스만 군이 수에즈운하를 공격할 시 나일 강 델타지역의 무슬림들이 반영 반란을 일으킬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을 때이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영국의 이집트 고등판무관 맥마혼의 참모인 로널드 스토크스(Ronald Storrs)가 오스만 술탄의 지하드 선동에 대항할 계책을 제안하였다.⁷⁾

7) Joshua Teitelbaum, *The Rise and Fall of the Hashimite Kingdom of Arabi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1, p. 52.



갈리폴리(Çanakkale) 위치

로날드 스토프는 전쟁전에도 히자즈의 셰리프 후세인의 둘째아들인 압둘라(Abdullah)로부터 오스만제국에 대항하기 위하여 무기지원을 요청받은 적이 있고, 영국 정부는 그 당시에는 이를 거절하였었다. 그러나 이제는 오스만제국이 적국이 된 현실에서 셰리프 후세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영국의 전쟁수행에 필요하게 되었다. 스토프는 비밀리에 후세인과 접촉하였으며 1915년 8월 그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접하게 되었다. 이 당시에 프랑스의 피코가 영국에 도착하여 프랑스의 시리아 통치요구를 주장할 때이다.

셰리프 후세인은 회신에서 영국의 요구대로 반 오스만반란을 일으켜서 영국이 승리할 경우 법아랍국가 건설을 위하여 아라비아반도, 시리아, 이라크 및 팔레스타인을 요구하였다. 맥마흔은 그의 지나친 요구에 별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아랍의 현실에 익숙한 스토프는 그가 큰 요구를 하였지만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절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협상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스토프의 예상대로 9월 초 셰리프 후세인은 그의 요구를 절충할 수 있다는 연락을 보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리폴리전선에서 아랍 장교(Muhammad al-Faruqi)가 영국군에 귀순하면서 그는 많은 아랍장교들이 비밀리에 아랍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어떤 편에 충성을 맹세할지 망설이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첩보를 접한 맥마흔은 10월 18일 본국에 아랍과 오스만제국의 분열조짐이 있고, 이를 활용하여 셰리프 후세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전통을 보냈다. 영국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독일과 손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첨부하였다.



Sir Mark Sykes, left, and François Georges-Picot, right

당시 영국 외교부장관인 에드워드 그레이(Sir Edward Grey)경은 프랑스의 시리아 요구와 셰리프 후세인의 요

구에 대하여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프랑스의 요구를 거절 할 경우 전쟁연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후세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셰리프가 오스만제국의 지하드 선동에 가담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었다. 그레이 경은 프랑스의 시리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전쟁수행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당시 프랑스 국내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10월 20일 그레이 경은 카이로에 셰리프 후세인의 요구에 관하여 최대한 애매모호하게 회신 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급할 사정이 있을 경우 본국의 승인을 기다리지 말고 재량껏 처리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10월 24일 서한에서 맥마흔은 셰리프의 요구를 대부분 수락하지만 영국이 벌써 점령한 이라크 남부의 페르시아 만 지역과 시리아 해안지역은 불가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것이 바로 후세인-맥마흔 서한의 핵심이다.

2. 사이크스-피코비밀협정(Sykes-Picot Secret Agreement)

그레이 경은 주 영국 프랑스대사인 캄본(Cambon)에게 후세인과 맥마흔의 서신 교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시리아 국경문제를 논의할 대표를 선정하라고 요구하였다. 캄본은 이러한 영국의 호의에 고무되어 본국에 영국이 드디어 프랑스의 시리아 통치요구에 동의 하였으며, 협상대표로는 그의 새 보좌관으로 최근에 영국에 온 피코를 지명할 것을 청원하였다. 피코는 이 시점부터 대전기간동안 프랑스의 대 중동정책 구상의 주인공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카이로주재 프랑스대사 데프란스(Defrance)는 갈리폴리에서 영국군에 투항한 알-파루키(al-Faruqi)를 면담 하면서 셰리프 후세인과 맥마흔의 서신왕래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이를 본국에 알렸다. 그러나 그는 맥마흔이 셰리프의 요구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11월 23일 영국 총리관저 회의에서 맥마흔이 셰리프에게 법아랍국가 건설을 위하여 영토를 할애했다는 소식을 듣자 피코는 큰 충격을 받고 격분하였다, 피코는 주 이집트 프랑스대사가 영국이 셰리프의 영토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빗나갔으며, 영국이 같은 연합군인 프랑스와 사전에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영토를 할당했다는 것에 격분한 것이다. 또한 피코는 수많은 부족으로 구성된 아랍인들이 한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프랑스 국민이 영국의 일방적인 영토분할을 인정할 수 없으며, 어느 프랑스 정부이든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제1차 협상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영국 대표단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프랑스의 통치가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는 피코의 단호함에 놀랐으며 한편으로는 그의 주장을 거부할 경우 서부전선에서 고전하는 프랑스와의 전쟁수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도하였다. 그 결과 영국은 후세인-맥마흔 서한 내용에 대하여 말 바꾸기를 시작했으며, 그 내용자체를 평가절하하면서 프랑스에 대한 회유책을 구상하였다. 피코 또한 영국이 셰리프에 큰 영토를 할애했다고 한 것은 아랍인들을 기만하기 위한 전술일 것이라 추측하였다. 결국 영국은 만에 하나 아랍 국가를 건설한 다하여도 프랑스가 요구한 중동지역은 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피코의 성과를 접한 당시 프랑스 수상(Aristide Briand)는 한편으로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영토는 전후 프랑스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염려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피코가 본국을 방문하였을 때 수상은 피코에게 영토요구를 축소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예루살렘 지역은 별다른 값어치 없으며 오히려 통치에 어려움이 있기에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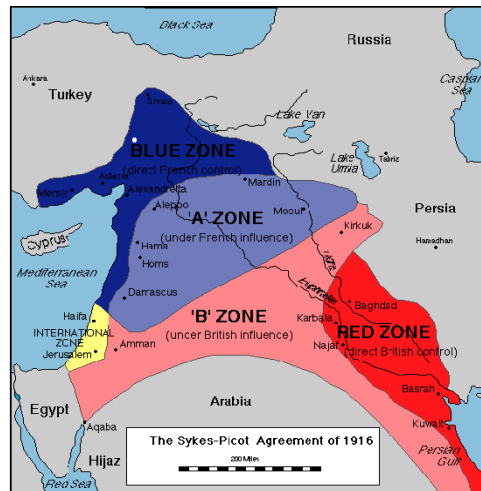
그러나 12월 21일 제2차 회담에서 피코는 수상의 요구와는 정 반대로 전후 프랑스의 영향권을 시리아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모술(Mosul)에서 티그리스(Tigris) 강 동쪽까지를 요구하였다. 영국은 당연히 피코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동쪽으로는 가능하지만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지역은 미래 아랍 국가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피코는 이러한 영국의 주장을 당연히 거부하였다. 그 결과 제2차 회담도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이와 같이 양국 간의 협상이 공전을 계속하자 영국 협상단 대표인 니콜슨(Nicloson)은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사이크스에게 조언을 요청했다. 12월 21일 오후 사이크스와 피코는 비공식적으로 회합을 가졌다. 사이크스는 그동안 중동을 방문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스만제국과 아랍의 분열조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맥마흔이 셰리프에게 제공한 조건을 고수할 필요성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하여 피코는 아랍민족주의를 잘 다스리지 못할 경우 프랑스의 국익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회합에서 피코는 사이크스의 의중을 알고 매우 만족하였다. 사이크스는 후세인-맥마흔 서한에서 후세인에 제시한 영토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어 이를 프랑스에 할당하고, 영국은 하이파(Haifa) 이남의 팔레스타인을 차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모술 지역은 사이크스와 영국도 별관심이 없었기에 프랑스에 할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팔레스타인 지역에 관하여서는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았다. 당시 프랑스 수상은 피코에게 팔레스타인은 포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피코는 팔레스타인은 십자군 전쟁 때부터 프랑스와 연관이 많으며 또 영국의 중요한 전략요충지인 수에즈운하와 연관된 지역이기에 이에 가까운 팔레스타인 지역을 프랑스가 영향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었다. 사이크스는 이와 반대로 수에즈운하와 인접한 지역을 제국주의적 경쟁관계에 있는 프랑스가 점령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절충안을 찾게 되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국제적 통치하에 두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이러한 결정은 향후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으로 인하여 장래 양국가 간에 갈등이 빚어 질수 있고, 특히 수에즈운하의 보호차원에서 영국의 국익이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두 사람 간의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절충안으로 어느 정도 타협을 보게 되었다.

그 결과 1916년 1월 3일 제3차 영국-프랑스 협상단 회의에서 사이크스-피코협정(Sykes-Picot Agreement)이 합의되었다. 지중해 연안의 아크(Acre)에서 키르쿠크(Kirkuk)를 지나 페르시아 변방까지 연결하는 선에서 상/하 지역을 양분하는 것이었다. 위에 지역은 프랑스가, 아래 지역은 영국이 관장하며, 이 지역 내에서 각 국가가 원할 경우 각 지역 내에서 전면적이 통치지역 설정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청색지역(Blue Zone)은 시리아와 레바논 해안지역에서 현 터키 국경까지로서 프랑스가 관장하고, 적색지역(Red Zone)은 현 이라크 남부의 해안지역에서 바그다드를 거쳐 하이파 지역까지로서 영국이 관장하며, 갈색지역(Brown Zone: 아래 지도에선 노란색)인 팔레스타인은 국제적 통치 하에 둔다는 내용이었다.



http://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History/sykes_pico.html



<사이크스 피코 협정의 지도. 이 지도는 1916년 5월 9일 파울 캄본이 에드워드 그레이 경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 있었다.>

이러한 내용의 합의를 러시아의 동의를 얻은 후 1916년 5월 협상서류를 양국이 교환하면서 사이크스-피코협정이 타결되었다. 이 협상은 당분간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전후 세력권을 분배하는 시기상조적인 양국의 처사에 대한 국제적 비난과, 제국주의 말기에 제국을 확대한다는 시대적 조류에 반하는 처사이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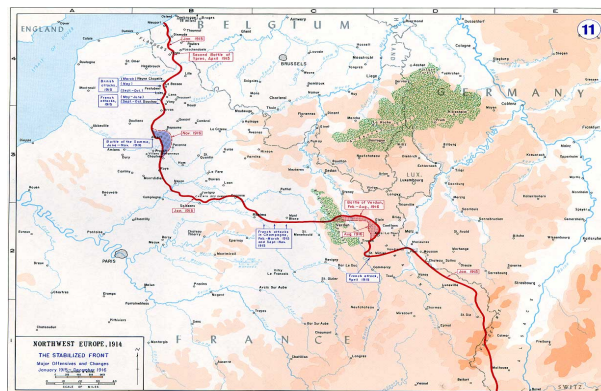
당시 프랑스 수상은 이 협정을 받기면서 주영 프랑스대사(Combon)에게 이에 대한 영국의 입장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이유는 상황이 변할 경우 영국의 태도가 변경될 수 있기에 사전에 확실히 해두자는 취지였다.

영국은 이 협정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다. 내각에서는 ‘곰을 잡지도 않고 가죽을 분배한 꼴’이라는 하소연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피코에 의하여 강요된 협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협정이 종결 판이 아니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국제적 통치지역으로 남겨 논데 관하여 불만이 많았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 전쟁 초기부터 팔레스타인에 유대인국가 건설이 영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발포어선언(Balfour Declaration)

1915년 프랑스가 시리아에 대한 통치권을 요구하던 시기에 유대인이자 시온주의자인 영국의 내각장관 허버트 사무엘(Hurbert Samuel)은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건설 기회를 엿보면서 여러 방면으로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었다. 그의 주장은 수에즈운하 동쪽을 경쟁국, 또는 적국이 차지할 경우 영국의 국익에 위협이 될 것은 명백함으로 친 영국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논리이었다. 전쟁기간은 영국과 프랑스가 같은 연합군이지만 이러한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에 프랑스에 팔레스타인을 위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영국이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건설을 추진할 경우 동유럽과 러시아 거주 유대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미국 유대인의 정치력을 이용하여 미국의 참전을 끌어들이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 결과 영국은 사이크스-피코협정 후 이러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건설에 관한 프랑스의 의견을 타진하였다. 그 당시 프랑스는 유대인 국가건설에 관하여 회의적인 입장이었기에 이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916년 7월 1일 시작된 프랑스의 솜 전투(Battle of the Somme)에서 첫날에 6만 명 이상의 영국군 사상자가 발생하자 상황이 달라졌다.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의 참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그 당시 고립주의(isolationism)에 근간을 둔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도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제국주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기에 참전에 부정적이었다.



<Battle of the Somme>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5/51/Western_front_1915-16.jpg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자 당시 영국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David Lloyd)는 팔레스타인 침공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최대성지인 팔레스타인 지역이 프랑스의 영향권에 안에 들어가는 것도 불만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온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이기에 윌슨의 제국주의 운운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데이비드 로이드 수상은 영국의 시온주의자인 하임 와이즈만(Chaim Weizmann)과의 면담에서 시온주의자들의 영국 지지에 대한 확답을 받고, 사이크스에게 아랍인들의 지지보다 시온주의자들의 지지가 영국의 전쟁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지시하였다. 또한 아랍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관하여서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언약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사이크스는 이러한 수상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피코와 접촉하여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피코는 영국이 벌써 사이크스-피코협정을 무시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나, 팔레스타인에 유대인국가를 건설할 경우 유대인과 아랍인들 간의 갈등이 고조

8) 영국은 이 전투에서 첫날에 6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면서 전쟁기간 중 최악의 날이었다. 전체 연합국 사상자는 623,907 명이었다. 이 전투를 프랑스에서는 'Bataille de la Somme,' 독일에서는 'Schlacht an der Somme'라 칭하고 있다.

될 것이기에 이는 영국의 국익에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라 짐작하였다.

한편 1916년 11월 대통령선거에서 다수의 미국 국민은 고립주의를 주장하면서 참전에 반대하였다. 윌슨 대통령은 근소한 차이로 재선되면서 모든 전쟁국가들이 전쟁의 원인인 제국주의를 포기하고 식민지는 민족자결주의에 의하여 그들의 앞날을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윌슨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에 관하여서도 이들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사이크스-피코 비밀협정도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세계관으로 인하여 미국은 제1차 대전에서 중립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미국을 참전하게 만들었다.

1917년 1월 독일은 미국의 연합군에 대한 전쟁물자 수송을 차단할 목적으로 무제한적인 잠수함(U-boat)공격을 재기하였다. 또한 멕시코 정부에 전통을 보내서 독일편으로 전쟁에 참전할 것을 권고하였다, 참전 시 모든 전비는 독일이 지불할 것이며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주 등을 수복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비밀교신이 영국의 장보기관에 의하여 감청되어 윌슨에게 전해졌다. 이런 와중에 3월 독일의 잠수함이 미국 상선 3척을 침몰시키자, 윌슨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참전의 불가피한 점을 국민들에게 고하였다. 미국의회는 1917년 4월 6일 독일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다.

1917년 10월 31일 영국 내각회의에서 외무부장관인 아서 발포어(Arthur James Balfour)는 시온주의자들의 염원인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Jewish homeland)건설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과 러시아의 유대인에 매우 우호적인 선전도구가 될 것이고, 이는 영국의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역설하였다. 특히 윌슨 미국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인 시온주의자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와 프랭크퍼더(Felix Frankfurter)의 영향력으로 미국의 더 적극적인 참전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혁명지도자들, 특히 리온 트로츠키(Leon Trotsky) 같은 유대인 후예들에게 호감을 사서 혁명 후에도 동부전선을 고수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영국의 승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⁹⁾ 또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추진할 경우 이 지역에 대하여 영국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프랑스 등 여타 국가들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나아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수에즈운하 방어를 위한 완충지역(buffer zone)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발포어는 전후 이 지역이 이라크 모술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이송할 파이프라인 건설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⁰⁾

내각회의 후 11월 2일 발 포어는 ‘영국정부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희망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영국-아일랜드 시온주의자 연맹 앞으로 보냈다.¹¹⁾ 이것이 바로 발포어선언이며, 2주 후 이 서한의 내용이 일반 언론에 공개되었다.

V. 각 협정의 전개과정

1. 후세인-맥마흔 서한의 전개과정

1916년 6월 메카의 셰리프 후세인이 오랫동안 망설이던 반 오스만제국 반란을 시작하였다. 초기에 셰리프의 베두인 군사들은 메카에 주둔하던 오스만 군을 제압하여 그곳에서 철수하게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별다른 성과

9) Jonathan Schneer, *The Balfour Declaration: The Origins of the Arab-Israeli Conflict*, New York: Random House, 2010, p. 366.

10) 영국은 실제로 전후 모술-하이파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1935년부터 1948년까지 석유를 수송하였으며 1948년 이스라엘 국가 건설이후에도 비공식적으로 1954년까지 이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여 석유를 수송하였다. http://en.wikipedia.org/wiki/Balfour_Declaration

11) 이 서한은 당시 영국 유대인공동체 대표인 Walter Rothschild를 통하여 시온주의자 연맹에 전달되었다.

를 거두지 못하고 소강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로렌스(T.E. Lawrence)는 5월 7일 홍해 연안에서 메카의 셰리프 후세인을 면담하고 오는 사이크스와 만날 수 있었다. 사이크스로부터 사이크스-피코 비밀협정을 전해들은 로렌스는 경악했으며,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이크스와 로렌스는 성장 환경에서부터 교육과정, 아랍인들에 관한 생각 등에서 너무나 상반되는 스타일이었다.¹²⁾ 로렌스는 그 당시 28세 이었으며 사이크스는 36세 이었고, 가정환경도 사이크스는 대농장 지주의 외아들이었고 로렌스는 평범한 가정의 많은 형제 중 장남이었다. 대학교도 같은 캠브리지 대학교를 다녔지만 사이크스는 중퇴하고, 집안의 배경으로 오스만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의 영국대사관 명예공사로 근무하였다. 이와 달리 로렌스는 캠브리지 대학교 고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으며 시리아 동부지역에서 여러 차례 고고학적 발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사이크스와는 반대로 로렌스는 아랍어를 잘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이해도와 애정이 높지만, 사이크스는 아랍인들을 다소 경멸하는 스타일이었다. 즉, 두 사람은 여러 면에서 함께 어울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홍해 연안에서 로렌스와 만난 사이크스는 아랍 국가건설은 가난과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허황된 꿈이라고 주장하였다. 로렌스는 이러한 사이크스의 주장에 실망하였으며 그를 아랍을 이해 못하는 이방인(outsider)으로 간주하였다.

당시 전황을 보면 메카에서는 오스만 군이 밀려났지만 메디나에는 오스만 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은 다마스쿠스를 거쳐서 메디나로 오는 철로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무기와 군수물자를 보급 받고 있었다. 당시 이들은 1916년 10월 메카를 탈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메카와 메디나는 200마일 이상의 거리이며 험준한 산악지형이다. 당시 이 지역을 셰리프의 셋째아들인 파이잘(Faisal)이 그의 베두인 군과 함께 방어하고 있었다. 이들의 무장은 취약했으며, 전술이나 군기 면에서도 영국군의 잣대로는 매우 취약하였다. 그러므로 오스만 군이 반격을 할 경우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외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그러나 카이로의 영국군을 이들에 대한 지원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 이유는 첫째, 당시 영국군은 갈리폴리 전투에서 실패하면서 많은 사상자를 초래했기에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었으며, 둘째, 지원할 병력과 군수물자가 부족했고, 셋째, 영국군 내부에서 지원에 대한 찬/반론이 대립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사정을 파악하고자 정찰대를 파견하게 된 것이다. 정찰대는 로렌스와 스토프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1916년 10월 16일 히자즈 제다에 도착하였다.

스토프는 메카에 있는 셰리프 후세인에 전화를 하여 현지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로렌스가 내륙으로 이동할 수 있게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허락이 떨어지자 로렌스는 아랍인 복장을 하고 낙타를 타고 내륙으로 이동하였다. 로렌스는 파이잘을 만나서 전황을 전해 들었으며 그 자신도 하루 종일 관찰하면서 상황을 파악하였다. 카이로로 귀환한 로렌스의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프랑스도 히자즈의 전황을 파악하고자 정찰대를 파견하였는데 제다에서 로렌스는 프랑스 정찰대의 책임자인 브레몬드(Bremond)를 만났다. 로렌스의 보고에 의하면 프랑스도 히자즈에 프랑스군을 파견할 의사를 보였지만 그 의도는 아랍반란의 성공을 위한 지원보다는 아랍반란을 통제하기 위함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반란을 실패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아랍반란이 초기에 메카에서 오스만 군을 추방한 이후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원인이 셰리프 후세인의 외부인의 참여에 대한 완고한 반대에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로

12) 로렌스는 신체적으로도 사이크스와 대조적이다. 영국인으로서는 매우 단신인 5피트 6인치의 키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로렌스는 군에 자원하였으며 그의 전공과 어울리게 카이로 영국대사관에 파견되었다. 여기서 로렌스는 영국 육군정보국에 파견되면서 오스만제국의 군 이동에 관한 차트를 그리고 있었다. 그의 동생들, Will과 Frank는 1915년 서부전선에서 전사하였다. 로렌스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본인이 오피스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관하여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며, 차트를 그리는 단순임무에 싫증을 내고 있었다. 그때 쯤으로 현지상황파악을 위하여 파견된 것이다.

렌스는 카이로 영국군 지휘부의 생각과는 달리 아랍 베두인 군이야말로 진정한 게릴라전 전사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무기와 탄약, 금(gold), 그리고 작전에 적절히 조언할 사람만 있으면 반란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로렌스의 보고에 수궁이 간 카이로 영국군 수뇌부는 본국의 허락을 받아 로렌스를 책임자로 하여 아랍반란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제 로렌스는 누구를 진정한 동반자로 택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했다. 로렌스는 당시 63세인 세리프 후세인은 완고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영국의 간여를 근본적으로 싫어하기에 동반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작전에 배제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면 그의 4명의 아들 중 택일하여야 만 했다. 첫째아들(Ali)은 당시 폐결핵 환자였고, 막내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기에 둘은 실격이었다. 그러면 둘째(Abdullah)와 셋째(Faisal) 중에서 택일하여야 했다. 압둘라는 1차 대전 전에 벌써 스토스에게 반 오스만 반란을 위하여 무기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는 독립심이 강하지만 거들먹거리는 성격에다가 반란을 하나의 비즈니스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로렌스를 의심하는 눈치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는 히자즈 지역과 예멘을 통일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로렌스에게는 부담이 되었다. 파이잘은 로렌스가 하지즈 정찰시기에 만났으며 야망이 있고, 베두인 군에서 인기가 있으며 카르스마가 넘치는 인물로 보았다.¹³⁾ 그러나 그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성격이 강인하지 못하여 주위환경에 휩쓸릴 수 있는 인물이라 평하였다. 모두 문제가 있지만 로렌스는 이 중에서 파이잘을 그래도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생각하였다.

로렌스가 파이잘을 택한 또 다른 이유는 파이잘이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의 도시에서 아랍민족주의 비밀운동가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로렌스는 아랍민족주의자들을 규합하기에 파이잘이 적격이며 다마스쿠스를 먼저 점령하여 범아랍국가 건설을 선포하면 프랑스의 시리아에 대한 욕심을 차단하기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로렌스와 파이잘의 연합은 아랍반란을 재 점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17년 1월 파이잘의 베두인 군을 대열을 정비하여 복진하기 시작하면서 메디나 철로를 공격할 수 있는 거리인 홍해 연안의 항구인 와즈흐(Wajh)를 점령하였으며, 4월에는 아카바를 공격할 수 있는 거점인 와디 시르한(Wadi Sirhan)에 도착하였다. 와디 시르한에서 부족장 아우다 아부 타이(Auda abu Tayi)의 도움으로 7월 6일에는 아카바를 점령하게 되었다. 카이로의 영국군 수뇌부도 놀랄 만큼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거둔 것이었다.

로렌스는 파이잘의 군과 협조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항상 사이크스-프코 비밀협정이 마음에 걸렸다. 그 이유는 다마스쿠스를 먼저 점령한다하여도 사이크스-프코협정이 실행될 경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렌스는 희망을 가졌다. 이 협정은 비밀로 체결되었기에 공개될 경우 이에 대한 반대세력이 많을 것이며, 당시 반제국주의적 물결이 일고 있었기에 영국과 프랑스도 이러한 조약에 관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다마스쿠스를 먼저 점령하여 현지인들의 지지를 규합하면 시리아에 아랍 국가의 건설도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2. 사이크스-피코비밀협정의 전개과정

아카바 점령 후 로렌스는 카이로에 와서 새로 부임한 이집트 영국군 사령관 알렌비(Admund Allenby)장군을 면담하였다. 알렌비의 가장 큰 임무는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런던을 출발하기 전에 수상(Lloyd George)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수상의 수석 군사보좌관(William Robertson)은 알렌비에게 팔레스타인 침공은 단순히 서부전선의 승리를 위한 기만전술이기에 예

13) 로렌스는 이 당시 파이잘을 사막을 불지를 수 있는 사람(The man who can set the desert on fire)이라고 평가하였다. Scott Anderson, *Lawrence in Arabia*, New York: Doubleday, 2013, pp. 111-112 참조.

루살렘점령을 서두르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므로 알렌비는 이집트에 부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중이었다. 로렌스는 이러한 알렌비의 고민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로렌스의 제안은 만약 영국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시 오스만군은 히자즈 철로를 이용하여 사해 남동쪽에 군사와 군수물자를 집결시켜 이집트와 가자 지역 사이로 반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아카바 근처의 철로를 게릴라작전으로 공격하여 오스만군의 반격을 저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알렌비는 처음에 의아했으나 결국 로렌스의 제안을 본국에 타전하였다. 알렌비 입장에서는 사해의 동/서에서 영국군과 아랍군이 공동작전을 벌이는 것이고 본인 휘하에 로렌스와 파이잘을 둔다는 것도 괜찮은 일이었다. 또한 아랍 베두인군이 성공하여 히자즈와 시리아 지역에서 오스만 군을 격퇴할 시에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로렌스도 아랍 베두인 군을 활용하여 전공을 거둘 경우 아랍인들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희망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알렌비와 로렌스는 상호 협조하는 관계가 되었다.

1917년 8월 영국에서 알렌비에게 지령이 떨어졌다. 그 내용은 로렌스의 아카바 점령을 최대한 활용하여 팔레스타인 점령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다. 한편 프랑스는 로렌스에게 프랑스군 연락장교를 동행시키길 원했지만 알렌비는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만약 로렌스가 작전 중에 사이크스-피코 협정에 명시된 프랑스 영역에 들어갈 경우 본인이 직접 프랑스에 통보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로렌스가 아카바에 귀환하였을 때 베두인 군들 사이에는 분열이 일고 있었다. 특히 시리아 출신과 이라크 출신 베두인들이 군사작전에서부터 인금에 이르기까지 일치하는 점이라곤 하나 없이 이전투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렌스는 실망하지 않고 이들을 규합하여 히자즈 철도를 이용하는 오스만 기관차와, 철교, 물 공급시설 등을 파괴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10월 로렌스가 아카바로 돌아오자 알렌비가 만나자는 소환장이 와 있었다. 알렌비의 요구는 10월 말경에 가자 지역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첩보에 의하면 그곳에 오스만 군이 2배로 증원되어 있기에, 더 이상의 증원군이 못 오도록 다마스쿠스와 팔레스타인을 연결하는 철로를 폭파하라는 것이었다, 의논결과 야르묵(Yarmuk)계곡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내려오는 철교를 폭파하기로 하였다. 이 지역은 오스만군의 주요 거점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형이 험악하기에 가장 위험한 작전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이 지역은 사이크스-피코 협정에서 영국과 프랑스 영향권의 경계지역이기도 하였다. 11월 7일 로렌스일행은 야르묵계곡에 도착하여 철교 폭파작전에 돌입하였으나 한 대원이 소총을 떨어뜨리는 소리에 오스만 군에 발각되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수일 후 로렌스는 증원 군을 싣고 이 지역을 지나는 오스만 군용열차를 파괴하면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11월 26일 로렌스일행은 아카바로 귀환하였다.

이 당시 알렌비의 영국군도 가자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에 진격해 있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오스만 군은 계속 운행 중인 히자즈철로를 이용하여 북부 팔레스타인 지역에 증원군과 군수물자를 집결하고 있었다. 알렌비 군은 예루살렘과 근접한 거리에서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12월 초 오스만 군이 북쪽으로 철수하면서 알렌비 군은 12월 11일 자파문(Jaffa Gate)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하게 되었다. 알렌비의 행렬에는 로렌스와 피코 등이 동행했다. 점심식사 시간에 피코는 내일부터 예루살렘 통치를 위한 시민정부 구성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알렌비는 군사작전 지역에서는 본인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피코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한편, 1918년 3월 서부전선에서 독일군의 춘계 대공세가 시작되자 영국정부는 알렌비의 정예군 중 6만 명을 서부전선 방어를 위하여 유럽으로 이동시킬 것을 명령하였다. 그 결과 알렌비 군은 크게 위축되면서, 더 이상 큰 작전을 실행하기에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알렌비는 여름을 피하여 가을까지 작전을 보류하고

군을 재정비하기로 하였다. 특히 낙타부대를 해체하고 기마부대를 증원하고 군수물자를 비축하면서 앞으로의 전략을 재정비하였다. 이러한 알렌비에 로렌스는 다라(Dara)를 공격하기 위하여 2,000마리의 낙타를 요구하였다. 다라는 다마스쿠스에서 남쪽으로 80마일 거리로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남부로 연결되는 철도의 중심지였다. 그러므로 로렌스는 알렌비 군이 북상하기 전에 오스만 군의 보급로인 철로 망을 파괴할 목적이었다. 알렌비는 이러한 로렌스의 건의를 즉석에서 받아들였다. 로렌스 본인은 다라 지역이 사이크스-피코협정에서 프랑스 영역에 포함되어 있기에 이러한 작전으로 아랍 베두인 군이 먼저 시리아 지역을 점령할 경우 차후 아랍인들이 시리아에 대한 통치권을 요구하는데 중요한 밑받침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당시 국제정치 상황은 사이크스-피코 협정에 관하여 매우 부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갔다. 1917년 10월 러시아의 볼셰비키(Bolshevik) 혁명이 성공하면서 제정러시아가 타국과 맺은 모든 비밀조약을 폭로하면서 사이크스-피코협정도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다.¹⁴⁾ 1918년 초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 14개 조항을 발표하면서 제12조항에서 오스만제국이 해체될 경우 터키도 주권국가가 되어야하며, 기타 아랍 지역도 민족자결주의에 준하여 아랍인들의 미래는 그들이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반 제국주의적 분위기가 확산되자 영국의 노동당은 로이드 조지 수상에게 영국의 제국주의적인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내외적인 변화에 사이크스와 피코도 심경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사이크스는 이러한 반 제국주의적 국내외 분위기에 순응하고자 식민주의는 미친 짓(madness)이며 사이크스-피코협정은 반동적 조치(reactionary measure)였기에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⁵⁾ 이러한 심경변화를 겪은 사이크스는 1918년 8월 사이크스-피코협정을 수정하여 아랍인들에게 제시할 조건을 재정비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당시 외교부 차관이든 로버트 세실(Robert Cecil)은 프랑스에 할당한 지역에 영국군이 먼저 진입한 후에 피코와 재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의 의도는 영국이 먼저 점령한 후에 프랑스와 협상하는 것이 프랑스를 설득하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협상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로렌스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반겼다.

1918년 9월 16일 로렌스는 1,000여명의 베두인 낙타부대를 이끌고 다라공격에 나섰다. 이들은 다라의 철로 망을 서쪽과 남쪽에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하였다. 로렌스의 전쟁기간 아카바 점령이 서막이었다면, 이번 작전은 클라이맥스라 할 정도로 대대적인 성공이었다.¹⁶⁾ 9월 19일 알렌비 군은 진격을 시작하여 나사렛(Nazareth)을 거쳐 다라에 도착하였다. 알렌비가 다라에 도착하였을 때는 벌써 아랍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다. 이는 로렌스가 아랍인들의 시리아 통치권을 주장하기 위한 속셈이 현실화된 것이었다.

프랑스는 9월 20일 그들의 정보장교(Antonin Jaussen)를 통하여 로렌스가 다라 지역의 철로를 폭파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프랑스는 그들의 주 영국 대사 캄본(Cambon)에게 발 포어 외무장관에게 사이크스-피코협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게 하였다.

오스만군은 영국군이 다라를 점령하자 10월 1일 다마스쿠스에서 철수하였고 로렌스와 아랍 베두인 군은 이곳 아랍인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다마스쿠스에 무혈 입성하게 되었다.¹⁷⁾ 알렌비 군은 아랍인들이 먼저 도시에 입성하게 진군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었다.

그러나 로렌스와 아랍 베두인 군이 다마스쿠스를 점령하였지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는 사이크스-피코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었다. 아랍인들이 다마스쿠스의 통치권을 주장하지만 사이크스-피코협정에서

14) 1917년 10월 혁명으로 볼셰비키가 이 협정을 폭로하면서 "영국은 당황했고 아랍은 경악했으며 터키는 기뻐했다."라고 전해졌다.

15) James Barr, *A Line in the Sand: The Anglo-French Struggle for the Middle East, 1914-1948*,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12, p. 51-52.

16) 다라 작전에 관하여 Ronald Florence, *Lawrence and Aaronsohn*, New York: Penguin Books, 2007, pp. 306-321 참조.

17) 이 당시 로렌스와 스티어링은 롤스로이를 타고 입성하였다.

는 프랑스가 이곳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발 포어는 차관인 세실과 달리 다마스쿠스문제로 프랑스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이크스-피코협정을 준수할 것을 알렌비에게 지시하였다. 그 결과 알레비는 파이잘과의 면담에서 프랑스가 시리아의 보호국이라고 말하였다. 당연히 파이잘은 노하였고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아랍인들은 이러한 영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었고 절망과 배신감에 다마스쿠스는 혼란해지기 시작하였다. 알렌비는 이러한 아랍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사이크스-피코협정을 부드럽게 설명하였다. 아랍인들은 다마스쿠스 동쪽을 통치하고 프랑스는 레바논 쪽 해안지역을 잠정적으로 통치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할은 단기적인 임시방편이라고 주장하였다.

로렌스는 이러한 영국정부의 결정에 분노하여 10월 4일 런던으로 출발하였다. 로렌스는 영국이 아랍인들에게 한 약속을 위배할 경우 대영제국의 체면이 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반되는 약속을 한 것이 알려지면 영국은 전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사이크스-피코협정은 현지 상황에 의하여 벌써 무시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파이잘과 그의 형제들이 오스만제국의 아랍 영토를 통치해야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의 영국행은 3주가 소요되었고 그사이에 또 다른 변수가 개입되게 되었다.

VI. 전쟁말기와 종전 후 전개과정

1918년 10월 6일 영국 수상 로이드는 오스만제국의 붕괴가 확실시 되자 프랑스와 전후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파리에 있었다. 로이드는 발 포어가 알렌비에게 사이크스-피코협정을 준수할 것을 지시한데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으며 현 상황에서 이 협정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영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지 않던 조약이라는 것이다. 또한 로이드는 오스만제국의 붕괴에 영국이 가장 공헌하였기에 영국이 최대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 협정을 준수할 것을 영국에 재차 요구하였다. 로이드는 프랑스 측에 사이크스-피코협정을 재조정할 것과 프랑스는 시리아에 대한 통치권을 포기하고 팔레스타인과 모술(Mosul) 지역의 통치권을 영국에 위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영국이 이 시점에서 모술을 들고 나온 이유는 이 지역의 석유매장 때문이었다. 당시 영국 전함은 석탄과 석유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석탄광산은 영국이 보유하고 있지만 석유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석유를 사용할 경우 석탄에 비하여 4배 이상의 효율이 있기에 차후 전 함대를 석유엔진으로 개조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영국이 해양대국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석유자원의 확보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대공세를 겨우 방어할 수 있었기에 전쟁이 최소한 1년 이상 더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당시 영국군의 계획은 바스라(Basra)에서 바그다드를 거쳐 키르쿠크까지 진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는 사이크스-피코협정을 준수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석유 매장지가 더 북쪽인 모술 지역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전쟁 종결 전에 모술 지역을 점령하기를 원한 것이다.

그러나 모술 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사이크스-피코협정에 위배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국주의적 욕심에 대하여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문제가 되었다. 로렌스는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아랍 국가건설을 주장하였다. 로렌스는 세실과의 면담에서 모술을 포함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랍 국가의 건설을 요구하였고 그 지도자로는 압둘라가 적격이라고 권고하였다. 영국의 동방위원회(Eastern Committee)도 로렌스에게 아랍지도자들의 의견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로렌스는 파이잘을 예로 들면서 아랍지도자들의 영국에 대한 지지는 영국이 프랑스의 시리아 통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 9일 영국과 프랑스는 영-불선언(Anglo-French Declaration)을 통하여 오스만제국의 아랍 지역에 아랍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선언은 아랍인들의 축제분위기를 만들었다. 당시 국제적인 분위기가 반 제국주의적인 정서가 높았기에 영국도 아랍 국가 건설에 대한 지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발 포어는 12월 12일 파이잘, 하임 와이즈만과 면담하면서 히자즈와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확정하기를 권고하였다, 그 결과 1919년 1월 3일 두 사람은 평화회담이 끝나면 히자즈와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확정짓기로 합의하였다.¹⁸⁾ 이러한 합의를 통해 아랍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합법적 존재를 인정한 서류라고도 한다. 그러나 당시에도 파이잘은 영국으로부터 월 15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 있었기에 영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영국수상 로이드는 평화회담에서 미국이 간여하기 전에 모술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매듭짓기를 원하였다. 프랑스는 1871년 독일에 상실한 알사스-로레인(Alsace-Lorraine) 지방을 수복하는 것이 우선과제이었기에 영국의 지원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로이드는 이러한 프랑스의 의도를 역이용하여 시리아에 대한 프랑스의 욕심을 포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당시 프랑스 수상(Georges Clemenceau)은 일반 프랑스 관리와는 달리 시리아뿐만 아니라 중동에 관하여 큰 관심이 없었다. 12월 1일 평화회담 준비 차 영국에 온 프랑스 수상에게 로이드는 비공개 회합에서 영국의 모술과 예루살렘에 대한 통치여도를 전하였고 프랑스 수상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열렬한 제국주의자인 그의 외교부장관(Pichon)이 모술에 관하여서는 이의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1919년 1월 12일 프랑스 외교부장관 집무실에서 승전 5개국 지도자들이 모두 모였다. 영국과 프랑스 수상, 미국 대통령 윌슨, 그리고 이탈리아와 일본 수상도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프랑스 외교부장관은 전쟁기간에 프랑스인 1백40만 명이 사망하고 3백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으며 전비로 인하여 70억 달러의 빚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후 제국주의적 확장만이 프랑스가 재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였다. 프랑스 수상은 오스만제국의 아랍영토를 시리아,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로 3분하여 국제연맹의 관리 하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분할 통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첫 회합에서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

당시 영국은 평화회담에 파이잘을 참석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프랑스가 의도적으로 이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끈질긴 노력 끝에 2월 6일 평화회담에서 파이잘이 연설할 기회를 얻었다, 파이잘은 전쟁기간에 오스만 군을 격퇴하는 데 영국의 협조에 감사하면서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지역은 별도로 하고 기타 아랍 지역에서는 아랍 독립국가의 건설을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프랑스 수상은 로이드와의 약속을 어기고 시리아의 프랑스 통치권을 재차 요구하였다.

서로간의 주장에 엇갈리자 양국가는 언론을 동원하여 상호 비방을 시작하면서 회담이 답보상태로 흘렀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두 국가는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적 통치주장을 포기하고 모술을 영국에 양보하였다. 단지 시리아에 대한 통치권만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영국도 시리아 내륙과 해안지역을 프랑스통치 하에 두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사이크스-피코협약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석유의 중요성을 알아차린 프랑스가 모술지역의 석유에 대하여 반반씩 분배할 것을 주장하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프랑스 정부 내에서의 의견 불일치를 감지한 영국은 모술에서 석유를 지중해 연안까지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설치에 팔미라(Palmyra) 지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팔미라가 모술의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영국의 주장에 프랑스 수상은 로이드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면서, 지난 12월 개인적인 회합에서 로이드가 프랑스의 시리아 통치권에 합의한 사항을 위배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18) James Barr, *A Line in the Sand: The Anglo-French Struggle for the Middle East, 1914-1948*,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12, p. 62.

이와 같이 회의가 답보상태를 거듭하자 미국 대통령 윌슨이 중재에 나섰다. 윌슨은 누가 통치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치 받는 국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윌슨은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여 각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자고 제의하였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현지 주민들이 외부세력의 통치를 반대할까봐 위원회 파견에 비협조적이었다, 이에 반하여 로렌스와 파이잘은 조사단 파견을 내심 반기면서 아랍 국가건설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가지게 되었다.

현지조사단은 6월 10일 팔레스타인에 도착하였고 그 후 다마스쿠스, 베이루트, 알레포 등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가 현지조사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위원회 대표는 단지 미국인 2명으로 구성되었다,¹⁹⁾ 이들의 목적은 문제가 되는 3개 지역을 영국과 프랑스 어느 쪽에 위임통치를 할당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영국은 위원회에 이라크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본국이 통치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영국은 프랑스의 시리아 통치를 막기 위하여 파이잘을 활용하였다. 파이잘은 시리아의회(General Syria Congress)를 구성하고 현지조사단이 다마스쿠스에 도착하는 날 프랑스의 통치를 반대하고 시리아의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에 프랑스의 시리아 위임통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미국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위임통치를 맡고 영국은 메소포타미아의 위임통치를 하는 것으로 건의하였다. 당연히 프랑스는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이 당시 영국에서는 전쟁으로 많은 전비를 지출하였기에 긴축재정정책과 경제회복이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었다. 특히 오스만제국 영토에 3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유지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 그 결과 당시 로이드 수상은 참모들과 논의 끝에 시리아에서 영국군을 철수시키고 시리아 문제는 프랑스와 파이잘이 협상하여 해결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9월 13일 로이드 영국 수상은 프랑스 수상과의 회합에서 양국의 우호관계가 시리아의 10배 이상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영국군이 11월 1일부터 시리아에서 전면 철수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9월 19일 파이잘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프랑스 수상은 선거철이 닥아오는 시기에 강경파들을 회유하고자 지체 없이 구로드(Henri Grouaud) 장군을 레반트 지역을 관장하는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to the Levant)으로 임명하였다.²⁰⁾ 11월 16일 부임지로 출발하는 구로드 장군에게 프랑스 수상은 당신의 임무는 지중해 심장부에 프랑스의 영향권 센터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명하였다.

1919년 11월 21일 구로드 장군은 베이루트에 도착하였다. 외관상으로는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지만 이는 베이루트에 있던 프랑스 관료들이 사전에 조장한 이벤트였다. 그러나 구로드는 약 3만 명의 군인을 대동하였기에 실제적으로 철수한 영국군의 자리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뿐만 아니라 시리아 북부지역은 당시 터키의 무스타파 케말(Mustafa Kemal) 군과 전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파이잘은 프랑스가 시리아 전 지역을 장악하는 것에 적극 반대하였다. 12월 14일 프랑스군과 아랍 베두인군이 백카(Bakka)계곡에서 충돌이 있었으며 이를 빌미로 구로드 군은 다음날 백카계곡으로 이동하여 바알백(Baalbeck)지역을 점령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파이잘은 파리에서 다마스쿠스로 급히 귀국하여 아랍민족주의자들이 프랑스군과의 적대관계를 자제해 줄 것을 설득하였으나 실패하자, 본인도 강력한 반 프랑ست통치로 선회하였다. 파이잘은 프랑스가 터키와의 전투를 위하여 활용하는 다마스쿠스와 알레포(Aleppo)를 연결하는 철로

19) *Ibid.*, p. 78. 미국 대표단은 Henry King과 Charles Cran 이었다.

20) Grauroud 장군은 그 당시 52세로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인이었다. 그는 WWI 전에 북부아프리카에서 프랑ست통치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평정시켰으며, 갈리폴리 전투에서 오른팔을 잃었다. 또한 그는 당시에도 미혼이었으며 수도자적인 절제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를 폭파하면서 반 프랑스노선을 확고히 하였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클레멘소(Clemenceau) 수상이 대통령 출마를 위하여 사임하면서 밀러란드(Alexandre Millerand)가 수상에 취임하였다. 1920년 2월 10일 신임 수상은 구로드 장군에게 파이잘이 치안유지를 못할 경우 프랑스 민간인과 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의 결정대로 작전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시리아의회는 1920년 3월 8일 파이잘을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으로, 형인 압둘라(Abdullah)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에미르(emir)로 추대하였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도 이러한 결정에 동의할 수 없었다. 특히 압둘라가 메소포타미아를 통치할 경우 영국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파이잘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경우 시온주의자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기도 했다. 이러한 염려 중에 4월에 예정된 산레모(San Remo)회의가 닥아오고 있었다. 영국은 이 회의에서 프랑스에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하고 있었다. 영국이 프랑스의 시리아 통치권을 인정할 경우 아랍인들의 반란이 염려되고, 인정하지 않을 시 프랑스는 팔레스타인의 국제적 통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레모회의에서 프랑스는 레바논과 시리아에 대한 통치권을 인정받았고, 영국은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위임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또한 영국은 모술 지역의 석유개발 이권의 1/4을 프랑스에 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로드 장군은 레바논에서 시리아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계속되는 소요사태를 진압하고 시리아 통치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불기피한 조치였다. 구로드 장군은 본국에 2개 사단의 증원군을 요청하고, 터키와는 휴전을 체결하였다. 구로드 장군은 파이잘에게 프랑스의 시리아 위임통치를 2일 안에 수락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고, 파이잘은 48시간의 연장을 요구하였다. 통첩이 지연되자 구로드 장군은 7월 24일 전격적으로 시리아로 진격하였고, 다마스쿠스 외곽의 마이사룬(Maysalun) 전투에서 파이잘 군을 제압하고 25일 프랑스군은 다마스쿠스에 입성하였다. 다음날 구로드 장군도 다마스쿠스에 도착하였다. 파이잘은 팔레스타인의 영국군 진영으로 피신하였다. 이로써 프랑스의 레바논과 시리아 국가 건설이 시작되었다.²¹⁾

VII. 결론

현재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이루어진 후세인-맥마흔 서한, 사이크스-피코비밀협정, 발포어선언 등은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성격이다. 이러한 모순된 협약들이 비록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명분하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결과는 현재까지도 중동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다. 특히 사이크스-피코의 비밀협정은 다분히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다. 전쟁도 끝나기 전에 오스만제국의 영토를 자기들 마음대로 지도상에서 선을 그어 분할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레바논과 시리아라는 인위적인 국가를 만들었다. 인위적인 국가이기에 국가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근본 요소들은 결핍되고, 필요 없는 요인들은 더 많이 포함되게 되었다. 그 결과 국가 건국이후 계속되는 정치불안과 종파 간, 부족 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국가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은 제국주의적 외세가 통치하면서 기존의 국민에게 분리 및 통치(divide and rule)의 수단을 적용하면서 더욱더 분열시킨 결과이다. 레바논은 1958년 준 내전상태로 돌입했으며, 1975년부터 1990년까지 15년간의 내전을 겪었다. 현재도 종파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시리아 또한 건국 시기부터 정치적 혼란의 연속이었으며 1940년대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쿠데타의 연속이었다. 현재는 더 큰 내전이 전개되고 있으며

21) 레바논국가의 건설과정은 박찬기 외, 『헤즈볼라, 하마스, 무슬림형제단 및 마흐디민병대』, 서울: 명진 C&I, 2009, pp. 38-41 참조.

IS(Islamic State)의 본거지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의 영국과 프랑스의 대 중동정책은 다분히 이들 국가의 제국주의적인 이해관계의 산물이었다. 프랑스는 서부전선의 핵심이 본국에 있었기에 서부전선에 더욱더 치중하였으며, 영국은 수에즈운하의 중요성으로 중동지역, 특히 레반트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러므로 영국은 레반트지역의 전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위하여 셰리프 후세인을 끌어들이었으며, 유대인을 활용하기 위하여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홈 랜드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또한 제국주의적인 이해관계를 버리지 못하여 비밀리에 사이크스-피코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협약들이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심각하게 고려했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점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 또한 오스만제국과의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중동지역에 진출하였으며 대전 초기부터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을 장악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경쟁구도는 전쟁기간 계속 유지되었으며, 토착민들의 안위는 안중에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위 아마추어 중동 전문가들에 의존하여 두 국가가 대 중동정치를 구상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사이크스-피코 비밀협정이 체결 된지 내년이면 100주년이 된다. 100년 동안에 이 지역은 어떻게 변했는가?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을 보면 그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아직도 제대로 된 국가로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의 정치적 불안의 씨앗이 이때 뿌려진 것이다. IS까지 사이크스-피코협정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뿌려 놓은 인위적 국가 건설의 문제가 먼 훗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3분과

- 발 표 “문학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의 문학 공간 답사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난아(계명대)

토 론: 장세원(단국대), 임병필(명지대), 양민지(한국외대), 김대성(한국외대)

- 발 표 “이슬람 페미니즘과 여성 시각에서 새로운 종교 텍스트 읽기”

김정명(명지대)

토 론: 안정국(명지대), 이원삼(선문대), 엄익란(단국대), 이복례(명지대)

- 발 표 “역사순환론으로 본 유라시아 대륙의 이슬람 문명”

김정하(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토 론: 송경근(명지대), 윤용수(부산외대), 김정아(한국외대), 신양섭(한국외대)

문학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의 문학 공간 답사 콘텐츠를 중심으로 -

이 난 아*

I. 서론

대중문화의 대두와 함께 고도로 발전한 전자영상 매체가 지금까지 활자매체의 총아로 군림해온 문학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이미지의 제국을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객관적인 현상이나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는 과학이나 역사보다 주관적 직관과 감성을 중시하는 문학이 오히려 우월하다고 주장해 온 것은 바로 문학이 지닌 상상력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문학은 독자로 하여금 자기반성과 내면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문학 작품을 통해 정신과 내적 대화를 나누는 행위야말로 광활한 인간의 정신세계를 탐색하는 지적 모험이며 내적 탐구이다.

급속도로 변하는 정보화, 다매체 그리고 문화 산업의 시대에 발맞춰 대학교육 현장에서도 문학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와 실습이 진행되고 있다. 종래의 수동적 텍스트 분석에 중점을 둔 문학 교육으로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이 문학으로 끌어당기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문학 교육 프로그램은 문학 텍스트에 묘사된 공간을 주로 기행하는 문학답사라고 할 수 있다. 답사는 단순히 주변의 풍광과 여흥을 즐기는 관광이 아니다. 기행이 대상 현장에 방문해 그 지역을 배우고 느끼는 학습이라면, 답사는 기행보다 더 적극적인 ‘학습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의 역동성과 현장성을 강조하여 문학을 ‘개인적인 독서체험에서 집단적인 활동체험으로 변화’시키고 ‘문학작품을 문화산업’에 적용시키려는 일련의 작업도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¹⁾

주지하는 바, 문학공간은 문학작품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등장인물들이 활동하는 무대 혹은 현장을 의미한다. 독자들은 문학 작품을 읽으며 머릿속에서 작품을 재현시키는데, 문학 공간은 이러한 재현 과정에서 작품 전체의 배경과 분위기를 형성하여 작가와 독자 간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독자들은 문학 작품 속 인물, 성격, 감정, 사건 그리고 분위기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문학 작품에서의 공간은 단순한 배경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고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특히 작품의 ‘총체적 이해’나 ‘구조적 이해’라는 맥락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²⁾

이 글에서는, 오르한 파묵(Orhan Pamuk, 1952~)이라는 작가를 탄생시킨 실제 배경이며, 오르한 파묵의 작품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이스탄불의 문학 공간을 교육 현장에 접목시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하는데 있어, 자전적이며 회고록 성격을 띤 에세이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을 연구 텍스트로 삼아 문학 교

* 계명대학교

1) 김명준, “문학공간에 대한 분석적 기술방법”, 『한국문학공간과 문학콘텐츠』, 청동거울, 2005, 33쪽.

2) 김종건, 『<구인회> 소설의 공간설정과 작가의식』, 새미, 2004, 19쪽.

육 콘텐츠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자전적 회고록이라는 특성 상, 작가의 실제 삶이 서술되기 때문에, 허구인 소설보다는 문학공간으로 등장하는 장소나 지역들이 실제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어 문학답사로서 최적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스탄불에서 나고 자란 과묵은 세계적으로 ‘터키 작가’라기보다는 ‘이스탄불 작가’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작가 스스로도 “나는 이스탄불 소설가입니다.”²⁾라고 말하며 자신의 문학적, 공간적 배경이 자신을 키운 도시 이스탄불임을 밝혔다.

오르한 과묵의 모든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다름 아닌 도시 ‘이스탄불’이다. 이스탄불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현재까지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과묵 역시 자신에게 있어 이스탄불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사람들은 상대방에게서 무엇인가를 알고 싶을 때 항상 ‘기원’을 묻곤 한다. 내게 있어 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남들이 내게 나의 삶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나는 40년 전에 이스탄불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스탄불에서 살며 여기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나는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쓰고, 이스탄불 거리를 걷습니다. (...)도시의 거리에서 걷고, 도시의 삶을 호흡하고 글을 쓰는 것. 이것이 나의 낙관적인 사고입니다.”³⁾라는 말로 시사하고 있다.

문학답사는 작품 속 배경이 되는 장소를 체험함으로써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작가의 확장된 삶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 속 공간의 해석하면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고, 사고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작가와 독자와의 공감 및 소통을 가져와 감정의 공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금의 문학 교육이 지향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II. 자전적 에세이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

터키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지형적 특징으로 대륙과 문명과 역사를 잇는 중요한 길목이며, 네 개의 바다 - 에게 해, 지중해, 마르마라 해, 흑해 - 로 둘러싸여 있는 자연환경 때문에 동·서양 문화의 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터키를 대표하는 이스탄불은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 사이 즉, 두 개의 대륙에 속해 있는 세계 유일의 도시이며, 그 도시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보스포루스 해협은 흑해, 마르마라 해 그리고 골든 혼 만(灣)으로 이어져 있다.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인류 역사상 거대하고 빛나는 문명을 이룩한 제국들의 수도라는 역사적 배경,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적인 성지라는 과거의 영광을 기려 어떤 시인은 이스탄불을 ‘물의 화환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라고 일컫기도 했다.

역사에 관해 약간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 이스탄불은 동로마 제국과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수도였던 도시다. 이 때문에 이스탄불에는 과거의 찬란하고 영화로웠던 유산이 도시 전체에 산재해 있으며, 대제국의 수도였던 영예와 더불어 시간이 축적한 고풍스러움과 그 숨결이 고스란히 숨 쉬고 있다. 이 때문에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스탄불을 일컬어 ‘인류 문명이 살아 있는 거대한 옥외 박물관’이라고 언급했을 것이다. 토인비의 이 말은 이스탄불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반면, 우리가 답사하고자 하는 이스탄불은 이러한 과묵만장했던 역사의 현장 혹은 동·서양 문화의 교차로로서의 장소가 아닌 오르한 과묵의 텍스트에 나타난 문학 작품의 공간이다. 과묵은 이스탄불을 이러한 화려한 제

2) Orhan Pamuk, *Öteki Renkler*, İletişim Yayınları, İstanbul, 1999, p.295.

3) 위의 책, p.45.

국의 중심으로 묘사하지 않고, 폐허의 정서가 감도는 음울한 분위기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건 어쩌면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스탄불의 몰락이 부여한 비애의 감정이 이입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로서의 정체성은 자연스레 이스탄불과 동일시된다. 문학과 도시의 상관관계는 오르한 파묵과 이스탄불이라는 관계를 넘어 세계 유수의 여러 작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제임스 조이스라는 작가의 작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작품의 토대가 된 도시 더블린을 떠올리며, 카프카에게는 프라하, 랭보에게는 파리를 연상하며 그 작품의 존재 의미를, 등장인물과 시간의 존재 의미를 가능하게 만든 공간을, 즉 도시라는 존재와 자연스럽게 맞닿트린다. 도시는 문학이라는 예술에서 단순히 공간적 배경을 담당하는 역할을 넘어 작가나 등장인물이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문학적 체험을 가능케 하는 영감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한 마디로 파묵이라는 작가의 정체성이자 내적 감수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은 단순한 도시 관광 가이드북이나 작가 개인의 사적인 기록을 나열한 자서전⁵⁾이나 회상록 차원을 뛰어 넘는 도시와 개인사를 병렬하여 다룬 작품이다. 이러한 특징에 대해 파묵은 이 작품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우리 작은 가족이 여기 저기 군열과 파열로 부스러지며 가난해져 붕괴되고 있을 때, 할머니 집을 방문할 때마다 내 마음 속에는 어떤 슬픔이 일었다. 오스만 제국의 몰락이 이스탄불에 부여한 의기소침과 상실감 그리고 비애감이 또 다른 구실로 약간은 뒤늦게, 결국 우리 가족에게도 찾아왔던 것이다.”⁶⁾

이렇듯 이 작품은 단순히 이스탄불을 개인적 기억이나 추억이라기보다는 역사적 흐름과 가족사를 맞물려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의 역사가 축적되어 역사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하듯.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은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의 1인칭 시점에서 자신의 과거(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이스탄불 변천사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즉, 작가로서의 성장과정, 가족사, 개인사 등이 한 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자신이 어떻게 체화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파묵은 “콘라드, 나보코프, 나이폴처럼 언어, 국민, 문화, 나라, 대륙, 더욱이 문명을 성공적으로 바꾸면서 글을 쓴 작가들이 있다. 그들이 창조적 정체성을 유배 혹은 이주에서 얻었던 것처럼, 내가 항상 같은 집, 거리, 풍경 그리고 도시에 매여 사는 것이 나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스탄불에 대한 이 예속감은, 도시의 운명도 사람의 성격이 된다는 의미이다.”⁷⁾라고 서술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스탄불은 그의 작가적 정체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이 자전적 회고록이라는 성격상 개인의 삶이 부각되고 있으며, 파묵의 실제 체

4) 이난야, “도시와 문학: 오르한 파묵의 『이스탄불-도시 그리고 추억』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제32호, 2008, 203쪽; 한국 문단의 경우를 보면,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 서울의 일정한 장소를 택하고 있지만, 이 작품들은 대부분 서울이라는 도시 그 자체가 텍스트의 주인공이 아니며, 단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만이 묘사되고 있다. 이밖에도 박태원의 소설에 등장하는 종로나 황석영 소설의 삼포, 김승옥의 무진, 이순원의 수색 등 여러 공간적 배경을 일례로 들 수 있겠으나, 등장인물과 도시라는 배경 그리고 이야기가 하나로 완전히 맞물려진 작품을 찾기는 힘들다. 위의 글 209~210쪽.

5) 르퀼나가 규정한 자서전에 대한 정의는, “개인의 삶, 특히 자신의 성격의 스토리에 초점을 두어서 누군가 자신의 존재로부터 만들어내는 산문으로 된 회고록 이야기” 곧 자서전의 형식이자, 작가, 서술자 그리고 주인공이 동일한 인물임을 말한다. 최경도, “전기, 자서전, 소설: 자기표현 양식의 변화”, 『외국문학연구』, 제 3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8, 124쪽.

6) 오르한 파묵,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 민음사, 2008, 35쪽.

7) 오르한 파묵,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 민음사, 2008, 19~20쪽.

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주관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파묵은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객관적 사실들을 묘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무척 내밀한 경험과 감성적인 사적인 기록과 함께 네르발, 고티에, 플로베르 등의 이스탄불에 관한 글, 멜링의 회화를 통해 이스탄불을 객관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이 작품에서 파묵은 현재의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를 ‘비애’ 혹은 ‘몰락’이라는 단어로 요약한다.

“한편 이 죽은 문화, 몰락한 제국의 비애는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이는 내게 서구화와 현대화 바람보다는 몰락한 제국이 남긴 슬픔을 안겨 주었고, 가슴 아픈 기억들로 가득 찬 물건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허둥거리는 느낌을 주었다. 갑자기 죽은 아름다운 애인이 남겨 놓은 파멸적인 추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옷, 장신구, 물건, 사진들을 다급하게 버리는 것처럼. 그 자리에 강하고 새로운 것, 서구적 혹은 토착적인 현대적 세계를 건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노력은 더더욱 과거를 지우는 셈이 되었다. 저택들은 불타고 허물어졌으며, 문화는 단순화되고 불완전해졌고, 집 안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문화의 박물관처럼 정렬되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서서히 나의 내면에 영향을 미친 이 모든 이상함과 슬픔을 나는 답답함과 침울함으로 어린 시절에 경험하게 되었다.”⁸⁾

파묵이 이스탄불을 몰락의 이미지, 비애의 이미지로 느꼈던 것은 찬란했던 오스만 튀르크 제국 시절 삼 대륙을 호령했던 힘과 화려함은 사라지고, 무기력감, 패배감, 가난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스탄불 도시 전체에 대해 느꼈던 이 부정적인 인식들은 오히려 그에게 작가로서의 창작의 근원이 되어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 하는 데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은 특이할 만하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오히려 그가 이스탄불을 얼마나 사랑하는 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에서는 이스탄불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다. 이 작품이 자전적 회고록이지만 작가인 오르한 파묵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스탄불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구성이라는 의미이다.

파묵은 이 작품에서 서양인 관찰자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스탄불을 과장하여 이국적으로 만든 ‘관광지로서의 이스탄불’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작품에 텍스트에 묻어나는 파묵 고유의 감성을 문학 공간 답사 콘텐츠에 반영할 계획이다. 즉,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이 세계적인 작가가 된 한 인물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작품에 서술된 공간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문학교육 현장에 연계하면, 학습자들은 작가의 경험이 이스탄불이라는 문학공간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 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작품은 난해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경감시키고, 오르한 파묵의 작품에 더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일 것이다. 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장소를 답사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오르한 파묵의 문학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사료되는 주요 공간들을 선정했음을 밝힌다.

현재, 명소화 된 문학공간이 그 지역의 관광자원 수준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양태의 문화적 생산물을 파생시키면서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적 생산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추세임을 염두에 둘 때, 우리 학계나 문학 교육 현장에 세계의 다양한 문학 공간 콘텐츠 사례를 제시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III.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의 답사 공간

한 작가가 창출한 파급력이란 때로 상상을 초월하기도 한다. 『이스탄불-도시 그리고 추억』을 읽은 독자들

8) 오르한 파묵,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 민음사, 2008, 51~52쪽.

은 파묵이 서술한 이스탄불을 보기 위해 이스탄불 여행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최근 터키의 한 유력 일간지인 <히리예트 Hürriyet>에는 “스웨덴에서 이스탄불로의 오르한 파묵 여행”이라는 머리기사에서 “오르한 파묵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터키 특히 이스탄불에 대한 스웨덴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되었다(...) 특히 파묵의 『이스탄불-도시 그리고 추억』이 번역 출판된 후 스웨덴 사람들의 터키 방문이 급증했다.”⁹⁾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이는 한 작가의 작품이 지역 관광 자원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문학기행 혹은 문학 답사의 유형은 크게 ‘문학창작의 영감을 얻기 위한 작가의 여행’, ‘독자가 책을 통해 수행하는 가상의 여행’, ‘작가나 작품과 관련된 특정 지역을 여행하면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¹⁰⁾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이 글은 세 번째 유형 즉, ‘작가나 작품과 관련된 특정 지역을 여행하면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 해당되며, 작품의 배경이 된 공간을 찾아 가는 여행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허버트에 의하면 답사자들은 “첫째, 관광객들은 작가의 삶과 관련된 장소들(예를 들면 출생지, 혹은 집필 장소)을 방문함으로써 향수를 느끼거나 경의를 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관광객들이 문학기행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곳이 어떤 소설의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관광객들은 특정한 작가나 이야기보다 색다르고 깊이 있는 감정을 경험하기 위하여 관광지를 찾는다. 마지막으로 관광객들은 작품 자체보다 작가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곳을 둘러보고 싶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를 방문한다.”¹¹⁾ 같은 이유로 문학 기행 혹은 답사를 한다고 한다.

더 나아가 역사 이래로 터키가 겪고 있는 동양과 서양 문명의 충돌을 특히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파묵이 말하고자 했던 정체성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자전적 에세이라는 작품의 특성상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어 있어, 작가의 경험 공간을 실제 답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작품에는 파묵이 이 작품에서 묘사한 공간들, 예컨대 파묵의 성장한 니샨타쉬 구역과 파묵 아파트(『체브테 씨와 아들들』, 『검은 책』, 『순수 박물관』 등 파묵의 거의 모든 작품의 배경이 된 공간),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된 보스포루스 해협, 베이올루와 탁심 광장, 목조 가옥들, 비잔틴 유적들과 이스탄불 변두리 마을 뿐 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이자 역사적 공간들인 성소피아 박물관, 톱카프 궁전, 술탄 아흐메트 사원 등이 묘사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묘사되는 문학공간을 다 다루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지면상 작품에 묘사되는 구체적 공간인 ‘작가의 경험 공간’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며, ‘역사적 공간’은 다른 지면에서 다룰 것임을 밝힌다.

3-1. 보스포루스

보스포루스 답사는 자연탐방과 결합된 문학 공간 루트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연환경과 작가 그리고 작품을 연결시켜 이해한다면 작품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다. 보스포루스 공간은 파묵의 많은 작품에 등장하는 빼놓을 수 없는 문학 공간이다. 일례로 소설 『순수 박물관』에서는 주인공 케말이 약혼녀와 함께 도피의 장소를 보스포루스에 있는 별장에서 머무는 장면이 나올 뿐 만 아니라, 케말이 사랑했던 여자인 퀴순과 데이트를 즐겼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 소설의 한 챕터에 “보스포루스의 밤, 후주르 식당”이 있을 만큼 이스탄불과 파묵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9) <http://arama.hurriyet.com.tr/arsivnews.aspx?id=8501782>, 2008 3월 20일자.

10) 손정훈, “프랑스의 문학기행루트”,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010, 657~658쪽.

11) 이진형, “문학 기행객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참여 동기에 따른 마케팅적 함의”, 『관광학연구』 제 28권 3호, 한국관광학회, 2004, 108~109쪽.

보스포루스 해는 지중해와 흑해를 이어주고, 유럽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해협이다. 이 해협에 1973년에 ‘보스포루스 대교’, 1988년에 ‘파티흐 술탄 메르메트 교’가 건설되면서 두 대륙은 연결되어 왕래하기 시작했다.

오르한 파묵은 보스포루스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작품 곳곳에서 묘사하고 있으며,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인 문학 공간이다. 작품 내에서 보스포루스를 전면에 내세운 챕터는, “제 6장: 보스포루스 탐험”, “제 7장: 벨링의 보스포루스 풍경”, “제22장: 보스포루스를 지나가는 배들, 화재, 가난, 이사 그리고 다른 큰 재앙들”, “제30장: 보스포루스 위에 떠 있는 배에서 나는 연기” 등이 있다.

보스포루스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바라보며 자랐던 공간이다. 파묵은 보스포루스를 지나가는 배들이 굴뚝으로 뿜어내는 연기가 도시로 퍼지는 모습을,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보스포루스의 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거리며 색을 바꾸는 모습을 좋아했다.

파묵은 보스포루스는 이스탄불의 혼이며 힘이라고 말하며, 작품 전체에 깔려 있는 ‘비에’, ‘멜랑콜리’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서술하고 있다.

“도시가 패배, 파괴, 좌절, 침울, 빈곤으로 은밀히 찢고 있는 반면, 보스포루스는 삶에 대한 애착, 흥분, 행복감으로 내 머릿속에서 깊이 합치되었다. 이스탄불의 혼과 힘은 보스포루스에서 비롯된다.”¹²⁾

12) 오르한 파묵,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 민음사, 2008, 75쪽.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가르는 보스포루스 해, 사진출처: 필자〉



“보스포루스에서 노니는 즐거움이란, 거대하고, 역사적이고, 방치된 도시 속에 살면서 깊고, 힘차고, 변화무쌍한 바다의 자유와 힘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이다. 보스포루스의 급류에서 빠르게 전진하는 여행객은 복잡한 도시의 더러움, 연기, 소음의 한가운데서 바다의 힘이 자신에게 전이되고, 그 모든 군중, 역사, 건물 속에서 여전히 홀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¹³⁾

『이스탄불-도시 그리고 추억』에서 이스탄불은 전반적으로 상실의 이미지, 멜랑콜리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지만, 보스포루스를 서술하는 지면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 자유의 에너지가 분출하고 있다.

“어린 시절 모두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갔을 때도 느꼈던 보스포루스의 즐거움 중 하나는 이곳에서, 오스만 제국의 문명과 문화가 서구의 영향 아래 들어가긴 했지만, 자신의 고유함과 힘을 잃지 않은 매우 변창한 시기의 유적들을 보는 것이었다. 페인트칠이 벗겨진 해안가 저택의 멋진 철문, 여전히 건재 하는 이끼가 낀 두껍고 높은 벽, 아직 불에 타지 않은 창문 덧문, 목공 기술, 혹은 해안 저택들 뒤에 있는 높은 언덕까지 펼쳐져 있으며 유다 나무, 소나무, 100년 된 플라타너스로 뒤덮인 어둠 속 정원들을 보고는 시대를 마감하고 남긴 휘황찬란한 문명의 흔적들을 감지하곤 했다.”¹⁴⁾

〈보스포루스 해안 저택들, 사진출처: 필자〉



이렇듯 보스포루스에서 과거의 영광스런 역사의 흔적들을 슬픈 회상을 하며 보는 것도 피할 수 없지만, 해안

13) 위의 책, 79쪽.

14) 위의 책, 80~81쪽.

저택 등 예로부터 부유한 사람들의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여름 별장 등의 역사적 건물들을 보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파묵은 보스포루스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스포루스 해안 주택들을 통해 이미 지나가버린 화려한 제국의 역사를, 한탄만 하지 않고 함께 품는다. 이는 배를 타고 파리의 센강을 둘러보면, 아름다운 유적지와 함께 파리지엔의 삶에 에너지와 기쁨을 그곳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보스포루스는 내게 여전히 어린 시절의 보스포루스와 같다. 그러니까 내게 보스포루스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도시와 삶을 건재하게 만드는 무한한 어떤 선(善)과 긍정의 원천이다. 나는 때로 이렇게 생각한다. ‘삶이 그렇게 최악일 수는 없어. 여전히 보스포루스로 산책 나갈 수 있으니까.’”¹⁵⁾

파묵에 의하면 보스포루스는 치유와 위로의 공간이자, 선과 긍정의 원천이다. 대도시에서 살면서 갖가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지만, 보스포루스를 바라보거나 산책을 하면 괴로운 일상생활을 잊고 새로운 활력소를 찾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자유와 일탈, 더 나아가 도피의 공간이기도 하다.

오르한 파묵은 보스포루스의 멋진 해안 저택 등은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곳은 이스탄불 사람들에게 있어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보스포루스는 작가가 이스탄불에 대해 느끼는 비애와 멜랑콜리의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유일하고 특별한 장소이다. 보스포루스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해안에 늘어서 있는 여름 별장들을 감상하면서, 오르한 파묵처럼 그곳을 지나가는 배를 세어보고, 배의 이름과 종류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3-2. 이스탄불 변두리 마을

인문지리 환경 역시 작품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스탄불이 세계적인 관광 도시이지만, 뉴욕의 할렘가가 그러하듯이, 이스탄불 역시 가난한 변두리 마을이 곳곳에 있다.

이 작품에서 이스탄불은 비애, 몰락, 멜랑콜리 같은 이미지 이외에도 변두리, 변방의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이스탄불은 유럽 최동단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파묵에 의하면 이는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화적인 변방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스탄불 사람들이 가난한 변두리 마을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은, 폐허 상태인 도시 성벽이나, 어린 시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루멜리 히사르 혹은 아나돌루 히사르의 성벽과 탑들 위에 풀, 잡초, 담쟁이덩굴, 나무들이 자랄 때 드러난다. 이 아름다움은 가난한 변두리 마을에 있는 부서진 분수,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반쯤 허물어진 오래된 저택, 100년 된 가스 공장의 폐허, 오래되어 검게 변한 목조 건물의 벽, 담쟁이덩굴과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특별히 결합했을 때 우연히 드러난다.”¹⁶⁾

파묵은 변두리 마을의 폐허를 즐기려면 그 도시의 이방인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이방인의 눈으로 보아야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고 했다.

〈폐허가 된 성벽〉

〈비잔틴 유적: 발렌시아 수도교〉

15) 위의 책, 91쪽.

16) 위의 책, 350쪽.



파묵은 반세기 이상을 이스탄불의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살았지만, 그가 이스탄불의 뒷골목들을 배회 하며, 몽상 하며, 그것들을 스케치하면서 청년기를 보냈다. 이러한 이유로 파묵의 작품에서는 이스탄불 중·하류 층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묘사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파묵이 청년기에 이러한 지역을 거닐던 시절이 없 었다면, 독자들은 파묵 특유의 우울함과 비애가 서린 작품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폐허가 되었지만 여전히 도시의 살아 있는 부분이자 동네의 삶과 비슷한 것을, 롬 마을인 사마트야나, ‘도 시의 게토’라고 했던 유대인 마을 발라트에서 보았다. (...) 산책을 하는 내내 거리와 집과 나무 사이에서 비잔틴 의 유적인 벽과 거대한 수도교의 일부를 볼 때마다 (...)”

파묵은 과거에 이 도시를 방문해서 긴 산책을 즐긴 고티에의 경험을 장황하게 나열하면서 그가 이스탄불은 비애의 도시라고 했던 것에 행복을 느낀다. 그는 과거 이스탄불을 묘사했던 작가나 이방인 작가의 글을 통해 자 신의 삶을 보낸 이스탄불이 그에게 준 감정이 비애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설명하려고 애를 쓴다.

“폐허와 비애, 그리고 한 때 소유했던 것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이스탄불을 사랑한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었다. 다른 물건들을 얻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폐허를 보기 위해 나는 그곳에서 멀어져 다른 곳을 향해 걸어 갔다.”¹⁷⁾

이렇듯 파묵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와 폐허가 삶과 맞물려 있는 이스탄불의 풍경을 보며 행복을 느끼게 된 작가이며, 이러한 풍경이 그의 창작활동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가난한 변두리 마을이나 폐허들은 답사지로 부적당 할 수 있지만, 장차 세계적인 문인으로 거듭 날 작가 가 청소년기에 이곳을 배회하며 느꼈던 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학답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파묵이 자 주 들렀던 유럽화된 거리인 탁심 광장이나 베이올루 지역 같은 변화가를 답사한 후 이 지역들로 간다면, 서구화 를 갈망했던 터키 사회 속에서 혼란스러웠던 파묵의 영혼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작품 전반에 스며있는 이스탄불 고유의 비애와 멜랑콜리 감정을 역시 체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17) 위의 책, 482쪽.

3-3. 탁심 광장과 베이올루 지역

이스탄불은 크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신시가지의 가장 변화한 지역은 탁심 광장에서 이스티랄 거리를 통해 갈라타사라이 고등학교가 있는 베이올루 지역이다.

〈이스탄불 신시가지 중심가인 탁심 광장과 베이올루 지도〉¹⁸⁾



“공화국 이후에는 이스티랄 대로라고 불릴 그랑 루 드 페라는 1843년에도 지금과 거의 비슷했다. 네르발은 메블레비하네를 지나가면서 이 대로를 파리에 비유한다. 유행하는 옷들, 세탁소들, 금은방들, 깨끗한 진열장들, 사탕 가게들, 영국과 프랑스 호텔들, 찻집들, 대사관들. 시인이 프랑스 병원(오늘날의 프랑스 문화원)이라고 했던 곳을 지나면 그 장소는 놀랍고, 충격적이며, 두려운 형태로 끝나고 만다. 왜냐하면 오늘날 탁심 광장이라고 부르는, 어린 시절 이후 내가 그 근처에서 살았던 나의 세계의 중심인 가장 넓은 광장을, 네르발은 마차와 코프테, 수박이나 생선을 파는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공터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⁹⁾

이 탁심 광장에서 출발하여 이스티랄 거리를 순회하는 붉은 색 노면전차를 타면 베이올루를 구경할 수 있다.

18) 사진출처: 오르한 파묵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 2008, 13쪽.

19) 오르한 파묵,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 민음사, 2008, 203쪽.

〈탁심 광장에서 베이올루를 관통하는 노면 전차, 사진 출처:필자〉



“내 어린 시절의 즐거움들 중 하나는 어머니와 베이올루로 쇼핑을 나가는 것, 그리스 사람들이 경영하는 상점에 출입하는 것이었다.”²⁰⁾

이 베이올루 거리에는 상점, 영화관, 백화점, 호텔 등이 밀집되어 있는 변화가이며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즐기고 가족들이 주말 나들이를 나오는 곳이다. 어린 시절 과묵은 어머니와 함께 베이올루로 쇼핑가는 것을 즐겼지만, 사춘기 고민 많았던 시절 이 공간은 일종의 도피처로 등장한다.

“어머니와 싸운 뒤 현관문을 닫고 나가 밤의 어둠 속에 잠긴 베이올루 뒷골목을 받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받은 미친 사람처럼,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혐오한다고 생각하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건자 오랫동안 걷고 싶은 바람이 내 마음속에서 서서히 타올랐다.”²¹⁾

“베이올루 거리가, 그 거리의 어두운 구석이, 도망치고 싶은 욕구와 죄책감과 함께 내 머릿속에서 네온사인처럼 꺼지고 다시 켜졌다. 가끔 화가 나고 극도로 예민한 순간에 그랬듯이. 내가 좋아하는 그 반쯤 어둡고 매력적이며, 더럽고, 사악한 도시의 거리에 있는 내가 도피할 두 번째 세계는 이미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²²⁾

과묵이 방황의 장소로 베이올루를 택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그 곳은 환락, 소음, 무질서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장래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이 그 고민을 잠시 잊고, 무작정 배회하기에 적합한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0) 위의 책, 238쪽.

21) 위의 책, 489쪽.

22) 위의 책, 501쪽.

3-4. 니산타쉬와 파묵 아파트

오르한 파묵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이스탄불의 유럽지구에 위치한 니산타쉬 지역이다. 부유층과 유명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샤넬, 루이비통 등의 명품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 거리로도 유명하다. 이스탄불의 니산타쉬 지역은 파묵의 많은 작품에 나오는 공간적 동일성의 사례이다. 소설 『새로운 인생』, 『순수 박물관』, 『눈』 등 파묵 작품의 남자주인공들은 모두 이 니산타쉬 출신들이다. 이 등장인물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파묵의 페르소나와 같은 존재들이다. 니산타쉬는 터키 중상류층들의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삶을 대변해 주는 공간이다.

이 니산타쉬 지역에 바로 ‘파묵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다. 파묵의 말에 따르면, ‘파묵 아파트’는 어머니가 그를 품에 안고 처음 세상을 보여주고, 처음 사진을 찍었던 곳이며, 지금까지도 그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나는 내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하여 내가 살았던 집, 거리 그리고 마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오십 년 후에(가끔 이스탄불의 다른 곳에서 살기도 했지만) 다시 파묵 아파트에,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처음 세상을 보여 주고, 처음 사진을 찍었던 곳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이스탄불의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오르한에 대한 생각과 이것에서 비롯된 위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²³⁾

파묵은 반세기 동안 이스탄불의 ‘파묵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산 것은 도시에 대한 그의 예속감을 대변해준다. 우리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중국에는 항상 이 ‘예속감’을 느끼는 곳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내가 항상 같은 집, 거리, 풍경 그리고 도시에 매여 사는 것이 나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스탄불에 대한 나의 이 예속감은, 도시의 운명도 사람의 성격이 된다는 의미이다.”²⁴⁾

모든 예술작품, 특히 문학작품은 작가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스탄불에서 나고 성장했으며 여전히 그 곳에 살고 있는 파묵의 경우에도 그의 작품 속에서 이스탄불에서의 삶이 반영되고 있다. 작가의 체험과 정신이 주로 그의 작품에 기술되어 있다는 전기역사주의 이론을 적용한다면, 파묵의 문단 데뷔작인 『제브데트 씨와 아들들』에 나오는 가족과 아파트 생활은 파묵 자신의 가족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이 파묵 아파트의 각 층에서 다른 친척들과 함께 사는 주인공의 생활은 『검은 책』에서도 집중적으로 묘사된 주요한 공간이다. ‘파묵 아파트’는 작가의 전기적 환경이 그의 작품들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학 공간이라 할 수 있다.

23) 위의 책, 19쪽.

24) 위의 책, 20쪽.

〈파묵 아파트 현관, 사진출처: 필자〉



〈파묵 아파트 전경, 사진출처: 필자〉



“우리 가족,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형, 할머니, 삼촌들, 고모들, 숙모들은 5층짜리 아파트의 각 층에서 살았다. 내가 태어나기 일 년 전까지 오스만 제국의 대가족들처럼 모두 함께 석조 대저택 안에서 다른 방과 다른 구역에서 살다가, 그 건물을 사립 초등학교에 임대하고, 1951년에 바로 옆에 있는 토지에 지금 우리가 4층에 살고 있는 ‘현대적인’ 아파트를 지어 당시의 유행에 따라 자랑스럽게 현관 출입구에 ‘파묵 아파트’라고 써 놓았다.”²⁵⁾

작가는 이 ‘파묵 아파트’에서 살면서 전통과 서구화 문명의 충돌, 친척들 간의 재산 분배 갈등, 부모님의 불화 등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된다. 대가족이 파묵 아파트라는 한 공간의 각기 다른 층에 기거하다보니 당연히 파묵의 유년 시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파묵의 다른 작품들에서 아파트 주변의 다른 문학 공간들, 예컨대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검은 책』에 한 챕터로 묘사되는 알라만의 가게, 경찰서, 『순수 박물관』에서 등장인물들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테쉬비키에 사원 등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간들 역시 답사지로서 빠질 수 없는 장소들이다.

한 작품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작품을 낳은 작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작가의 탄생지이자 소설의 주요 공간이 된 ‘파묵 아파트’는 현재도 아파트 이름과 함께 과거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답사지로서 빼어 놓을 수 없는 생생한 현장이자, 오르한 파묵의 생애의 한 요소를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답사 거점이다.

IV. 결론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보다 더 막대한 양의 유혹적이며 다양한 콘텐츠들은 스마트 폰,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빠르고 생생하게 접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홍수 속에서 차분하게 집중하여 상상 속에서 향유해야 하는 문학은 이미지와 빠른 속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유인하는 데 역부족이다.

25) 오르한 파묵,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 민음사, 2008, 24쪽.

문학이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 학습자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학의 가장 커다란 장점인 상상력을 뒷받침해주는 실체화된 이미지를 제시해주는 것이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다. 독자들은 문학작품을 읽으며 나름대로 해석하고 내면화하면서 상상력을 펼치게 된다. 만약 독자가 실재하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상상을 펼칠 수 있다면 작품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끝없이 자신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콘텐츠로 문학답사를 활용할 수 있다. 책 속의 배경이 되는 공간, 작가의 고향, 작가가 집필하는 공간 등을 직접 방문하여 학습하는 문학 답사를 통해, 자신이 읽은 작품 속의 공간을 더욱 더 사실적으로 그려보고, 작중인물들이 느꼈던 감점, 행동 그리고 시대상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학 공간이 작가의 생애와 체험의 한 요소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스탄불은 오르한 파묵의 작품 세계에 지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도시이자, 파묵의 대부분의 작품의 배경이 된 도시이기 때문에, 문학답사를 통해 작가와 작품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소이다. 특히 파묵이 허구의 산물인 소설 속에서 변형시켜 창조했던 공간과는 달리,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은 자전적인 작품 특성 상 실제 공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문학답사를 통해 작품 속 공간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에 묘사된 대표적인 문학 공간을 선별하여 다루어 보면서, 오르한 파묵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본론에서 제시된 이스탄불의 다양한 문학공간은 단순히 소설에 등장하는 공간을 넘어서 작가가 태어나서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며, 다양한 작품의 배경이다. 따라서 작품 속에 묘사되고 있는 이스탄불 곳곳을 답사하는 것은 작가 그리고 이스탄불의 과거와 미래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학생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작가의 전기적 요소, 지역의 역사적 요소, 문학적 요소, 지리적 요소, 문화유산 관련 요소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학생들이 작가와 해당 지역의 인문지리적 특성을 함께 이해하도록²⁶⁾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위에서 해당하는 것들을 작품에서 추출해 적용 제시해보았다. 더 바람직한 것은 교육 과정에서 지식이 심화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강의자와 수강자가 함께 답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지역인 이스탄불은 국내가 아닌 해외이므로 여러 가지 여건 상 수강생들의 답사가 실현되기 힘들 경우를 감안하여, 실제 답사를 하지 않고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보재 개발이 필요하다. 입체적인 문학 교육 콘텐츠 모델을 마련하여 인문학 영역에 다양한 교육 콘텐츠 모델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평면적인 문학 교육 콘텐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문학과 공간이 결합된 문학 공간 자원과 문화산업의 상호 결합을 유도함으로써 포괄적인 의미의 문화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어야 문학 공간 연구의 학문적·교육적 성과가 축적되고, 이를 기반으로 21세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26) 손정훈, “프랑스의 문학기행루트”,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010, 666쪽.

참고문헌

- 김명준, “문학공간에 대한 분석적 기술방법”, 『한국문학공간과 문학콘텐츠』, 청동거울, 2005, 33쪽.
- 김종건, 『<구인회> 소설의 공간설정과 작가의식』, 새미, 2004, 19쪽.
- 손정훈, “프랑스의 문학기행루트”,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010, 657~658쪽.
- 오르한 파묵,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 민음사, 2008, 51~52쪽.
- _____, 『순수 박물관 1,2』, 민음사, 2010.
- _____, 『검은 책 1,2』, 민음사, 2014.
- 이난아, “도시와 문학: 오르한 파묵의 『이스탄불-도시 그리고 추억』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제32호, 2008, 203쪽, 209~210쪽.
- 이진형, “문학 기행객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참여 동기에 따른 마케팅적 함의”, 『관광학연구』 제 28권 3호, 한국관광학회, 2004, 108~109쪽.
- 최경도, “전기, 자서전, 소설: 자기표현 양식의 변화”, 『외국문학연구』 제 3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8, 124쪽.
- Pamuk, Orhan, Öteki Renkler, İletişim Yayınları, İstanbul, 1999, p.295.

이슬람 페미니즘과 여성 시각에서 새로운 종교 텍스트 읽기

김 정 명*

I. 서론

본고는 20세기 후반 무슬림 사회에서 새로운 비평 사조로 등장한 ‘이슬람 페미니즘(Islamic Feminism)’의 발전 역사와 특징을 소개하고 이것이 기존의 ‘세속적 페미니즘(Secular Feminism)’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이슬람 페미니즘의 가장 큰 특징인 쿠란의 재해석을 통한 여성 권리 확보 노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과거 남성에게 의해 독점되어온 전통적인 해석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종교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클수록 새로운 사회 및 정치적 개혁 운동이 종교적 차원에서 그 권위와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종교 텍스트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특수한 권위 덕분에 결정적인 판별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슬람 사회에서 쿠란은 알라의 말씀 그 자체로 여겨지고 있으며, 따라서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텍스트를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신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현대 이집트 기호학자 아부 자이드는 “아랍 이슬람 문화란 결국 텍스트(쿠란)의 역사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즉, 아랍-이슬람 문화와 학문의 근간 가운데 쿠란이 차지하는 위치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Naşr Hāmid Abū Zaid 1990, 9).

198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이슬람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 역할, 지위 등과 관련된 종교 텍스트를 재해석함으로써 페미니즘의 메시지를 이슬람 사회 내에서 널리 수용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추구한다. 이슬람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일부는 쿠란이 명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밝히고 이를 옹호하는 것을 이슬람 페미니즘이라고 규정한다. 반면 다른 일부는 쿠란을 비롯한 여러 종교 텍스트를 여성적 관점에서 읽는 것을 이슬람 페미니즘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이슬람 페미니스트는 기본적으로 “쿠란 자체에는 여성에게 억압적인 구절이 없으나, 문제는 남성중심적인 해석 전통으로부터 비롯된 다”라는 해석학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슬람 페미니즘은 보수적인 남성 무슬림 학자들이 신의 말씀을 가부장적 관점에서 해석했던 관행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 남녀불평등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이용된 여성혐오적인 쿠란 및 하디스 해석 전통을 해체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슬람 페미니즘은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의 근거를 종교 경전 내에서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현대의 대표적인 이슬람 페미니즘 학자인 마르고트 바드란(Margot Badran)은 이슬람 페미니즘은 한마디로 ‘이슬람이란 패러다임 속에서 표현된 페미니즘적인 담론과 실천’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Badran 2009, 242).

*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지금까지 한국 학계에서는 이슬람 세계의 페미니즘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어왔다. 이와 관련된 국내의 주요 학술 논문과 저서로는 조희선, 이혜진(2003)의 “팔레스타인 여성과 이슬람 근본주의”, 김능우(2005)의 “예멘 현대 여성문학 연구”, 문애희(2006)의 “알제리 현대 여성소설 연구”, 이은정(2011)의 “파트마 알리에: 전통과 근대 사이에서 ‘이슬람적’ 여성 해방을 외치다”, 조선정(2012)의 “이슬람 여성, 근대성, 페미니즘: 프랑스 베일 논쟁을 중심으로”, 조희선(2015)의 『변화하는 무슬림 여성: 코란, 하디스, 이슬람법 샤리아에서 여성읽기』 등이 있다.

상기한 국내 학술 논문과 저서 대부분은 주로 페미니즘과 관련된 사회 및 정치 현상 또는 문학 작품 분석을 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반해 조희선(2015)의 『변화하는 무슬림 여성: 코란, 하디스, 이슬람법 샤리아에서 여성 읽기』는 본고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에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상기 저서는 현대 무슬림 페미니스트의 주석 방식이 전통적인 쿠란 주석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남녀의 평등관’, ‘남녀의 유별관’, ‘여성의 보호관’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상세하게 비교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 저서는 이슬람 페미니즘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것이 기존의 세속적 페미니즘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통시적인 고찰을 하지 않았고, 여러 이슬람 페미니스트의 작품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고찰하지 않았다. 본고는 상기 저서에서 충분히 취급되지 않은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고는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주요 이슬람 페미니즘 관련 연구자와 사상가의 작품을 비교 검토하는 정성적 분석을 연구 방법론으로 택했다. 본고에서 다루는 주요 이슬람 페미니즘 작가로는 미국의 이슬람 여성 학자 아미나 와두드(Amina Wadud), 파키스탄 출신의 미국인 여성 학자인 아스마 바를라스(Asma Barlas)와 리파트 하산(Riffat Hassan), 모로코의 여성 사회학자 파티마 메르니시(Fatima Mernissi), 미국의 여성 역사학자이자 젠더학 전문가인 마르고트 바드란(Margot Badran) 등이다. 이와 더불어 남성이긴 하지만 많은 이슬람 페미니즘 여성 학자들이 사용하는 쿠란의 역사적 해석 방법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파즐루르 라흐만(Fazlur Rahman)의 작품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고는 이들이 쿠란 구절을 해석할 때 어떤 방식으로 페미니즘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남녀평등 원리의 원천으로서의 쿠란’, ‘2차 종교 문헌(하디스, 타프시르)의 권위 해체’, ‘역사적 해석을 통한 시대착오적 쿠란 해석 바로 잡기’ 등 3개 주제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슬람 페미니즘의 발전과 주요 사상가

1. 이슬람 페미니즘의 등장 배경

세계적으로 페미니즘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 말 프랑스 여성 위베르틴 오클레르(Hubertine Auclert, 1848~1914)가 『여성시민(La Citoyenne)』이라는 잡지에서 이 용어를 여성의 권리 투쟁을 위한 상징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면서 부터였다. 위베르틴 오클레르는 남성의 지배를 비판했으며, 프랑스 혁명이 약속한 여성의 권리와 해방을 주장했다. 이 같은 점에서 19세기 말 프랑스 사회에 등장한 페미니즘은 참정권 운동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후 페미니즘에 다양한 의미와 정의가 부여되어왔다. 20세기 초반 페미니즘이란 용어는 영어권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했다(Badran 2009, 242).

시기적으로 보면 아랍 및 이슬람권에서 페미니즘란 용어가 소개되고 실천 운동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무렵으로 서구 사회와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이집트의 경우 페미니즘이 처음 소개된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1920년대 초반에는 페미니즘이란 프랑스 단어가 아랍어 용어인 ‘니사이야(nisā’iyya)’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이 무렵 이집트 사회는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과 더불어 민족주의가 형성되는 시기였다. 교육 개혁과 더불어 이집트 상류층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가 증가했고, 그 결과 새로운 여성 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담은 에세이와 시가 처음 출판되기 시작했다(Hattmannsdorfer 2012, 5).

20세기 초반 이집트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해 헌신한 대표적인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말라크 히프니 나시프(Malak Hifni Nasif, 1886~1918)와 후다 샤으라위(Hudā Sha’arāwī, 1879~1947)를 꼽을 수 있다. 이집트 상류사회에 속했던 두 여성은 여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살롱을 열었다. 바히사트 알 바디아(Bahithat al Badiya)라는 이름으로 더욱 알려진 히프니 나시프는 1910년 에세이집인 『알 니사이야(al-nisā’iyyat)』를 출판했다. 그녀는 이 저서에서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서구적 가치관을 과감히 받아들이고 베일, 결혼, 교육 등의 문제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후다 샤으라위와 같은 페미니스트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공공장소에서 베일을 벗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Hattmannsdorfer 2012, 7).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 이집트 사회에서 활약한 남성 지식인 가운데서도 페미니즘 운동 지지자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카심 아민(Qāsim Amīn, 1863~1908)과 움마 당(Hizb al-Ummah)의 지도자였던 아흐마드 루트피 알 사이드(Ahmad Lutfi al-Sayyid)를 꼽을 수 있다. 카심 아민은 1899년에 『여성해방(Tahrīr al-Mar’ah)』 그리고 1900년에 『신(新)여성(al-Mar’ah al-Jadīdah)』을 출판함으로써 프랑스 문물 도입의 필요성과 여성을 위한 교육 기회 증진을 언급하며 여성해방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평등을 주장했다. 한편 아흐마드 루트피 알 사이드는 남녀 간의 평등은 뿌리 깊은 이집트의 전통이며 여성의 종속 현상은 도시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김능우 2006, 187-191).

1919~1922년 기간 동안 이집트에서는 민족주의자들의 주도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저항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무렵 이집트 페미니스트들은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사회 및 정치 개혁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민족주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이집트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종교, 인종,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평등한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 간주하는 세속주의(secularism) 정치이념을 따랐다. 민족주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초창기 이집트 페미니즘 역시 다분히 세속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묻어날 수밖에 없었다. 초창기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이집트 시민이며 따라서 보편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여성의 정치 참여, 교육 기회 균등, 경제적 권익 증진 등과 같은 비종교적인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 같은 점에서 서구 페미니즘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민족주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초창기 페미니즘은 이집트 시민으로서 여성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 획득에 열을 올렸지만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 했다. 왜냐하면 종교는 개인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관여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무슬림형제단과 같은 보수 무슬림 단체는 페미니스트가 이슬람적인 가치와 전통을 도외시한 채 서구 또는 세속주의적 시각에서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여성 페미니스트 사이에서도 페미니즘이 지나치게 세속주의적 성향을 갖는 것에 대한 반감이 생겨났다. 이집트 무슬림여성연합(Jamaa’at al-Sayyidaat al-Muslimaat)의 창시자 자이납 알 가잘리(Zaynab Al-Ghazali, 1917-2005)는 무슬림형제단의 주장에 동조하며 이슬람이 여성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스로 무슬림 페미니스트임을 자처했던 자이납은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일반 페미니스트들이 서구적 가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며 이슬람의 가치와 전통을 타락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Hattmannsdorfer 2012, 7).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르러 이란, 수단 등과 같은 국가에서 이슬람 정권이 등장하고 원리주의에 입각한 종교 정치 단체가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세력을 확장하자 기존의 페미니즘 운동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 이

슬람 원리주의자들은 국가와 개인을 ‘이슬람/비이슬람’의 이원론적 틀에 따라 엄격히 구분했고, 사회적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공공 분야에서 종교,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페미니즘의 주장을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많은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이들에 의해 ‘서구적 문화에 오염된 탈선자’,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 ‘반(反)이슬람주의자’라고 비난 받았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1980년대부터 일부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보수적 무슬림들이 제기한 비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본연의 목적인 가부장주의 철폐와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슬람적 가치에 토대를 둔 새로운 경향의 페미니즘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존의 페미니즘을 ‘세속적 페미니즘(Secular Feminism)’이라고 부른 반면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페미니즘을 ‘이슬람 페미니즘(Islamic Feminism)’이라 칭하며 과거와 구분되는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가고자 했다.

2. 이슬람 페미니즘과 세속적 페미니즘

이슬람 페미니즘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1990년대에 이르러 그 이론적 틀이 확고하게 정립되었다. 이슬람 페미니즘은 1970년대 이후 등장한 보수적 무슬림 또는 원리주의 정치단체의 비판으로 인해 고조된 페미니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다. 이슬람 페미니즘은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목적에 있어서 기존의 세속적 페미니즘과 일치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종교적 역할에 주목하고 특히 쿠란이나 하디스 같은 종교 텍스트에 대한 여성적 시각에서의 해석을 페미니즘 저변 확대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슬람 페미니즘과 세속적 페미니즘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특징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이슬람 페미니즘과 세속적 페미니즘은 남녀평등이란 이상을 실현하는 영역 설정에 있어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세속적 페미니즘은 국가를 인종, 종교,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 구성된 집합체로 보았고, 따라서 교육, 노동, 정치 등 공공분야에서 여성 시민은 남성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세속적 페미니즘은 종교가 사회 개혁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종교가 가정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그 결과 세속적 페미니즘은 공공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주장했으나 가정 내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보완적인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전통 이슬람 입장을 용인하는 모순을 보였다(Badran 2009, 3-4).

이에 반해 이슬람 페미니즘은 남녀평등의 이상은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같은 사적영역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슬람 페미니즘 주창자들은 세속적 페미니즘과 달리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들은 세속적 페미니즘이 방치해왔던 사적 영역에서의 남녀불평등의 문제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전통적 가부장주의를 해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쿠란에 나타난 인류 또는 양성 평등의 원칙을 재발견하고 이를 사회와 가정 모두에서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슬람 페미니즘 학자 마르고트 바드란(Margot Badra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슬람 페미니즘이 주창하는 양성평등 논리는 기존의 세속적 페미니즘보다 훨씬 래디컬하다. 세속적 페미니즘은 공공영역에서 남녀간 완전 평등을 천명했으나, 사적영역에서는 양성평등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보완적 역할 개념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세속적 페미니즘은 가정 내에서의 남녀 역할의 분리 그리고 가정으로서의 남성의 역할이란 개념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사고는 쿠란적 사고보다는 오히려 가부장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이슬

람 페미니즘이 천명하는 남녀평등은 장소나 맥락에 구애받지 않는 모든 인류 평등의 일환으로서 인위적인 공적/사적 영역 분리를 해체한다. 즉, 사적 영역이나 가정 내에서의 남녀평등을 실현하지 못하는 기존의 사고와 행동을 철폐하고자 한다.” (Badran 2009, 332).

둘째로, 이슬람 페미니즘은 세속적 페미니즘과 달리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종교와 쿠란 재해석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과거에 세속적 페미니즘은 종교의 역할에 주목하지 않았고 그 결과 무슬림 대중으로부터 호응을 얻어내는데 실패했다. 이에 반해 이슬람 페미니즘은 페미니즘 운동의 정당성을 이슬람 내부에서 확보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쿠란이나 하디스와 같은 종교 텍스트를 이즈티하드(ijtihād), 즉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이슬람 페미니즘은 이슬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독자적인 시각에서 쿠란 해석론 정립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슬람 페미니즘은 남녀 불평등의 근본원인은 사회적인 것이지 종교적인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슬람 페미니즘에 따르면, 쿠란이나 하디스와 같은 이슬람 종교 텍스트에는 남녀평등을 명확하게 언급하는 다수의 구절이 있으며, 예언자 무함마드를 비롯한 초기 이슬람 공동체 지도자들 역시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후대에 이르러 보수적인 남성 엘리트들이 임의대로 쿠란과 하디스를 해석했으며, 그 결과 남녀평등 사상이 목소리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슬람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해석을 해체함으로써 쿠란과 하디스에 담긴 남녀평등 사상을 재발견할 수 있고, 이슬람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파한다.

3. 이슬람 페미니즘의 주요 사상가

이슬람 페미니즘의 논리는 198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되어 1990년대에 이르러 본격화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이슬람 페미니즘을 학술적 차원에서 이론화하고 정교하게 가다듬은 주요 여성 학자로는 리파트 하산(Riffat Hassan), 아미나 와두드(Amina Wadud), 아스마 바를라스(Asma Barlas), 마르고트 바드란(Margot Badran), 파티마 메르니시(Fatima Mernissi) 등을 꼽을 수 있다.

리파트 하산(Riffat Hassan)은 역사적으로 쿠란의 해석은 가부장주의에 매몰된 남성에게 의해 독점되어 왔고 그 결과 쿠란은 여성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잘못 읽혀 왔다고 강조한다. 이에 반해 역사적으로 여성은 스스로 왜 쿠란이 것처럼 여성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해석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비판을 가할 수 있는 비평적 도구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왔다. 그 결과 여성에게 공정하지 못한 율법과 제한이 이슬람이란 이름으로 부과되어 왔지만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박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리파트 하산은 “불공정한 사회구조와 사유체계가 평등한 남녀 관계 성립을 방해해 왔으며, 페미니즘 신학만이 이로부터 무슬림 여성뿐만 아니라 무슬림 남성까지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Hassan).

미국 출신 흑인 여성 학자인 아미나 와두드는 이슬람 페미니즘의 선구적인 학자로서 『쿠란과 여성: 여성 시각에서 종교 텍스트 새롭게 읽기(Qur'an and Woman: Rereading the Sacred Text from a Woman's Perspective)』의 저자이다. 그녀는 이 저서에서 ‘타프시르(Tafsīr)’, 즉 쿠란의 주석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쿠란의 읽음은 남성에게 의해 독점되어 왔으며 따라서 오늘날 많은 무슬림들이 공유하고 있는 쿠란에 대한 이해는 남성중심의 비전, 관점, 의지, 필요 등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여성의 관점과 경험은 배제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아미나 와두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주요 관심사는 ‘전통적인’ 타프시르가 남성의 의해 독점적으로 저술되어 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남성과 남성의 경험은 포함되었는데 반해 여성과 여성의 경험은 남성의 비전, 관점, 의지, 필요 등에 의해 배제되거나 그 틀에 의해서 해석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쿠란을 검토하고 토론하는데 이용하는 기본 패러다임 그리고 쿠란에 대한 해석은 여성의 참여나 일차적 표현의 과정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쿠란 해석론이 발전했던 중요한 시기에 여성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사실이 간과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쿠란 텍스트 자체에 여성의 목소리가 없는 것처럼 잘못 오해되었다.”(Wadud 1999, 2)

한편 아스마 바를라스(Asma Barlas)는 자신의 저서인 『이슬람의 믿는 여성들: 쿠란에 대한 가부장적 해석에 대한 해체적 읽기(“Believing Women” in Islam: Unreading Patriarchal Interpretations of the Qur’an)』에서 “쿠란은 과연 가부장적 성격을 지닌 텍스트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쿠란이 수미일관하게 남녀평등의 원칙을 지지하며 가부장주의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동안 쿠란이 가부장주의를 인정 또는 조장하는 텍스트로 잘못 읽힌 이유는 여성평등주의의 시각에서 읽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녀는 이슬람 페미니즘적 시각에서의 쿠란 읽기는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한다.

미국 출신의 역사학자이자 젠더학 전문가인 마르고트 바드란(Margot Badran)은 『이슬람에서의 페미니즘: 세속주의와 종교주의의 수렴(Feminism in Islam: Secular and Religious Convergences)』의 저자로서 이슬람 페미니즘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그녀는 상기 저서에서 19세기 이후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중동에서의 페미니즘 발전 역사를 소개하고 특히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사조로 등장한 이슬람 페미니즘의 발전 배경과 주요 학자의 사상 그리고 세속적 페미니즘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상세히 다루었다.

모로코 출신의 사회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파티마 메르니시(Fatima Mernissi)는 최초의 이슬람 페미니즘의 주요 저술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정치적 하렘(Le harem politique)』의 저자로서 특히 쿠란보다 하디스 해석학 분야에서 많은 업적으로 남겼다.¹⁾ 상기 저서를 통해 파티마 메르니시는 현대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열악한 이유는 초창기 무슬림 학자들이 종교 텍스트를 곡해하고 변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그녀는 하디스 이야기의 수집 및 전달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녀는 초창기 무슬림 학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디스에 신빙성이 없거나 심지어 왜곡된 이야기를 삽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여성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남성학자이지만 이슬람 페미니즘의 쿠란 해석학 발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한 파즐루르 라흐만(Fazlur Rahman, 1919~1988)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이슬람과 현대성(Islam and Modernity)』과 『쿠란의 주요 테마(Major Themes of the Qur’ān)』를 통해 쿠란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전통주의자의 경향에서 벗어나 사회·역사적 문맥(socio-historical context) 속에서 읽음으로써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즐루르 라흐만은 쿠란의 계시는 역사를 떠나서는 기능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전통적 율법학자는 계시를 사회·역사적 문맥 속에서 보지 않고 그것이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적용가능하다고 믿었다. 다시 말해 쿠란의 내용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시대, 장소, 환경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전통적 해석관이 쿠란의 계시를 비역사적인 것 또는 우리 인간 세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타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한다(Suha 2004, 47-48).

1) 『정치적 하렘(Le harem politique, Paris, Albin Michel, 1987)』은 프랑스어로 저술된 작품으로 1991년 영어로 번역되었다. 본고는 프랑스본이 아닌 영어 번역본(The Veil and the Male Elite: A Feminist Interpretation of Women’s Rights in Islam)을 참조했다.

III. 이슬람 페미니즘의 종교 텍스트 읽기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활약한 대표적인 이슬람 페미니스트 가운데는 리파트 하산, 아미나 와두드, 아스마 바를라스, 마르고트 바드란, 파티마 메르니시 등 다양한 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쿠란 또는 하디스 구절의 해석을 놓고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많은 유사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쿠란과 하디스에 대한 이해를 과거 전통주의 해석과 다르게 현대 무슬림 여성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남녀평등의 원리를 이슬람의 틀 속 재발견하고자 했다. 상기한 여성 페미니스트의 쿠란 및 하디스 해석학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특징 지워진다.

1. 남녀평등 원리의 원천으로서의 쿠란

이슬람 페미니즘은 많은 사람들의 편견이나 오해와 달리 쿠란은 근본적으로 남녀평등의 원리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즉, 쿠란에는 모든 인류의 평등 원리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많은 구절이 있으며, 따라서 쿠란에 담긴 남녀평등의 정신을 찾는 것은 여성해방을 위한 수단으로서 귀중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성, 국적, 나이, 인종 등을 초월한 상호존중의 관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Hattmannsdorfer 2012, 21).

이슬람 페미니스트 학자인 리파트 하산은 쿠란이야말로 ‘인권 권리대장전’이라고 묘사하면서, 쿠란은 남녀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인권과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녀는 많은 무슬림 사회에서 발견되는 남녀 불평등은 이슬람이 아니라 토착 문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쿠란은 역사적으로 여성이 차별받아 왔기 때문에 무슬림 공동체가 여성을 공정하게 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유대교, 기독교, 헬레니즘, 베두인 문화 등 과거로부터 축적된 편향된 자세는 이슬람 역사 초기에도 남아서 이슬람 전통의 하나로 자리 잡았고 그 결과 노예나 열등한 존재로 전락한 여성을 해방시켜 남성과 동등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쿠란의 뜻을 저버렸다.”(Hassan)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은 쿠란에는 남녀가 하나의 영혼(nafs)에서 비롯되었고 또한 하나의 짝(zawj)로 지어졌다는 구절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은 여성과 남성이 존재론적으로 동등한 인격 체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로서 쿠란 4장 1절과 쿠란 36장 36절을 예로 들 수 있다.

“오 사람들이여 하나의 영혼(nafs)으로부터 너희를 창조하시고 그것으로부터 그 짝(zawj)을 창조하시며 또한 그 둘로부터 많은 남자와 여자를 번성시킨 너희의 주님을 경외하라...”(쿠란 4:1)

“만물의 짝들(Ajwāi)을 지으신 알라를 찬양하라. 알라께서는 땅이 키운 것, 그들 자신의 영혼들(Anfusihim), 그리고 그 외에 그 누구도 모르는 어떤 것으로부터 창조하셨다.” (쿠란 36:36)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은 역사적으로 상기 구절은 남성 쿠란 주해가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9세기 무렵 하디스에 기초한 전통적 주석가로 명성을 날린 타바리(al-Tabari, 839~923)는 쿠란 4장 1절에 언급된 ‘그것으로부터’의 ‘그것’을 ‘영혼(nafs)’이 아닌 ‘아담’으로 해석했다. 즉 아담은 영혼(nafs)으로부터 창조되었으나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창조되었다고 해석함으로써 타바리는 쿠란의 창조 이야기를 기독교의 창조 이야기와 비슷하게 설명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조희선 2015, 25).

리파트 하산의 경우, “여성은 남성의 갈비뼈로부터 창조되었다”와 같은 믿음은 쿠란에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쿠란은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의 영혼으로부터 기원했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견해에 따르면, 쿠란에서 아담(Adam)이란 단어가 25차례 언급되는데 그 가운데 21차례에서 ‘아담’이란 낱말은 구체적으로 남성을 가리키기보다는 오히려 ‘인류’를 지칭하는 집합명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Barlas 2006, 259).

한편 아미나 와두드는 상기한 두 개 구절에 나온 쿠란의 창조론 이야기가 남녀 간의 차별을 명백하게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쿠란은 여성과 남성 모두 영혼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영혼들 간에는 어떠한 우열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쿠란에는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는 말이 없으며, 따라서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을 그 기원에 있어서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미나 와두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쿠란에서 언급된 창조론에 따르면, 알라는 인류의 창조를 남성으로써 시작하고자하는 계획이 없었다. 또한 쿠란에는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기원했다는 언급도 없다. 또한 쿠란은 알라가 아담, 즉 남성의 영혼(nafs)으로써 인류를 창조했다는 언급도 없다. 이 같은 점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쿠란에 나타난 인류 창조론은 젠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Wadud 1999, 19-20)

쿠란 36장 36절에 언급된 창조론과 관련하여 일부 이슬람 페미니스트는 알라가 만물을 짝(zawj)의 형태로 지었다고 표현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아스마 바를라스는 36장 36절 외에 수많은 쿠란 구절(6:98, 7:189, 16:72, 30:21, 49:13, 53:45, 75:39, 78:8, 50:7, 51:49)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의 영혼으로부터 기원했음을 반복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남녀가 평등한 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스마 바를라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쿠란에서 보면 남녀는 짝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존재론적으로 같기 때문에 서로 동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쿠란이 남녀를 동등한 존재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남녀가 섭리적으로 사랑과 상호 인정 속에서 공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Barlas 2002, 134)

마지막으로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은 쿠란이 남녀를 똑같은 이성적 사고 능력을 지닌 동등한 인격체로 보고 있다는 증거로 쿠란 9장 71절에 언급된 남녀는 서로에 대해 ‘보호자(Awliyā)’란 개념을 예로 들고 있다.

“남녀 신앙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한 보호자(Awliyā)라. 그들은 선을 행하고 사악함을 멀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자카트를 바치라 하셨노라...” (쿠란 9:71)

아스마 바를라스는 상기 구절에서 언급된 보호자(Awliyā)라는 단어를 근거로 쿠란은 남성과 여성을 도덕성이나 지적인 능력에서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녀는 이 단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울리야(Awliyā)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보호자란 의미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그 보다 더 넓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낱말은 남성과 여성은 상대방의 안내자이고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의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고, 그 관계는 사랑과 자비로 특징지워진다.”(Barlas 2002, 147-148)

2. 2차 종교 문헌(하디스, 타프시르)의 권위 해체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슬람 페미니즘은 쿠란이 원칙적으로 남녀평등을 지지하고 가부장주의를 반대하

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란이 남성중심주의적 시각에서 읽혀온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하디스(Hadīth)나 주석서(Tafsīr)와 같은 2차 문헌들이 고대의 가부장적 사고관을 크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슬람이 발흥한 후 수세기 동안 이슬람 법학의 형성 과정에서 하디스나 주석서와 같은 2차 종교문헌들이 대거 등장했는데 당시 아랍 사회는 여성에 대한 혐오나 편협이 팽배해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여성혐오주의 시각이 쿠란 주석서나 하디스에 반영됨으로써 이슬람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2차 종교문헌을 통해 여성혐오주의가 이슬람 속에서 텍스트화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2차 종교문헌들이 쿠란 자체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무슬림들은 쿠란 자체와 그 주석서인 타프시르를 혼동하기에 이르렀다.

아스마 바를라스는 쿠란과 주석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이 모호해짐으로 인해 많은 혼동이 야기되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이슬람적(Islamic)’이라고 이름 붙인 많은 준거와 행위가 사실 쿠란의 가르침으로부터 유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텍스트로서의 쿠란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거나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읽음은 여러 가지 읽음 중 하나일 뿐이며 어느 특정한 읽음이 절대적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쿠란과 주석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어떤 주석도 쿠란처럼 절대적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아스마 바를라스는 자신이 무슬림 신자임을 밝히며 쿠란이 신의 말씀으로서 절대적 권위를 갖는 텍스트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가부장주의에 기반한 전통 주석서와 그 속에서 발견되는 남성중심적 쿠란 해석 방식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믿는 여성(believing woman)’으로서 쿠란을 읽는다. 믿는 여성이란 말은 쿠란에서 나오는 용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나는 쿠란이 신의 말씀이라는 존재론적 지위와 실제로 알라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주장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는다. 무슬림들은 이 두가지를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나는 쿠란에 대한 가부장적인 읽음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만큼은 의문을 제기한다. 알라가 말씀하신 바와 우리가 알라의 말씀이라고 이해한 바는 이슬람 신학의 차원에서 서로 구분된다. 나의 의문은 이 같은 신학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Barlas 2002, 19)

한편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은 타피시르와 더불어 하디스 역시 이슬람 문화 속에 반(反)여성적인 담론을 제공한 원흉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파티마 메르니시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망 직후부터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디스 수집에 관여해 왔으며, 그 와중에 가부장적인 남성 엘리트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위조된 하디스를 계속 사용했다고 지적한다. 바로 여기에서 파티마 메르니시는 남성 엘리트가 독점해온 가부장적인 쿠란 해석을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디스에 대해 엄밀한 학문적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강조한다.

파티마 메르니시는 자신의 저서 『정치적 하렘(Le harem politique)』에서 『부카리의 하디스 정전(Sahih al-Bukhari)』에 수록된 하디스 이야기 가운데 여성의 권위를 폄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개 구절을 소개한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아부 바크라(Abu Bakra)가 처음 전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에게 일을 맡기는 자는 번영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이고, 두 번째는 아부 후라이라(Abu Hurayra)가 처음 전한 것으로 여겨지는 “예언자께서는 개, 당나귀, 여성이 예배자 앞을 지나갈 경우 �블라(qibla)를 가려 결국 예배를 방해하고 만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이다.

파티마 메르니시는 상기한 여성 폄훼의 내용을 담은 하디스 구절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그 것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경위를 통해 후대에 『부카리의 하디스 정전』에 수록되었는지 검토한다. 그녀는 알 아스칼라니(al-‘Asqalani)의 저서 『파트흐 알 바리(Fath al-bari)』와 14세기 이집트 출신 학자 이맘 자르카시(Imam Zarkashi)의 저서 『알 이자바(Al-Ijaba)』 등의 문헌 조사를 통해 상기 두 구절의

최초 전달자인 아부 바크라와 아부 후라이라가 전혀 신뢰할 없는 인물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부 바크라의 경우 제2대 칼리파 우마르(‘Umar)의 재위 시절 간음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다가 위증했다는 죄목으로 태형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또한 아부 후라이라는 평소에 여성에게 불리한 하디스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발설했던 자로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아내였던 아이샤(‘Aisha)는 그가 전한 이야기가 전혀 근거 없는 허위라고 반박하며 정정했다고 전해진다.

바로 여기에서 파티마 메르니시는 비록 『부카리의 하디스 정전』이 이슬람 사회에서 ‘쿠란 다음으로 중요한 서책’이라고 표현될 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하더라도 맹목적으로 신뢰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상기한 예처럼 부카리조차 신뢰가 의심되는 이야기를 하디스 문헌에 수록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만큼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 것처럼 권위 있는 하디스조차 확대경을 갖다 대고 철저히 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인가? 말리크 이븐 아나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말한다. 다른 율법학자와 마찬가지로 알 부카리는 하디스 수집을 시작할 때 알라께 도움을 청했고 오직 알라만이 무오류의 존재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이다. 율법학자나 이ما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Mernissi 1991, 76)

3. 역사적 해석을 통한 시대착오적 쿠란 해석 바로 잡기

쿠란에는 남녀의 권리에 차별을 두는 듯한 내용을 담은 구절이 상당 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결혼, 이혼, 상속, 증언 등과 관련된 구절은 대부분 남녀 권리의 차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은 쿠란에 가부장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쿠란이 그것을 옹호하거나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차별적인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실제로 당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원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즐루르 라흐만이 제안했던 대로 사회·역사적 문맥(socio-historical context) 속에서 쿠란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가부장적 체제가 만연해 있었고 여성을 비하하는 문화가 일반적이었던 7세기 아라비아 반도의 시대 상황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파즐루르 라흐만은 쿠란이란 텍스트가 단 한 번에 알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함마드와의 대화를 통해 22년 동안 점진적으로 내려진 계시의 집적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계시의 순간 이미 쿠란은 예언자가 살았던 세계의 언어, 문화, 정치, 경제, 종교 등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 같은 사회·역사적 문맥을 보지 않고 계시의 문구에만 얽매어 그것을 모든 시대, 장소, 환경에 무조건 적용하려 한다면 시대착오적인 쿠란 읽기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쿠란의 계시 내용은 크게 법적인 조치(Legal Enactment)와 윤리적 권고(Ethical Injunction)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는 당시의 환경에서만 유의미한 임시방편적 성격을 지닌 특수한 명령인데 반해, 후자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인 윤리적 원리에 해당한다. 그는 특수한 명령과 보편적 원리 두 가지를 혼동할 경우 시대착오적 읽음이라는 심각한 오류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쿠란은 보다 구체적인 사회개혁을 통해 가난한 자, 고아, 여성, 노예, 채무에 시달리는 자 등과 같은 공동체 내의 약자의 입지를 강화하고자하는 목표를 지향했다. 쿠란이 지향한 사회 개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만일 우리가 법적인 조치(Legal Enactment)와 윤리적 권고(Ethical Injunction)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쿠란의 가르침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개혁과 같은 난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ahman 1980, 46-47)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은 상기한 파즐루르 라흐만의 역사적 해석 방법론을 받아들여 여성과 관련된 쿠란 구절 가운데 무엇이 임시방편적인 특수한 명령이고 또 무엇이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할 윤리적 가치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쿠란에서 아내를 4명까지 허용했다면 4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계시가 7세기 메디나라는 환경 속에서 지향하고자 했던 보편적인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아내의 수를 4명으로 제한한 것은 개혁적인 조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기준에서 취해진 개혁이었을 뿐이다. 만일 이 같은 쿠란의 명령을 오늘날에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더 이상 개혁적인 조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쿠란이 추구하고자 했던 보편적 가치를 재현하는 것이다.

1) 일부다처제에 대한 역사적 해석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은 역사적 맥락에서 벗어나 특수한 조치와 보편적 원리를 혼동한 대표적인 예로서 쿠란 4장 2~3절을 예로 든다. 이들은 보수적인 무슬림 학자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일부다처제를 보편적인 율법의 규정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한다.

“고아들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줄 것이며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 말라. 그리고 고아들의 재산을 갈취하여 너희 것으로 만들지 마라. 이것은 크나 큰 죄악이라. 만일 너희가 고아들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염려된다면 그 가운데 좋은 여성과는 결혼하라. 두 명 또는 세 명 또는 네 명도 좋으니라. 그러나 그녀들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염려된다면 오직 한 명의 고아 또는 네 오른손이 소유한 여성(포로) 하고만 결혼하라. 너희를 부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나으니라.” (쿠란 4:2-3)

파즐루르 라흐만은 상기한 쿠란 구절(4:2~3)이 제시될 무렵 잦은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많이 발생했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쿠란은 전쟁고아를 돌보아야 할 책임을 가진 보호자가 오히려 그들이 물려받은 유산을 부당하게 착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이 구절 뿐만 아니라 쿠란의 메카장과 메디나장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이 구절의 정확한 뜻은 보호의 책임을 맡은 자가 고아가 된 여성의 재산을 정직하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고아가 된 여성과 최대 4명까지 결혼할 수 있되 그녀들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을 경우로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파즐루르 라흐만은 일부다처의 허용은 임시방편적인 법적 조치일 뿐이고, 한명의 아내에 만족하라는 권고는 쿠란이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Moral Ideal)이라고 구분 짓는다. 다시 말해 쿠란은 궁극적으로 일부일처제를 이상향으로 추구했지만 당시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일단 법적으로 네 명의 아내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아라비아 사회에서는 이슬람 도래 이전부터 일부다처제도가 만연해 있었고 결혼의 횟수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다처제를 한 번에 완전히 없애는 것은 무리였고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네 명까지로 제한한 것이다(Rahman 1980, 48).

아스마 바를라스는 이 같은 파즐루르 라흐만의 해석을 받아들여 상기 구절(4:2~3)은 오직 전쟁고아들을 돌보기 위한 목적에서만 임시방편적으로 허용된 것이며,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것은 시대적 맥락을 전혀 고려치 않은 잘못된 해석의 결과라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쿠란에서 일부다처는 아비를 잃은 여성 고아를 공정하게 다루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다처제에 대한 쿠란의 주석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문맥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악명이 높다.” (Barlas 2002, 190)

2) 여성의 증언과 상속에 대한 역사적 해석

일반적으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는 법정에서 여성의 증언은 남성이 갖는 효력의 절반에 해당하고 여성이 상속 받을 수 있는 재산 역시 남성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이슬람 페미니즘은 이 같은 관행 역시 쿠란 구절을 역사적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수한 명령을 일반화한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여성의 증언 및 상속과 관련하여 이슬람 페미니스트가 문제를 삼고 있는 쿠란 구절은 아래와 같다.

“믿는 자들이여 일정기간 채무를 계약할 때는 서식으로 기록하되 너희 가운데 서기가 공정하게 쓰도록 하라 ...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두 명의 남자가 증언하도록 하라. 만일 남자 두 명이 없을 경우는 너희들이 증인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이 증인이 된다. 두 여성 중 한 명이 잘못 한다면 다른 한 명이 상기시켜 줄 것이다 ...”(쿠란 2:282)

“알라께서 너희 자녀 상속에 대해 말씀 하셨다. 아들에게는 두 명의 딸에 해당하는 몫이 주어진다. 두 명 이상의 딸만 있다면, 그녀들에게는 상속재산의 삼분의 이가 주어진다. 외동딸의 경우 그녀에게는 상속재산의 절반이 주어진다 ...”(쿠란 4:11)

파즐루르 라흐만은 여성의 법적 증언과 관련된 쿠란 구절 2장 282절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임시방편적 명령이었다고 지적한다. 당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금융 거래에 익숙하지 않았고 따라서 남성과 비교하여 채무

계약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전통적으로 이슬람 법학자들은 여성 증인 2명은 남성 증인 1명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왔으며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면 ‘비이슬람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파즐루르 라흐만은 오늘날 여성의 금융 거래와 관련된 지식과 능력이 향상된 이상 상기 명령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여성의 증언이 남성의 절반으로 밖에 간주되지 못했던 것은 당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여성의 기억 능력이 남성에 비해 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거래와 관련된 여성의 능력이 향상된 이상 -이 같은 현상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다- 여성의 증언은 남성과 동등해져야 마땅하다.” (Rahman 1980, 49)

아미나 와두드 역시 법적 증언과 관련된 파즐루르 라흐만의 해석에 동의하며 쿠란 2장 282절의 내용은 당시의 특정한 시대적 상황하에 관련된 것으로 오늘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언급한다. 상기 구절은 여성의 증언 효력이 남성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아미나 와두드의 견해에 따르면, 상기 구절은 당시 여성이 사회적 지위가 열악하여 강요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할 우려가 컸고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시된 것이었다. 만일 여성 두 명이 증언을 하게 된다면 한 명이 오류를 범한다하더라도 다른 한 명이 그것을 바로 바로 잡아주면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명의 여성이 한 조를 이루어 역할을 분담할 경우 각 여성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증언자에 맞서 연합할 수 있게 된다(Wadud 1999, 85-86).

여성의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파티마 메르니시 역시 쿠란 4장 11절이 제시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했는지 역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녀는 이 구절을 통해 이슬람 초기 여성이 상속의 권한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슬람 이전 시기에 여성은 낙타나 야자수나 무처럼 상속 대상에 포함되는 물건처럼 취급받았으나, 이슬람 도래 이후에는 반대로 상속의 주체로 바뀌었다. 물론 여성이 상속 받을 수 있는 재산은 남성과 동등하진 않았지만, 이슬람 이전 아라비아 반도에서 여성이 아무런 상속권을 주장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획기적인 발전이었던 것이다. 파티마 메르니시는 이 같은 변화야말로 진정한 이슬람의 남녀평등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Mernissi 1995, 120-126)

3) 베일에 대한 역사적 해석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은 베일과 관련된 쿠란 구절 해석 역시 특정 시대의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특수한 명령이 보편적 원리인 것으로 둔갑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는다. 많은 무슬림 학자들은 여성으로 하여금 몸이나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착용하라는 율법적 명령이 쿠란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이 자주 인용하는 쿠란 구절은 다음과 같다.

“예언자여 그대의 아내들과 딸들 그리고 믿는 여성들에게 몸에 외투(jalābīb)을 걸치라고 말하라. 그렇게 함이 가장 편리함이라. 이로써 그녀들은 구분되어 희롱당하지 않을 수 있다. 실로 알라는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위선자들, 마음이 병든 자들, 도시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들. 만일 이들이 중지하지 않는다면, 나 알라는 너희를 세워 그들과 맞서게 할지니. 그때 그들은 곧바로 도시에서 머물지 못하게 되리라.” (쿠란 33:59-60)

“남성 신도들에게 이르라. 그들에게 시선을 낮추고 정숙함을 지키라고 말하라. 이는 그들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 것이다. 실로 알라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아시니라. 여성 신도들에게 이르라. 그녀들에게 시선을 낮추고 정숙함을 지키라고 말하라. 그녀들은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아름다움 그 이외의 것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녀들은 가슴 위에 가리개(khumur)를 걸쳐야 한다...” (쿠란 24:30-31)

베일과 관련된 상기 두 개 구절과 관련하여 아미나 와두드는 쿠란이 말하고자 하는 보편적 원리는 정숙함에 관한 것이지 7세기 아랍인들이 입었던 특정한 의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당시 시대적 기준으로 정숙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베일이었을 뿐이며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뀌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미나 와두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계시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오직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부족 출신의 여성만 베일을 착용하거나 격리될 수 있었으며 이것은 보호의 의미를 지녔다. 쿠란은 정숙의 미덕을 권장하며 당시에 행해졌던 관행을 통해 그것을 표현하고자 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미덕이라는 보편적 원리이지, 베일 착용이나 격리와 같은 특정한 시대의 표현방식이 아니다.”(Wadud 1999, 10)

베일과 관련된 상기 두 구절에 대해 아스마 바를라스는 먼저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베일을 착용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우선 상기에서 언급된 외투(jalābīb)와 가리개(khumur)는 일반적으로 가슴과 목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얼굴, 머리, 손, 발 등을 덮지 않기 때문이다. 쿠란은 그 어떤 구절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베일의 착용을 강요하고 있지 않다. 9세기 무렵까지 여성은 베일을 쓰지 않은 채 모스크에서 예배를 보았으며 오늘날에도 성지 순례를 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Barlas 2002, 55).²⁾

이와 더불어 아스마 바를라스는 쿠란 33장 59~60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시와 관련된 시대적 상황과 목적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당시 아라비아 사회에서는 노예제도가 만연해 있었고 여성 노예에 대한 성적 학대나 희롱이 매우 빈번했다. 아랍지역을 포함한 고대 사회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일반 여성과 노예 또는 매춘 여성을 구분하기 위해 베일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계시가 내려질 무렵 비무슬림 남성들이 무슬림 여성을 희롱하는 경우가 잦았고 심지어 예언자의 부인 아이샤(‘Aisha)조차 험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아스마 바를라스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상기 계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성을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당시 아라비아 사회에서 무슬림 여성을 성적 희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외투를 착용하는 것이었을 뿐이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에서 의도된 보편 원리는 여성의 보호이며, 그 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적 수단은 외투를 착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대적 환경이 변하면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성폭력 방지법 제정 등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런데 오직 외투(jalābīb)라는 단어에 집착한 나머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무조건 베일을 착용하라고 강요한다면 이것은 쿠란의 근본적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본말을 전도시키는 시대착오적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Barlas 2002, 57).

3)

IV. 결론

2) 쿠란에는 외투(jalābīb)와 가리개(khumur) 외에 ‘히잡(hijab)’이란 단어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 단어 역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일 의상과 거리가 멀다. 쿠란에서 언급된 히잡은 여성이 착용하는 의상이 아니라 단순히 장막을 뜻한다. 다음 구절을 참고하기 바람. “너희가 예언자의 부인에게 무엇인가를 물을 때 장막(hijab) 뒤에서 묻도록 하라. 그렇게 함이 너희 마음과 예언자 부인들의 마음을 위해 순결한 것이다.”(쿠란 33:53)

3) Asma Barlas, *"Believing Women" in Islam: Understanding Patriarchal Interpretations of the Qur'a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2. p.57.

이슬람 페미니즘은 1980년대를 전후로 기존의 세속적 페미니즘이 한계와 위기에 봉착하자 그 대안의 모색 과정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 때까지 아랍과 이슬람 세계에서 페미니즘 운동은 사회 및 정치적 개혁을 통해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교육, 노동, 정치 참여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서구 세계의 페미니즘과 크게 구분되지 않았고, 그 결과 보수적인 이슬람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서구 세속주의에 물든 반(反)이슬람주의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이슬람 페미니즘은 과거 세속주의 페미니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쿠란과 하디스를 비롯한 종교 텍스트를 여성적 시각에서 새롭게 읽기 시작했다.

이슬람 페미니즘이 시도한 여성 시각에서의 쿠란 읽기의 특징은 크게 ‘남녀평등 원리의 원천으로서의 쿠란’, ‘2차 종교 문헌(하디스, 타프리스)의 권위 해체’, ‘역사적 해석을 통한 시대착오적 쿠란 해석 바로 잡기’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은 쿠란 4장 1절, 쿠란 36장 36절, 쿠란 9장 71절 등에 언급된 ‘영혼(nafs)’, ‘짝(zawj)’, ‘보호자(awliya)’ 등과 같은 낱말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쿠란은 원칙적으로 남녀평등의 원칙을 지지하고 가부장주의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은 쿠란과 기타 2차 종교 텍스트(하디스, 타프시르)를 엄격히 구분한다. 이들은 쿠란이 여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잘 못 읽혀진 것은 쿠란 해석 시 기초 자료가 되는 하디스와 타프시르가 고대 가부장주의적 사고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들은 하디스와 타프시르의 권위를 해체하는 작업이야말로 쿠란을 올바르게 읽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은 쿠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일부다처제와 관련된 구절(쿠란 4장 2~3절), 여성의 증언과 상속에 관한 구절(쿠란 2장 28절, 쿠란 4장 11절), 베일에 관한 구절(쿠란 33장 59~60절, 쿠란 24장 30~31절) 등은 모두 역사적 문맥에서 벗어난 잘못된 읽음의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한다.

이슬람 페미니즘은 이슬람 역사상 최초로 여성의 시각에서 체계적인 쿠란 해석론을 정립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슬람 페미니즘이 이슬람 사회 안팎에서 보다 보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다. 첫 번째로 독자층 저변 확대 문제다. 현재 이슬람 페미니즘을 연구하는 학자 대부분은 서구권에서 활약하며 작품 활동도 영어나 프랑스어 등 서구 언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권 일반 독자들에게 어필되기에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실천 문제다. 현재 이슬람 페미니즘은 대부분 쿠란에 대한 재해석이란 학술적 활동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이고 남녀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 같은 장애 요소를 극복하는데 성공할 경우 향후 이슬람 페미니즘은 여성뿐만 아니라 인종적, 종교적,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능우(2006). “이집트 현대 여성문학 개괄과 살와 바크르의 작품세계 고찰”, 『중동여성문학의 이해 3: 북아프리카와 터키지역의 여성문학 연구』, 21세기 중동이슬람문명권 연구 사업단(위음), 파주시, 한울, 184-267.
- 조희선(2015). 『변화하는 무슬림 여성: 코란, 하디스, 이슬람법 샤리아에서 여성읽기』, 서울, 세창출판사
- 최영길 역.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파흐드 국왕 꾸란 출판청
- ‘Abdullah Yūsuf ‘Alī(1989). *The Holy Qur’ān: Text, Translation and Commentary*, Brentwood, Amana Corporation.
- Abū Zaid, Naṣr Ḥāmid(1990). *Maḥmūd al-Naṣṣ*, Bairūt wa al-Dār al-Baiḍā’, al-Markaz al-‘arabī.
- Badran, Margot(2009). *Feminism in Islam: Secular and Religious Convergences*, Oxford, One World.
- Barlas, Asma(2002). “Believing Women” in Islam: Understanding Patriarchal Interpretations of the Qur’an, University of Texas Press.
- Barlas, Asma(2006). “Women’s readings of the Qur’ān”,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e Qur’ān*, Jane Dammen McAuliffe(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55-271.
- Hassan, Riffat. “Religious conservatism”, http://www.irfi.org/articles/articles_101_150/religious_conservatism.htm(Search: 2015.4.17.).
- Hattmannsdorfer, Helena(2012). “Islamic Feminism and Deconstructive Reading of the Qur’an”, University of Vienna.
- Mernissi, Fatima(1991). *The Veil and the Male Elite: A Feminist Interpretation of Women’s Rights in Islam*, Mary Jo Lakeland(tr.), Addison Wesley.
- Mernissi, Fatima(1995). *Women and Islam: An Historical and Theological Enquiry*, Mary Jo Lakeland(tr.), Oxford, Blackwell.
- Lichter, Ida(2009). *Muslim Women Reformers: Inspiring Voices against Oppression*, New York, Prometheus Books.
- Rahman, Fazlur(1980). *Major Themes of the Qur’ān*, Minneapolis, Bibliotheca Islamica.
- _____(1982). *Islam and Modern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ott, Rachel M.(2009). “A Contextual Approach to Women’s Rights in the Qur’ān”, *The Muslim World, Volume 99*, 60-85.
- Suha Jaji-Farouki(ed.)(2004). *Modern Muslim Intellectuals and the Qura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Wadud, Amina(1999). *Qur’an and Women: Reading the Sacred Text from a Woman’s Perspective*,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지중해. 유라시아-아프리카의 바다

김 정 하*

I. 지중해는 어떤 (문명 정체성의) 바다인가?

오늘날 지중해는 유럽의 남부와 북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한 바다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남북의 두 극단에 포진한 종교의 바다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유럽 기독교 문명과 아프리카의 이슬람 문명이 마주하는 바다이다. 지중해에 대한 이분법적이고 대칭적인 인식의 근원에는 19세기의 역사학자인 부르크하르트¹⁾가 있었으며, 이후 피렌트의 ‘마호메트-샤를르 마뉴의 바다’에 기준하는 재해석을 거쳐 21세기에는 브로텔의 ‘유럽-아프리카의 바다’로 계승되었다. 지중해 연구의 19세기 전통은 지금까지도 사상과 이념, 역사철학과 역사연구 그리고 현대사 민사회에서도 새로운 요인으로 거듭나기 보다는 관습의 명분으로 현존한다.

본 발표에서는 지중해를 유럽-아프리카의 바다로 정의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 이유는 지중해에 대한 이분법적 역사해석이 인간과 이성을 중시하는 당대 유럽사회의 지적인 토양에서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우열의 법칙에 따라 해석되었으며 서구사회의 권력과 이념적인 구도로 활용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연구에 있어 해석은 실제로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며 ‘기록된 기억들’의 본질을 관통하지는 못한다. 역사에 있어 “[...]는 그렇다”. 또는 “[...]하다”는 궁극적으로, 전체와 부분의 양면적이고 통시적인 시야를 가지지도, 주관과 객관의 경계에 익숙하지도, 그리고 시공의 한계를 벗어날 수도 없는 우리에게는 경계해야 할 유혹이 아닐 수 없다. 발표자는 역사 들여다보기를 담보한다거나 역사의 객관성을 운운하지 않을 것이다. 관점을 바꾸면 새로움이 있다고 했다. 본인은 역사가 아닌 ‘역사해석’의 측면에서 지중해 문명에 대한 서구중심주의(또는 유럽중심주의)를 비판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문명 간 교류’, 즉 양자 간의 대칭적인 구도를 잉태한 과거 유럽문명 중심의 관점 또는 ‘현재를 설명하기 위한 과거 해석’을 멀리하면서 ‘다자간(多者間) 접변’의 관점에서 [지중해=바다(유라시아+아프리카)]의 공식을 제안해 보려고 한다.

II. 지중해와 유럽 중심주의 역사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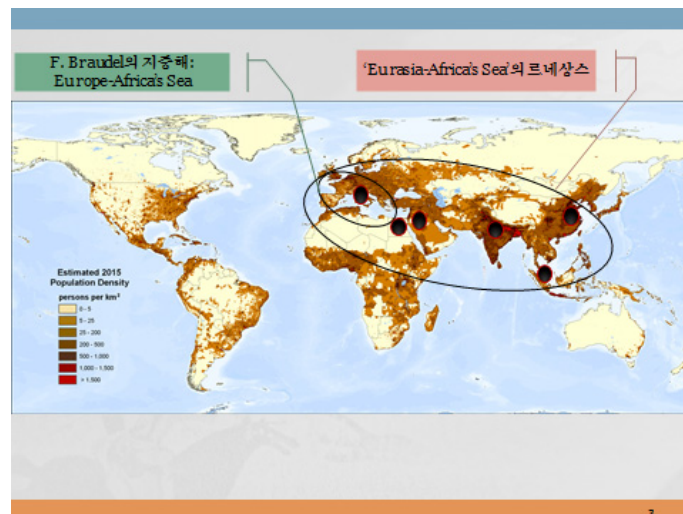
지중해가 기독교 유럽과 북아프리카 이슬람의 바다라는 발상은 시기적으로 근대유럽의 태동과 일치한다. 유럽의 역사에서 19세기는 정치와 군사, 경제, 과학과 기술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전 시대의 그 어떤 변화나 진보와도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발전이 실현된 기간이었다. 디지털과 우주시대로 대변되는 작금도

*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사실상 지난 19세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부르크하르트(Jacob Christoph Burckhardt, 1818-1897)는 동시대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 유럽문명의 근대성을 설명하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역사학자의 신성한 임무라고 생각하였다. 그에게 있어 ‘이탈리아 반도의 르네상스’는 그 자신이 ‘탈 중세적’이라고 정의할 만큼 이전세기들과는 차별화된 변화의 시대였다. 그리고 이러한 european civilizational turning point의 근원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유산이었다. 그의 연구는 유럽의 위대함에 첫 호흡을 불어넣는 유럽대륙의 신화들과 Made in Europe의 정체성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기원하며 이성과 과학을 무기로 생존의 투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유럽의 차별화를 전제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부르크하르트에게 있어 19세기의 유럽은 오랜 암흑 속에 묻혀 있던 고대 그리스-로마의 유산을 발굴한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지성들에 의해 발아된 이성과 과학의 문명적 승리였으며 르네상스로 정의한 14-16세기는 그 단초, 즉 위대한 근대의 시작점이었던 것이다.

[그림 1] 브로델의 지중해와 유라시아-아프리카의 지중해



피렌느(Henri Pirenne, 1862-1935)가 바라본 지중해 역시 19-20세기의 유럽을 차별화하기 위한 역사무대였다. 마호메트가 없었다면 샤를르 마뉴(Carlus Magnus)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은 서로의 근본적인 상호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지중해의 남부지역을 차지한 이슬람의 의미는 유럽대륙에 기독교, 그것도 로마교회의 교리를 따르며 동시에 로마제국을 계승한 게르만 최초의 기독교 제국이 성립하기 위한 자극요인, 즉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리고 문명적으로 강력한 적 앞에서 더욱 용기를 내는 기독교 신앙의 발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샤를르 마뉴의 위대함에 대한 평가 그 이면에는 반기독교적이고 악마적이며 결국에는 정의에 의해 격퇴되는 이슬람이 있었으며 이러한 구도는 당시의 프랑크 문학작품들을 통해 위대한 게르만 황제의 신화에 일조하였다.

위의 두 학자로 대표되는 19-20세기 지중해 연구의 전통은 브로델의 최근 연구로 계승되었다. 브로델은 지중해와 이를 둘러싼 지역들의 역사-문화적인 경계를 ‘유럽-아프리카의 바다’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지중해는 부르크하르트에게는 ‘탈 중세의 바다’, ‘고대 그리스-로마에 기원하는 19세기 유럽문명’의 바다 그리고 ‘이성과 과학에 의한 근대유럽의 신화’가 성립된 바다이었으며, 피렌느에게는 ‘이슬람에 승리한 기독교 유럽의 신화’를 상징하는 바다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과거사 연구에는 시대착오적인 모순이 있다. 즉, 두 학자가 살았던 18-19세기는 유럽의 중심이 지중해를 떠나 유럽대륙으로 옮겨간 이후였다. 또한 이들의 시대에 지중해는 유럽-아프리카의 바다나 다름없었으며 더구나 유라시아 대륙을 불던 문명 간 교류의 바람은 과거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불고 있었다. 반면 부르크하르트가 역사가의 눈으로 바라본 14-16세기에 지중해는 오래전부터 유라시아-아프리카의 바다였으며 거대한 대륙의 지역문명 간 교류의 바람은 아시아에서 유럽을 향해 불고 있었다. 이들이 자신의 시대를 기준으로 과거를 바라본 것은 역사가의 본분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여파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이탈리아의 앞바다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은 문명적 접변이나 역사적 혼종성의 가치보다는 단순한 지리적 의미의 대칭적 공존(Symmetrical Coexistence)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유럽시민들과 유럽연합의 반응은 이들이 인종에서 문화와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차,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대칭적인 구도’라는 19-20세기 역사인식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II. 유럽 중심주의와 직선적 역사인식

오늘날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중동지역 이슬람의 관계는 과거 지중해를 양분하던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구도와 사실상 일치한다. 근대적 역사인식의 유산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계승된 것이다. 유럽중심주의적인 역사인식은 한쪽을 기준으로 양자의 관계를 기술하고, 결론을 전제로 그 과정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것은 일종의 운명론적 역사기술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 문명권이 남긴 직선적 역사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유럽의 눈에 비친 이슬람은 무엇이였을까? 이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을 계기로 성립된 직선적 역사인식이며, 둘째는 19세기 유럽의 근대역사학 성립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역사는 하나님(Deus)과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추구하는 구원의 삶과 사람들이 악마의 유혹에 빠진 채 살아가는 세속의 삶(Civitas terrena) 간의 투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자의 승리로 영원한 평화가 이룩되는 것이었다.¹⁾ 그의 역사인식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삶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며 신이 계획한 역사의 여정, 즉 시간이 직선적으로 흐른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후 유럽의 역사학 연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간의 직선적 흐름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어 또는 전후의 관계에 있어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논리의 개념은 합리적 포괄성으로 확대되었으며 궁극에는 14-16세기의 ‘인간’에서 발아된 인간이성, 즉 신의 섭리에 대한 인간이성의 승리와 문명에 대한 색다른 견해로 발전하였다.²⁾ 하지만 이 인간이성은 시대적 배경으로 고려할 때 19세기의 ‘물질이 정신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과 ‘대량생산’ 그리고 자본에 편승한 물질주의적 이성이었을 뿐, 순환적 역사인식에서 볼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의 균형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

유럽의 근대역사학 성립에 있어 부르크하르트의 르네상스 사례연구는 유럽의 물질적 승리(?)를 확인하기 위한 인문적 노력의 한 부분이었다. 19세기 근대역사학은 고대 그리스의 지중해를 유럽 근대성의 요람으로 간주하

1)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 ‘Civitas’는 도시의 의미보다는 구원을 위한 영적인 공간 또는 몰락에 이르는 세속적인 삶의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서양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는 행위나 그 과정을 문화로 이해한다(정수일, 『문명담론과 문명교류』, 살림, 2009, p. 42).

였으며 위대한 유럽의 논리적 전개를 위한 이성적 판단의 근거로서 이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슬람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反)이자 유럽기독교 문명이 도달하게 될 궁극적인 승리의 합(合)을 위한 운명적 패배의 주체 또는 악의 축이었던 셈이다.

오늘의 발표에서 본인은 오늘날까지도 유럽의 안과 밖에서 이슬람 세계와의 대화에 인식해하거나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유럽대륙에 대해, 적어도 이 대륙의 이슬람적 근원(뿌리)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현대 유럽의 대 이슬람 패러다임을 대변하는 “유럽-기독교, 아시아-이슬람의 방정식”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유라시아-아프리카 대륙에 성립된 지역문명들이 그 주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나름의 고유한 역할을 통해 역사-문화적인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적하려고 한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유럽의 이기적 역사관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비판의 핵심은 세계를 바라보는 유럽의 제국주의적인 시각, 즉 동양에 대한 서양의 왜곡된 이념과 이에 따른 해석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서양과 동양을 ‘예외’와 ‘타자’로 바라보는 이분법적인 구도에서³⁾ 그리고 지중해를 유럽과 북아프리카로 양분한 역사적 관점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또한 기독교 선악의 관점에서 자타(自他)의 관계는 공존이나 서로의 발전을 위한 파트너가 아니었으며 선의 승리와 악의 패배로 갈릴 운명의 적이었다. “유럽 도서관에 있는 한 서가의 책이 인도와 아랍에 존재하는 모든 문학을 합친 것보다 더 훌륭하다”⁴⁾는 말은 관계의 대칭성, 대결적 구도의 유럽근대역사연구 전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물질의 승리를 타자에 대한 지배의 정당한 이유로 자축하는 것은 불(火)에 불(火)을 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의 또 다른 측면은 이러한 역사연구의 경향이 19세기의 산물일 뿐 그 이전까지는 서양의 유럽이 유라시아의 아시아 지역들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었다는 논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오히려 19세기 유럽의 문명적 발전은 역사를 통해 과거로 소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유럽이 지목한 타자는 기독교 유럽에 의해 열등한 타자로 불릴 세계가 아니었다. 또한 19세기 이전의 지중해 세계, 특히 14세기를 전후한 기간에 지중해의 유럽인들과 아랍-무슬림은 이븐 칼둔의 말처럼, 대결이 아닌 글로벌 파트너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⁵⁾

그럼 19세기 유럽중심주의적인 역사인식과 이에 대한 사이드와 프랑크의 비판 또는 로버트 제이시(J. C) 영의 『백색신화』의 반박은 충분한 것일까? 같은 논리 선상에서의 논의와 담론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설득력있는 대안인가의 자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비판으로 통해 원인과의 논리적 균형을 맞추는 일은 같은 형상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관점이나 분석이 기준이 동일할 경우 어떤 자료를 어떻게 분석했는가의 지루한 논쟁으로 전락할 수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우선적으로 역사철학의 관점에서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원인과 결과 그리고 전후의 논리적 관계에 근거하며 기독교-유대 전통에 따라 선악의 관점에서 상대를 바라보았던 직선적 역사인식을 대체하는 순환적 역사인식이 그것이다. 본 발표에서 순환적 역사인식의 유용성은 동양의 경우 자연과 인간의 균형, 즉 순환의 원리에 있어 자연과 인간의 균형에 노력함으로써 서로를 서로의 발전에 필요한 상대로 인식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3) 안드레 군더 프랑크, 이희재(역), 리오리엔트, 이산, 2011, pp. 64-65.

4) <http://blog.daum.net/enature/15852969>: 검색일자 2015년 5월19일).

5) 안드레 군더 프랑크, p. 67.

IV. 대대(待對)와 유행(流行)의 바다 지중해

현대사회에서도 유럽-기독교, 아시아-이슬람의 방정식이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지중해의 경우에도 유럽-기독교, 북아프리카-이슬람의 이분법적인 구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해보자.

유럽다움은 무엇이며, 유럽은 언제부터 유럽다움을 갖추기 시작하였을까? 13세기는 유럽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였으며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이, 오늘날의 잘못된 편견과는 달리 매우 가까웠던 기간이었다. 서로간의 영향에 있어서도 상호작용은 분명하였다. 더 나아가 기독교 세계에 대한 이슬람의 영향은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세계의 영향에 비해 보다 강력하였다. 이슬람이 기독교 세계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제공한 것이 그 주된 이유인데 이들은 그리스세계, 인도문명, 페르시아 문명, 중국문명권에서 기원하는 고대의 학문과 고대 철학의 요인들이었다. 그 이외에도 수학, 천문학, 점성술, 화학, 의학에 있어 이슬람의 영향은 한층 선명하다. 아랍철학은 비록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유럽지성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고전 시대의 많은 저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경우에서 보듯이, 아랍인들 덕분에 이후의 시대로 전승될 수 있었다. 근대학문의 대부분은 그리스에 기원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를 통해 유럽에 전달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은 이후 12세기와 13세기에 절정에 달하였다. 12-13세기는 십자군의 시대와 중첩된다. 솔직히 십자군은 비교적 짧은 전쟁이었으며 특별히 지속적이고 치열한 전쟁이라기보다는 군인들 간의 전투로 국한된 전쟁이었으며 게다가 무역관계, 외교적인 관계 그리고 인적 교류까지 차단하지는 못했다. 고대의 전쟁에 대해 후대의 관점 즉, 지난 19-20세기가 경험한 대량학살의 전면전에 대한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대입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몇 가지의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해 보려고 한다. 첫째는 문명 간 교류의 관점에서 볼 때 지중해가 르네상스 기간보다는 12-13세기, 최대 14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상대적으로 가장 활발한 상통(相通)의 바다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학자들이 유럽의 역사에서 특히 12-13세기의 르네상스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14-16세기 이탈리아 반도의 르네상스를 수용한다면 이는 음양의 관점에서 볼 때 아바스 왕조 시대의 인문적 발전을 그 대대(待對)의 파트너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12-16세기 지중해에 있어 지리적인 의미는 역사-문화적인 의미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 한 발 더 나아가 문명 간 교류의 관점에서 지중해는 한 대륙의 지역 간 교류와 대륙 간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유라시아-아프리카의 바다’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러한 새로운 제안은 동서양의 관계를 교섭이라는 의미보다는 보다 큰 규모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논리와⁶⁾ 그리고 유라시아의 역사를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일 역사망으로 파악하려는 동향과도 상통한다.⁷⁾

둘째, 지중해는 문명 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유라시아의 다양한 지역문명들의 접변을 위한 바다였다. 이 시기에 이슬람(특히 아바스 왕조의 통치기간)은 당대의 기독교 유럽과 ‘대대(待對)’의 관계에 있으면서⁸⁾ 문명적 ‘유행(流行)’을 직접적으로 함께 했으며 또한 유라시아의 아시아 지역들에서 성립, 발전된 지역문명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의 문명을 지중해로 흐르게 하였던 문명교류의 주역이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발현된 교류의 대표적인 사례는 규모를 달리하는 지역문명들, 즉 고대 그리스의 소규모 폴리스 문명과 아시아권의 대규모 문명들의 접변이다. 전자의 구성원들은 개인주의, 이성적 사고, 도시중심의 삶으로 자급자족을 허락하지 않는 지중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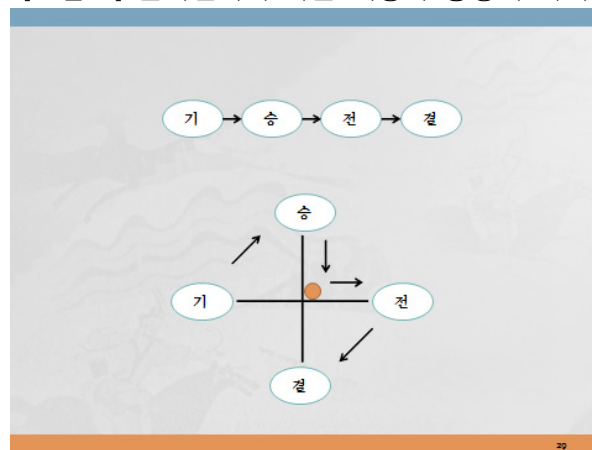
6) 정재훈, 「동서 문명의 교류를 바라보는 눈」, 『경상사학』, 18집, 2002, pp. 363-382. 같은 맥락

7) 정진숙, 2003, 서평, 군터 프랑크, 리오리엔트, 경상사학, 20집, pp. 285-292.

8) 대대(待對: 기다릴 대; 대답하다 대하다 또는 짝의 대) 유행(流行: 흐를 유, 갈 행)과 더불어, 음양(陰陽), 즉 태극(太極)을 구성하는 두 요인의 관계와 작용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원리이며, 그 의미를 확대할 경우 자연의 작동원리로 간주될 수 있다.

자연환경(또는 홉킨스가 정의한 작은 단위의 자급자족cellular self-sufficiency)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부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고대 그리스와 이를 계승한 로마공화정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을 군복무와 세금의 권리를 기준으로 ‘자유’의 이념을 구축한 것은 훗날 르네상스 연구에서 언급될 ‘개인’ 또는 ‘인간’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었으며 이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의 근대성을 위한 토양이었다. 반면 후자의 대규모 문명권은 개인의 정체성보다는 집단적 이해관계에 우선하였으며 농업기반의 정착생활에 있어 자연의 원리에 대한 관찰과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하였다. 이것은 곧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전제한 철학적 사고의 시작이며 자연의 순환적 원리와 인간의 삶이 원리상 일치하는 접점을 덕(德 Virtù)으로 간주하는 계기이자 역사철학의 관점에서는 역사순환론에 해당한다.

[그림 2] 논리전개에 따른 서양과 동양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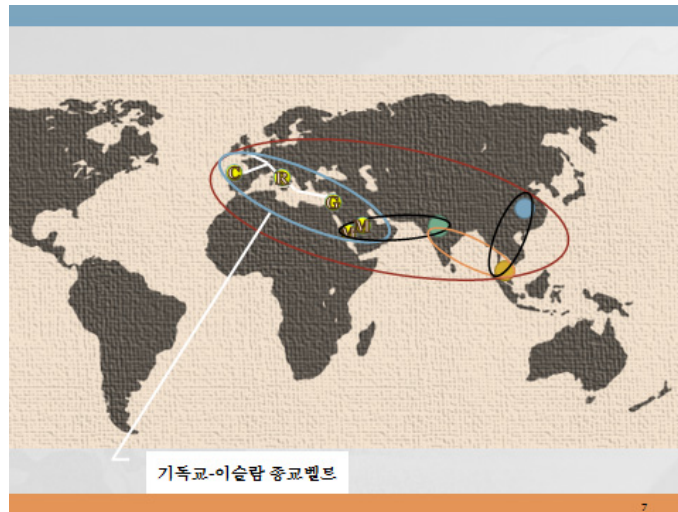
순환론적 역사인식은 서양의 경우 고대 그리스의 역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 정치형태의 변천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왕정-귀족정-참주정-민주정’의 전개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순환논리는 단순한 순환고리들의 반복일 뿐이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 지역의 발전적 역사순환론과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그럼 논리와 이성(理性)에 있어 직선적 역사인식과 순환적 역사인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승전결의 논리구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위의 [그림 2]에서 보듯이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논리에 있어 직선적 역사인식은 전후관계에서 직선적인 흐름을 보이는 반면, 주역(周易)으로 상징되는 동양의 순환적 역사인식에 따르면 기와 승, 전과 결의 관계와는 달리 승-전의 흐름은 급작스런 변화로서 무언가의 중재를 필요로 한다. 이는 음양오행의 춘하추동(春夏秋冬)에서 화극금(火克金)의 상극(相剋)을 피하기 위해 화(火)와 금(金) 사이에 토(土)가 개입하여 극(克)의 관계를 생(生)의 리듬으로 전환시켜주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그림 3] 기독교-이슬람의 종교벨트와 유라시아의 이슬람 교역권

9) 차영길, 「지중해는 로마제국을...」 pp. 77-78.



다시 말해 19세기 이성과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중재의 개념적 요인이나 상생, 상극의 공존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관계의 논리에 있어 유럽 기독교 세계는 이슬람 문명을 지중해에 공존하는, 상극과 상생을 함께 하고 함께 순환해야 할 파트너로 간주하기 보다는 극복하거나 정복해야 할 대상, 즉 상극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럼 이슬람의 ‘토(土)’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슬람 문명의 중심은 지중해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슬람은 쿠란의 가르침에 따라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에 걸쳐 활발한 경제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문명 간 교류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문명 수준에 머물고 있던 지중해에 영양분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4-16세기의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12세기를 전후한 ‘아바스 왕조의 르네상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중해에 공급된 문명의 수혈은 기독교-이슬람의 종교벨트와 유라시아 대륙의 이슬람 교역벨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종교벨트의 경우 산티아고-로마-예루살렘을 연결하는 기독교 성지들과 북유럽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성지순례의 기나긴 여정은 메카-메디나-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이슬람의 성지 그리고 메카를 향한 성지순례의 수많은 통로들과 예루살렘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종교벨트는 유라시아의 동단(東端)까지도 포함하는 이슬람의 방대한 무역루트와 연결됨으로써 사실상 유라시아-아프리카의 수많은 지역문명들에 접변의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V. 오해와 진실 ...

역사적으로 이슬람에 대해 키워진 오해들 중 하나는 이슬람과 유대공동체의 대립이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살라딘의 시대에 유대인은 유럽의 초기 박해를 피해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피신하였다. 물론 예언자 마호메트의 시대에도 유대 공동체와의 잡음은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긴장감은 기독교세계와 유대공동체의 그것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기독교 세계와 유대공동체의 적대관계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게 하였다는 기독교인들의 사고에 근거한다. 반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평화협정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였다는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실제로 이슬람과 유대 공동체의 종교적인 갈등과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학적으로 기독교의 신과 무슬림 신의 유사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이 인간적인 성격(聖子)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유대인과 무슬림 모두를 황당하게 만든다. 무슬림의 신과 유대인들의 신은 우리의 편견과는 달리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다.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이슬람에 대한 유럽의 끊임 없는 시선은, 어쩌면 유럽기독교 세계의 신앙이 직면한 자체적인 위기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스트 저널(East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이다 말리(Ida Magli)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오늘날의 세계화 시대에 서양에서 기독교의 비중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서양이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문화를 동일한 것으로 잘 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세계를 이슬람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실제로는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에 충실한 무신론자들’일 공산이 매우 크다. 이러한 무신론자들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문화적으로는 르네상스 이후 가속화된 유럽의 세속사회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라고 할 것이다. 근대는 기독교의 역할을 상당부분 외면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리의 서유럽 우월론은 이념의 주제에 있어서도 계속되는데, 유럽문명이 로마법, 인간의 우월함, 그리스 철학과 라틴어의 우월함 그리고 예술적 표현의 우월함에 근거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며, 이 모든 것이 코란을 유일한 율법으로 간주하는 이슬람과 대비된다는 주장의 근거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세 법 연구를 살펴보면 인간의 우월함은 기독교가 아닌 로마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철학적 이해가 충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뜬구름 같은 전설들’ 중 하나일 뿐이다. 실제로 기독교 세계에서도 성서와 복음서는 수용 가능한 유일한 대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의 술탄인 쉴레이만 1세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로마 황제의 상속자이며 계승자를 자처한 바 있다. 무슬림 세계에서 쉴레이만(Suleiman)을 카누니(Kanuni), 즉 샤리아가 아니라 유스티니아누스 법의 재흥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일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신학이외의 영역에서도 많은 가치를 가지는 반면, 무슬림은 오직 율법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역시 이슬람 신학에는 우리가 보기에, 신앙의 실천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적인 학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 마드라사(Madrasah)에서는 가톨릭 교육에서는 볼 수 없는 의학과 수학이 교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이다. 천문학 교육의 경우에도 그 근거는 코란에서 찾을 수 있다.¹⁰⁾ 이러한 교육적 기능은 기독교 세계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근대의 역사에서 기독교는 학문의 정당화에 의해 마치 바나나 껍질을 밟아 미끄러지듯이, 밀쳐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슬람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슬람은 근본주의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성격상 열린 상태의 자유로운 철학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슬람은 이에

10) 이슬람의 학문에 대한 열정, 예를 들어 별들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촉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슬람의 꾸란(Coran)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또한 별들을 두어 육지와 바다의 어두운 영역을 그것으로 하여 너희를 안내하고자 하였으니 그분은 지혜를 가진 백성을 위해 말씀을 세분화 하셨노라”(cit., 꾸란 6장 97절 인용, 출처?)

대한 내적인 항체들을 가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 세계에 의해 평가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문화적인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다.

이슬람에 대한 유럽의 편견은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즉, 실제로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것이라기보다는 지난 19세기에 시작된 유럽중심의 역사해석에서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 19세기는 르네상스에 대한 부르크하르트의 해석이 학계에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오늘날에는 브로델(F. Braudel)이 기독교-유럽대륙과 이슬람-북아프리카의 지중해라는 정의를 통해 19세기의 역사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시대를 기준으로 과거를 해석했다는 점, 즉 서구중심주의적인 해석의 상류이자 하류인 셈이다.

대부분의 서구학자들은 유럽 문화의 형성에 있어 그 뿌리로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계몽주의를 지적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유럽대륙의 문화 형성에 이슬람의 영향이 어느 정도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언급해 볼 필요가 있다. 단언적으로 말해 철학, 과학, 예술의 관점에서 그 영향은 지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본 발표에서는 독일의 미술사가인 한스 벨팅(Hans Belting)의 *Florenz und Bagdad*(2008)를 인용하고 싶다. 한스 벨팅은 자신의 연구에서 피렌체의 위대한 인문주의가 무슬림 세계와 특히 페르시아 문화권 지역들의 디자인(문양)에 적용되고 있던 수학에 대한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11세기 수학자 이븐 알 하이탄, 서양에는 알하젠의 이름으로 알려짐).¹¹⁾

VI. 지중해 문명 간 교류의 바다

사람이 그렇듯이, 문명 역시 홀로 성립될 수 없으며 발전을 위해서는 관계를 필요로 한다. 역사연구에 있어 해석의 주관성 여부는 역사와의 모호한 경계에 위치한다. 그럼에도 지난 19세기에 성립된 유럽역사연구의 근대성은 자(自)-타(他)의 균형을 이루는데 실패하였다.

브로델은 지난 19세기 역사연구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였다. 그 역시 과거의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중해를 하나의 연구단위로 전제하고 이를 섬과 해안 및 연안지역 그리고 만을 중심으로 세분된 크고 작은 경제단위들의 바다로 정의하였다. 그가 과거의 연구전통을 계승한 것은 지중해에 대한 지역학적인 개념을 수용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궁극적으로 20세기에 등장한 지역학은 역사의 지평을 정치-사회적인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그리고 브로델의 연구지평은 이러한 지역학의 실용적인 측면과 맞닿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중해는 적어도 19세기 이전까지 유럽대륙과 북아프리카의 이념적이고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경계의 사이에 위치한 바다가 아니었다. 또한 이슬람에게 지중해는 도심(都心)이 아니라 변방(邊方)이었다. 반면 기독교 유럽에게는 지리상의 발견으로 대서양이 유럽의 대외진출을 위한 독점적인 통로가 되기 전까지, 사실상 외부세계와 통하는 유일한 통로나 다름없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콘스탄티노플의 함락(1453)을 유럽 근대의 시작으로 간주하였겠으며 1492년의 발견에 왜 문명사적 전환의 의미를 부여하였겠는가?

지중해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야를 유라시아-아프리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중해는 지리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의 사이에 위치한 바다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명 간 교류의 관점에서 볼 때 지중해의 경계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동단과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11) Hans Belting, Translated by Deborah Lucas Schneider, *Florence and Baghdad -Renaissance Art and Arab Science-*, 2011, Harvard University Press, pp.312.

오늘날의 지중해는 사실상 지난 19세기의 바다에서 한 거름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시대흐름에 역행한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어쨌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지중해 연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한국중동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 2008년 5월 17일

개정 : 2009년 2월 10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중동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지켜나가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타인이 이룬 연구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여 이를 수 있는 연구풍토의 조성 및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술지 『한국중동학회논총』를 포함해서 학회가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에 글을 투고하고 심사하는 모든 연구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집필 활동을 적용 범위로 삼는다.

제4조(시행지침) 『한국중동학회논총』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투고신청서의 항목 중 하나인 윤리 규정준수에 대한 항목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5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출판 등을 말하며 그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결과물에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타인의 연구결과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논문에서 인용하고자 할 때, 인용의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한 타인의 연구결과나 주장에 대한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공동저자의 상대적인 지위 혹은 직책의 고하에 의해 제1저자로 업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와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연구 결과물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그 기여도가 명시되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⑤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은 이미 출판된 연구물 혹은 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에 있는 연구물을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학술지에 먼저 게재된 연구결과물을 저서로 출간하거나 일부를 포함시킬 경우 반드시 해당 학술지의 서지정보를 출판물에 명시해야 한다.
-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⑦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⑧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⑨ 사사로운 감정 개입으로 연구 결과물이나 연구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6조 편집위원회 윤리규정

1.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편집위원들에게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논문의 제목과 주제어만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논문저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저자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의뢰해야 한다.

① 편집위원은 저자와 가능한 한 개인적인 관계가 개입되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②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 심사위원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①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 등을 바탕으로 불충분한 논문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②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시키거나 탈락시키지 않는다.

③ 논문을 탈락시키고자 할 때는 충분한 근거를 심사보고서에 명시한다.

④ 심사자와 저자의 관점이나 해석이 상충되는 것을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논문심사보고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② 심사자는 논문심사보고서에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에 대한 비하나 모욕의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①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금한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상설기구는 아니며, 연구윤리위반사항이 보고되면 학회 편집위원장의 위촉으로 학회 상임이사회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제보자, 피조사자,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폭넓게 조사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진다. 이러한 면밀한 조사 후 윤리규정위반이 사실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논문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건의한다.

3. 연구윤리위원의 윤리규정

①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사안에 대해 심의에 임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된 연구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문제에 대해 편집위원회에 보고한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4.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절차

① 부정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와 학회장의 승인을 거쳐 “예비조사”절차를 가진다.

②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조사”절차를 가진다.

③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판정”절차를 가진다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본 학회에 구술·서면·전화·우편·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실명 제보자는 학회 차원에서 보호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게재이전에 투고된 논문에서 이러한 윤리규정위반에 대한 사항이 보고될 경우, 편집위원회나 심사자는 해당 연구자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키고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한다.

제10조(예비조사의 절차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학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①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③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1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예비조사 결과는 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③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2조(본 조사 절차 및 방법)

1. 본 조사는 학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해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위원회가 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1.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들을 포함하며, 총 구성원을 10인 이하로 정한다. 위원장은 윤리위원 가운데서 호선으로 한다.
2.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 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학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1. 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회장에게 제출한다.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내용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③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⑥ 윤리위원 명단

제18조(판정)

1. 윤리위원회는 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및 기록의 공개)

1. 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지할 수 있다. 아울러 논문 투고자는 향후 5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